江陵 校洞 住居址

백홍기
지현병
박영구

2002

江陵大學校 博物館
강 릉 시

표지사진

전면 : 1호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
후면 : 1호 주거지 출토 대부소호



교동 1호 · 2호 주거지 모습



교동 1호 주거지 노지 모습



교동 3호 주거지 모습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및 유물 나온 모습



교동 주거지 출토유물

目　次

Ⅰ. 머리말 ····· 13

Ⅱ. 調査經緯 및 經過 ····· 14

Ⅲ. 遺蹟의 位置 및 自然·考古學的環境 ····· 15

1. 遺蹟의 位置 ····· 15

2. 自然·考古學的環境 ····· 15

Ⅳ. 調査方法 및 調査內容 ····· 21

1. 靑銅器時代 住居址 ····· 22

1) 層位 ····· 22

2) 遺構와 遺物 ····· 22

(1) 1호 住居址 ····· 22

(2) 2호 住居址 ····· 51

(3) 3호 住居址 ····· 56

(4) 4호 住居址 ····· 65

(5) 5호 住居址 ····· 71

(6) 6호 住居址 ····· 79

2. 유천동 廢瓦窯地 ····· 89

Ⅴ. 考察 ····· 96

1. 靑銅器時代 住居址 ····· 96

1) 遺構 ····· 97

2) 遺物 ····· 100

(1) 土器類 ····· 100

(2) 石器類 ····· 103

3) 編年 및 周邊地域과의 關係 ····· 104

2. 廢瓦窯地 ····· 109

Ⅵ. 맺음말 ····· 109

그림 목차

〈그림 1〉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위치도 ····· 16
〈그림 2〉 교동 택지개발지구 내 선사 및 역사고고유적 분포도 ····· 17
〈그림 3〉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주변 선사유적 분포도 ····· 20
〈그림 4〉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현황도 ····· 23
〈그림 5〉 교동 1호 주거지 실측도 ····· 25
〈그림 6〉 교동 1호 주거지 노지 실측도 ····· 26
〈그림 7〉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27
〈그림 8〉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28
〈그림 9〉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0
〈그림 10〉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1
〈그림 11〉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3
〈그림 12〉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5
〈그림 13〉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7
〈그림 14〉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39
〈그림 15〉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41
〈그림 16〉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43
〈그림 17〉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46
〈그림 18〉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48
〈그림 19〉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50
〈그림 20〉 교동 2호 주거지 실측도 ····· 52
〈그림 21〉 교동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54
〈그림 22〉 교동 2호 주거지 출토유물 ····· 55
〈그림 23〉 교동 3호 주거지 실측도 ····· 57
〈그림 24〉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59
〈그림 25〉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60
〈그림 26〉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62

〈그림 27〉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63
〈그림 28〉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 64
〈그림 29〉 교동 4호 주거지 실측도 ····· 66
〈그림 30〉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69
〈그림 31〉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 70
〈그림 32〉 교동 5호 주거지 실측도 ····· 72
〈그림 33〉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74
〈그림 34〉 교동 5호 주거지 실측도 ····· 75
〈그림 35〉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76
〈그림 36〉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 78
〈그림 37〉 교동 6호 주거지 실측도 ····· 80
〈그림 38〉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 82
〈그림 39〉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 84
〈그림 40〉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 87
〈그림 41〉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 88
〈그림 42〉 유천동 폐와요지 실측도 ····· 90
〈그림 43〉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 92
〈그림 44〉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 93
〈그림 45〉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 94
〈그림 46〉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 95

사진 목차

〈사진 1〉 ①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먼 모습 ····· 133
②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가까운 모습
〈사진 2〉 ①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탐사조사갱 넣은 모습 ····· 134
②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사진 3〉 ①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조사 모습 ····· 135
②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4〉 ①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유물수거 후 조사 모습 ····· 136
② 교동 1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사진 5〉 ① 교동 1호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37
② 교동 1호 주거지 유물수거 후 조사 모습
〈사진 6〉 교동 1호 주거지 노지 모습 ····· 138
〈사진 7〉 ① 교동 1호 주거지 탄화기둥 모습 ····· 139
② 교동 1호 주거지 탄화미 모습
〈사진 8〉 교동 1호 주거지 북벽 지역 모습 ····· 140
〈사진 9〉 교동 1호 주거지 북벽 지역 유물 나온 모습 ····· 141
〈사진 10〉 교동 1호 주거지 북벽지역 유물 나온 모습 ····· 142
〈사진 11〉 ① 교동 1호 주거지 북벽지역 유물 나온 모습 ····· 143
② 교동 1호 주거지 남벽지역 모습
〈사진 12〉 교동 1호 주거지 남동벽 모서리 유물 나온 모습 ····· 144
〈사진 13〉 ① 교동 1호 주거지 남동벽 모서리 유물 나온 모습 ····· 145
② 교동 1호 주거지 작업대 및 제습용 홈 모습
〈사진 14〉 교동 1호 주거지 중앙지역 유물 나온 모습 ····· 146
〈사진 15〉 ① 교동 1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 147
② 교동 2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16〉 ① 교동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48
② 교동 2호 주거지 유물수거 후 조사 모습

〈사진 17〉 ① 교동 2호 탄화기둥 모습 ····· 149
② 교동 2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사진 18〉 교동 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50
〈사진 19〉 교동 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51
〈사진 20〉 ① 교동 3호 · 4호주거지 윤곽선 모습 ····· 152
②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21〉 ①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모습 ····· 153
② 교동 3호 주거지 내부 토층 모습(서-동)
〈사진 22〉 ①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동-서) ····· 154
②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서-동)
〈사진 23〉 ①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수거 후 조사 모습 ····· 155
② 교동 3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및 기둥구멍 모습
〈사진 24〉 ① 교동 3호 주거지 탄화기둥 모습 ····· 156
② 교동 3호 주거지 내 목탄 나온 모습
〈사진 25〉 ① 교동 3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 157
②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이중구연토기)
〈사진 26〉 ①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이중구연토기 구연부) ····· 158
②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사진 27〉 ①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59
② 교동 4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사진 28〉 ① 교동 4호 주거지 조사 모습 ····· 160
② 교동 4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사진 29〉 교동 4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 161
〈사진 30〉 교동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62
〈사진 31〉 교동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63
〈사진 32〉 ① 교동 5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 164
② 교동 5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33〉 ① 교동 5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65
②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및 유물 나온 모습

〈사진 34〉 ①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및 유물 나온 모습 ····· 166
②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속 토기 나온 모습
〈사진 35〉 ①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속 토기 세부 모습 ····· 167
②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속 토기 나온 모습
〈사진 36〉 교동 5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68
〈사진 37〉 ① 교동 6호 주거지 조사지역 구릉 모습 ····· 169
② 교동 6호 주거지 조사 모습
〈사진 38〉 ① 교동 6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 170
② 교동 6호 주거지 내부 토층 모습(서-동)
〈사진 39〉 ①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모습 ····· 171
②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1 모습
〈사진 40〉 ①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2 모습 ····· 172
②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3 모습
〈사진 41〉 ① 교동 6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 173
②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사진 42〉 ①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74
② 교동 6호 주거지 이중구연토기 구연부 모습
〈사진 43〉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75
〈사진 44〉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 176
〈사진 45〉 ① 유천동 폐와요지 조사지역 모습 ····· 177
② 유천동 폐와요지 윤곽선 모습
〈사진 46〉 유천동 폐와요지 조사 후 모습 ····· 178
〈사진 47〉 유천동 폐와요지 벽면 모습 ····· 179
〈사진 48〉 ① 유천동 폐와요지 연도부지역 기와 나온 모습 ····· 180
②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지도위원회의 모습
〈사진 49〉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81
〈사진 50〉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82
〈사진 51〉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83
〈사진 52〉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 184

〈사진 53〉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85
〈사진 54〉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86
〈사진 55〉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87
〈사진 56〉 교동 2호 주거지 출토유물 188
〈사진 57〉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89
〈사진 58〉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90
〈사진 59〉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91
〈사진 60〉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192
〈사진 61〉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193
〈사진 62〉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194
〈사진 63〉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195
〈사진 64〉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196
〈사진 65〉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97
〈사진 66〉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198
〈사진 67〉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199

Ⅰ. 머리말

강릉시 교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강릉시가 시의 균형적 발전과 장기적 택지수용의 공급을 위하여 강릉시 교동과 유천동 일부지역에 32만평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세우고 1994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지표조사를 의뢰해 왔다. 지표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유물산포지 2개소,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2개소, 폐와무지 1개소 등 모두 5개소의 유물산포지를 발견하였다.

강릉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사전조사자료를 검토한 후, 유적의 규모가 가장 큰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분포하는 1개소는 보존하는 방침을 확정하여 개발대상구역에서 제외하고 이곳을 절대녹지의 근린도시공원 조성지역으로 설계 변동하였다. 그 밖의 4개소는 시굴조사를 속행하여 유구가 발견되면 발굴조사하여 기록보존하고 토지는 택지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강릉대학 박물관은 1996년 이러한 교동택지개발지구의 시굴조사계획을 당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22일 발굴에 착수하여 1997년 12월 26일까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6基를 확인하였다.

교동 유적에서는 東北地方의 孔列土器와 西北地方의 角形土器, 그리고 흔히 미송리유형 토기로 알려져 있는 有頸壺가 공반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孔列土器와 角形土器의 混合形式의 土器인 孔列二重口緣土器文化의 형성과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동 주거지에서 나온 탄화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동기시대의 最古의 탄화미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교동유적은 조사성과 이외에 철저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등의 사전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중요한 유적을 원상보존하였다는 점이다. 교동택지개발공사가 시작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유적 조사와 구재 발굴, 보존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한편, 택지개발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교동택지개발지구는 유적보존과 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룬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

• 조사단 구성

단　　장 : 백 홍 기(현 강릉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지 도 위 원 : 故 한 병 삼(문화재위원)

장 경 호(현 기전문화재연구원장, 문화재위원)

조 유 전(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문화재위원)

최 몽 룡(서울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조　사　원 : 지 현 병(현 강원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

조사보조원 : 고 동 순(현 강원문화재 연구소 조사1팀장)
박 영 구(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보 조 원 : 김 동 민(강릉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이 창 현(현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사원)
심 상 육(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원)

Ⅱ. 調査經緯 및 經過

교동택지 지역은 강릉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택난 해소와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강릉시 교동, 유천동 일대에 34만평 규모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은 1994년 4월 강릉시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 받아 1994년 8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석기시대 유물 산포지 2곳, 청동기시대 유물 산포지 2곳, 폐와무지 1곳 등 모두 5곳의 유물 산포지를 발견하였다[1].〈그림 3〉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교동지구 지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유적의 규모가 제일 큰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지는 절대 녹지로 보존하고,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996년 9월 11일자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시굴조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우리 박물관에서는 1996년 10월 19일자로 시굴조사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하여 1996년 11월 22일 당국으로부터 시굴조사 허가를 받아 1996년 12월 17일 시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계속된 한파와 폭설 등으로 동절기 동안에는 유구 보존 차원에서 잠시 중단하였다가 1997년 3월 12일부터 다시 시작하여 1997년 4월 24일까지 약 50일간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동 신석기 유적과 유천동 신석기 유적은 모두 삭평되어 약간의 신석기시대 토기편만이 채집되었고, 유천동 폐와무지 유적에서는 와요지 1곳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주거지 6기를 확인하여 유적의 성격 파악을 위하여 3호 주거지를 정밀 발굴조사하였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강릉대 박물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97년 9월 18일부터 93일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

1)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4.『강릉 교동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Ⅲ. 遺蹟의 位置 및 自然·考古學的環境

1. 遺蹟의 位置

강릉시 교동 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 교1동, 유천동의 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포남동, 서쪽으로는 홍제동, 유천동, 북쪽으로는 죽헌동이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강릉대학교 동남쪽 고속도로 변에 위치하며,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45′, 동경 128°53′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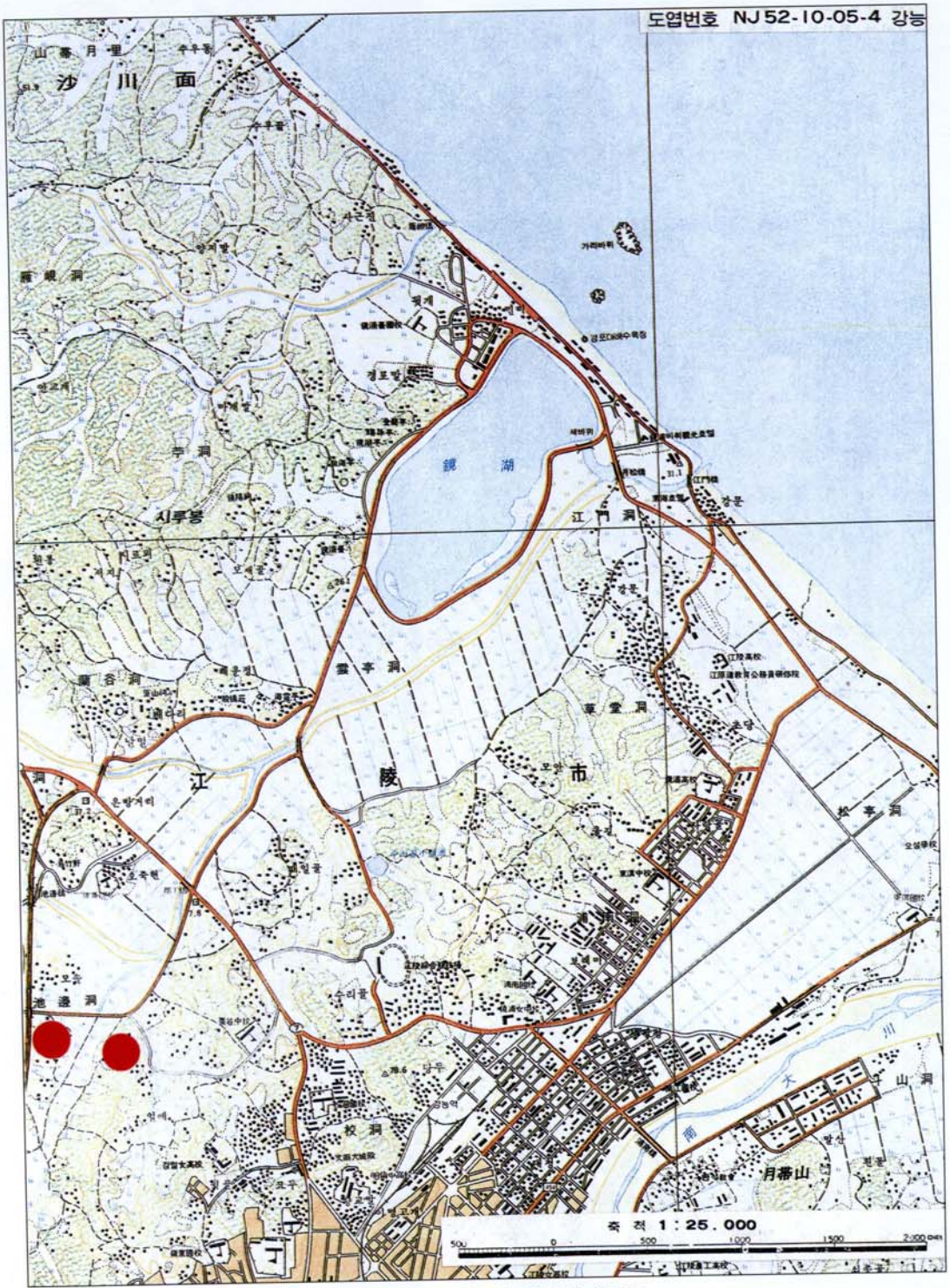
동 지역은 강릉시의 북서편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해발 50m미만의 낮은 구릉지대로 이들 낮은 산에서 발원한 작은 물골이 경포에 다다르며 만들어 놓은 충적평야지대인 죽일골이 경포호수에까지 접하고 있으며, 선사시대에는 경포호수가 교동지역은 물론 지변동 일대까지 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自然 및 考古學的 環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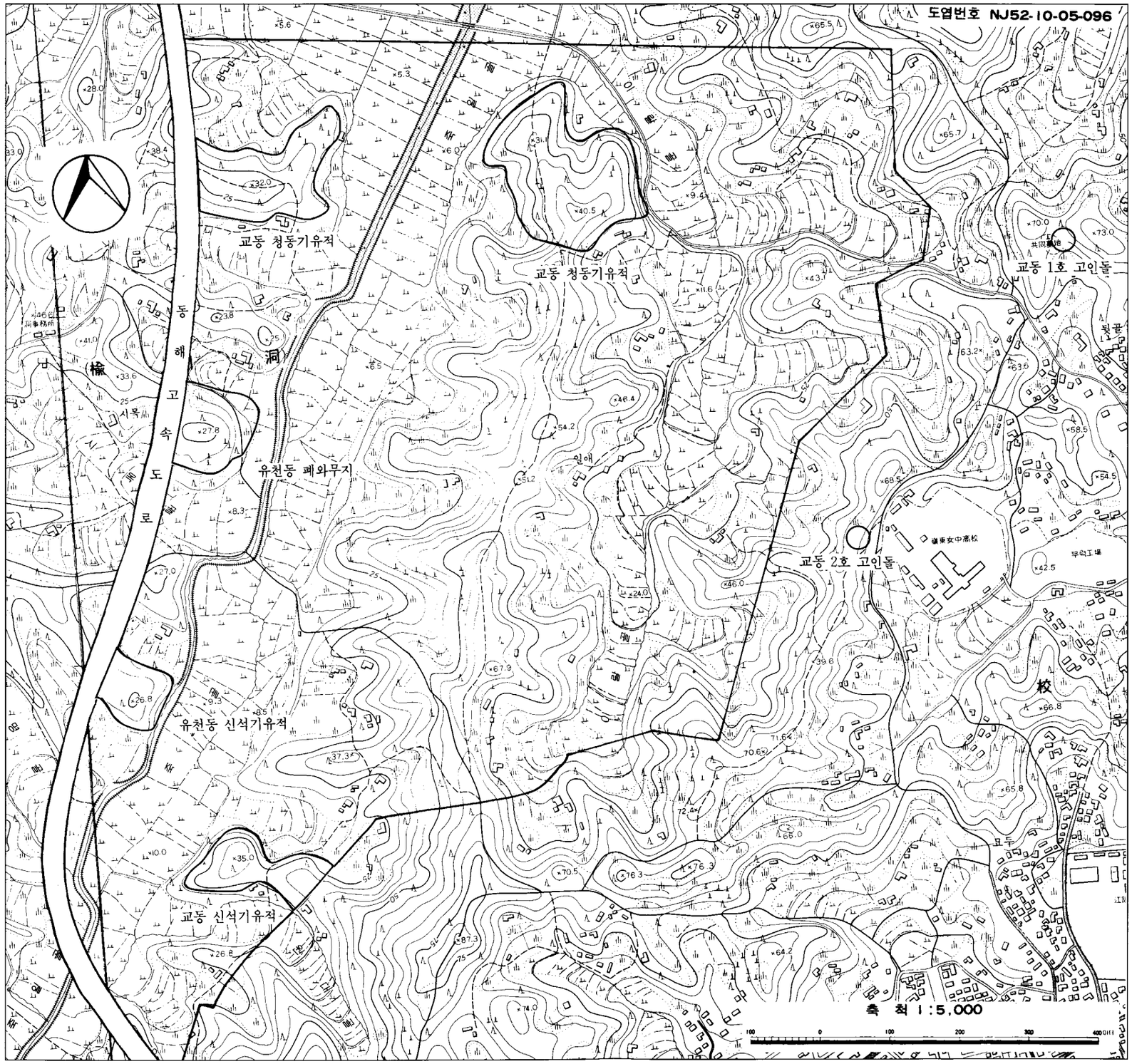
영동지방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강릉시는 남쪽은 동해시, 북쪽은 양양군, 동쪽은 동해와 접하고 있고, 서쪽은 태백산맥의 대관령 정상을 중심으로 평창군과 인접하고 있다.

강릉시는 영동 제 1의 중심도시로서 시가지는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남대천(35Km)을 중심으로 남·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대천의 하류부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만들고 있어 강릉 신시가지가 포남동 일대의 평야지대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운정천(11Km)이 흐르고, 남쪽에는 시동천(8Km)이라는 비교적 짧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들 하천은 태백산맥까지 이르지 못하고 화강암 개척구릉지대에서 발원하고 하류부에는 鏡湖와 楓湖라는 潟湖가 형성되어 있어 선사인들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양호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주변에서 많은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강릉지방의 지세는 대체로 100m 미만의 낮은 구릉들이 선상으로 동해를 향하여 뻗고 있으며, 이 구릉지대의 서·남·북쪽은 300~1,000m 정도의 산지로 둘러 쌓여 있어서 동쪽만 동해와 접한다. 이 구릉지대는 풍화에 약한 화강암이 기반을 이루고 있는 반면, 주변의 산지는 풍화에 강한 사암 및 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릉지대와 비슷한 높이를 보이는 산록완사면지형은 시의 남단부인 담산동 에서부터 구정면 어단리에 걸쳐 나타나며, 크기가 다양한 사력퇴적물로 덮여 있다. 구릉들



〈그림 1〉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위치도



〈그림 2〉 교동 택지개발지구 내 선사 및 역사고고유적 분포도

의 사이에는 작은 하천들이 흐르는데 완산면 목계리 화실산과 대관령쪽에서 발원하는 남대천은 가장 큰 하천으로서 강릉시를 관통한 후 견소동의 하구 부근에 이르러 어단리 완사면의 배후 산지에서 발원하는 담석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든다.[2] 남대천의 하류에는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논농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구릉지로부터 발원하여 좁은 유역면적과 완만한 하상종단면구배를 갖고 있어서 퇴적물의 공급량이 적은 운정천과 시동천을 연하여서는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대천의 하류부에는 크게 곡류한 남대천의 구유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유로는 인공적으로 직선화 되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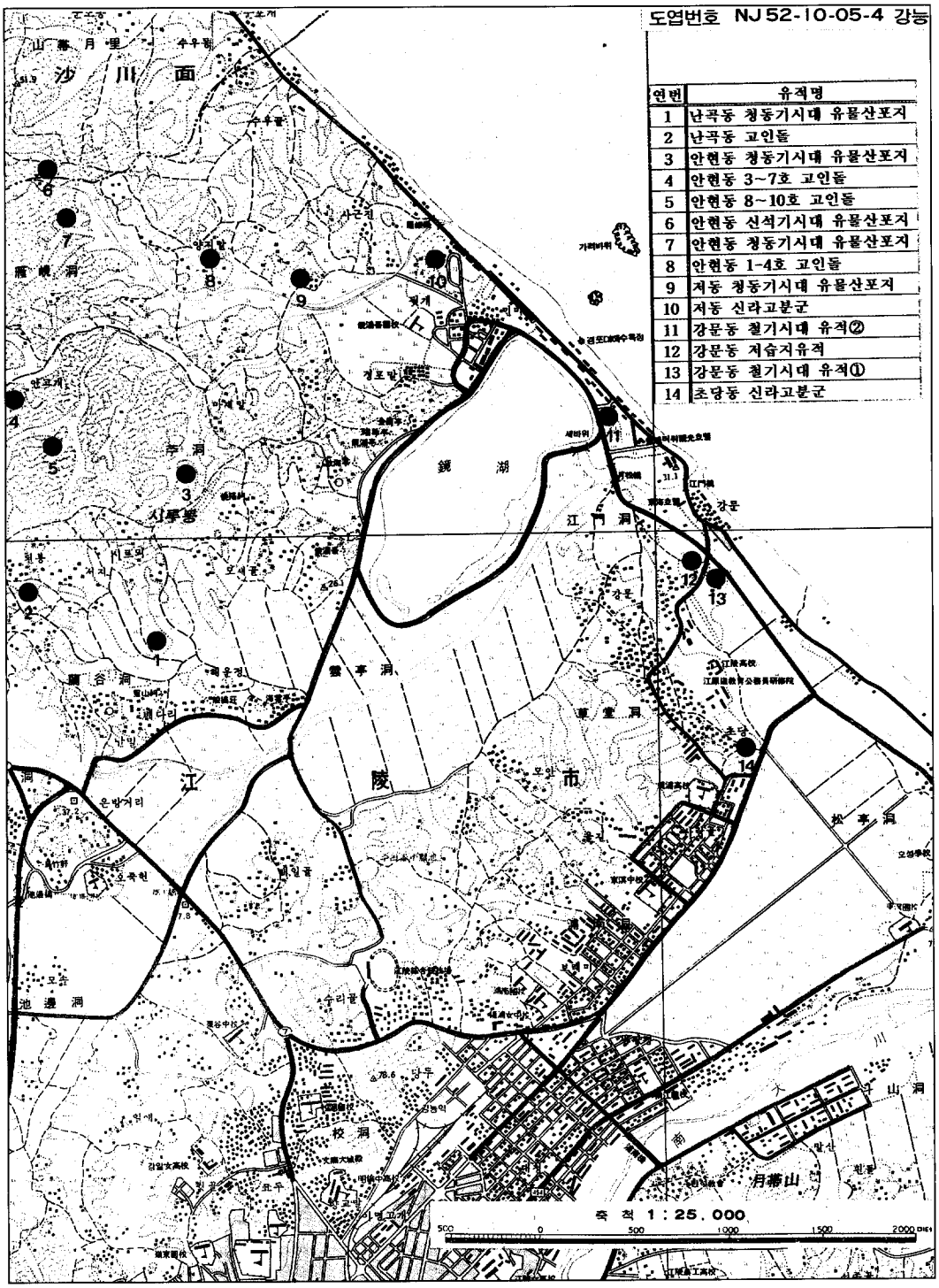
강릉시의 총 면적은 73.50㎢으로 경지면적 3,059ha 중 논 1,911ha, 밭 1,148ha이며 지형은 西高東底形으로 영동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농업이 성한 편이며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논의 그루갈이가 가능하다.[4]

강릉지방은 태백산맥을 등지고 동해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냉한 북서계절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훤(fouhn)현상으로 같은 위도의 서해안 보다 약 4°C 정도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수량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여름에 적고, 봄 · 가을 · 겨울에 많은 것이 특징이며 3계절의 강수량은 영서지방에 비하여 2~3배에 이른다.

태백산맥에서 동으로 뻗어내린 해발 100m 미만의 크고 작은 많은 구릉이 線狀으로 동해를 향하여 뻗고 있으며, 이들 구릉지대의 계곡에서 발원하는 하천유역에는 낮은 구릉들이 많고 해안선 부근에는 호수들이 발달되어 특수한 지형조건을 이루고 있으며 강원 영동지방의 중요 선사유적은 주로 이들 하천유역이나 호수 주변의 모래언덕과 주변의 낮은 구릉지대에서 발견되고 있다[5].

이러한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선사시대부터 근래까지 많은 유적이 강릉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교동 유적 주변에는 홍제동 구석기유물 산포지, 지변동 신석기유적, 위촌리 신석기유적, 초당동 신석기유적, 안현동 신석기유적, 안현동 청동기유적, 난곡동 청동기유적이 지표조사 되었고[6], 포남동 청동기유적[7], 강문동 철기시대유적[8], 강문동 저습지유적[9], 병산동 철기시대 · 신라고분유적[10],

2) 建設部國立地理院, 1994.『韓國地誌』지방편 Ⅲ.
3) 曺華龍, 1987.『韓國의 沖積平野』敎學硏究社, p.50.
4) 建設部國立地理院, 1994.앞의 책.
5) 지현병, 1991.「지표조사 내용」『강원영동지방 선사문화연구』 강릉대학교 박물관 · 문화재연구소 .
6) 지현병, 1995.「강릉의 선사고고유적」『강릉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7) 이난영, 1964.「강릉시 포남동 출토 선사시대 유물」『역사학보』24. pp. 119~140.
8) 지현병 · 박영구, 1996.「강릉 강문동 주거지」『강릉 동덕리 주거지』강릉대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2.「강릉시 강문동 320-1번지 여관신축부지 문화유적 긴급 발굴조사 약보고서」
9) 지현병, 2001.「강릉 강문동 저습지유적」『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 고고학부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10)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8.「강릉 병산동 공항대교 접속도로 건설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그림 3〉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주변 유적 분포도

초당동 고분군[11]등이 발굴조사 되었다.〈그림 2〉

이러한 많은 유적은 자연환경적으로 강릉이 호수와 바다, 그리고 남대천이나 강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과 호수, 바다의 풍부한 담수 어족과 호수나 강변 부근의 발달된 충적지는 선사인들의 수렵, 어로, 채집생활에 적합하고 철기시대인들의 농경생활이 정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강릉지역은 한반도의 동북지방과 동남해안지방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사문화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지역이기도 하다.

Ⅳ. 調査方法 및 調査內容

교동 유적에 대한 조사는 교동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2개의 구릉 강릉대학교 정문 앞 동해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구릉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6호 주거지가 조사된 구릉은 절대녹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사구역에서 제외되었다가 구릉의 일부가 터널공사 지역으로 포함되어 현상변경이 이루어져서 일부만 조사하게되었다.

구릉은 강릉대학교 정문과 마주보는 해발 32m 높이의 낮은 구릉으로 Y자모양으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동 지역은 동해고속도로가 관통되면서 능선의 허리가 잘려 나가 유적의 상당부분이 결실된 지역으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 석촉, 어망추가 채집된 지역이다.

먼저 조사에 앞서 유적 및 주변지역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구릉의 전지역에 Grid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릉 정상부에 공사기점 197점을 B.M 0점으로 정하고, 구릉의 방향과 일치하게 197점 자북선에서 西로 60°꺾은 다음 북서방향 60m 지점에 기준점 E0 점을 설정한 다음 남동편으로 10m×10m 크기의 방안을 설정하였다.〈그림 4, 사진 2-①〉

조사 전 구릉은 40~50년생의 수목이 자라고 있어 우선 그리드가 설정되는 지점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고, 유적의 범위와 구릉의 토층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그리드 안에 1.5m×8m의 탐색조사갱을 구릉의 능선부에는 구릉방향과 일치하게 넣었고, 구릉의 8부 능선부터는 종방향으로 구릉의 말단부까지 넣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구층이 노출되면 사방으로 확장 조사하는 방법으로 조

강원문화재연구소, 2002.「청량-안목간 도로개설 공사구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1) 지현병 · 박영구, 1997.「강릉 초당동 C지구 고분 발굴조사」『강릉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강릉대학교 박물관.

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표토층 제거 후 바로 풍화암반이 노출되면서 곧 바로 어깨윤곽선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구릉의 능선부분이 상당히 삭평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지는 능선부에 위치하며 구릉의 방향과 일치하게 동-서 방향으로 노출되었으며 노출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한편 6호 주거지는 1-5호 주거지가 자리잡은 구릉에서 동으로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남-북 방향으로 뻗은 해발 약 40~50m 높이의 능선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서쪽은 죽일골이, 남동쪽은 이랄골의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동 지역에는 70~80년 생 된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좁은 능선을 따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시굴조사시 동 지역은 절대보존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기로 되어 있어 제외되었으나 6호 주거지가 확인된 좁고 긴 구릉의 일부가 터널지역으로 포함되어 현상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에 발굴조사기간 중에 조사하게 되었다.

1. 青銅器時代 住居址

1) 層位

교동 유적이 위치한 구릉은 강릉대학교 정문과 마주보는 해발 32m 높이의 낮은 구릉으로 Y자 모양으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다. 구릉의 북쪽은 동해고속도로가 관통되면서 능선의 허리가 잘려나가 유적의 상당부분이 결실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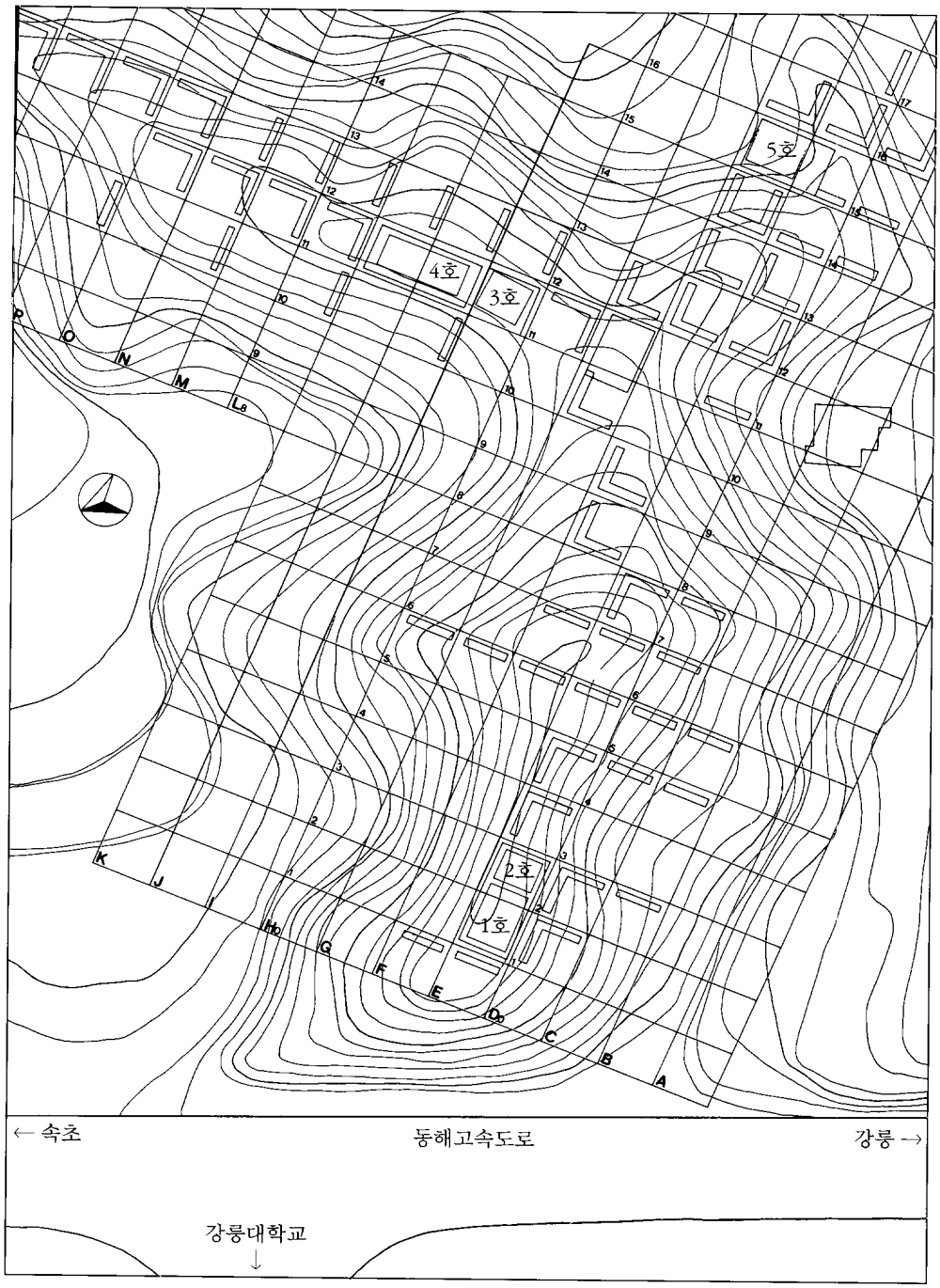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표토층 제거 후 바로 풍화암반이 노출되면서 곧 바로 어깨윤곽선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구릉의 능선부분이 상당히 삭평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구릉 정상부에서는 윤곽선이 많이 삭평되어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주거지의 윤곽선이 확인된 반면, 아래의 저능선에서는 정상부에서 흘러 내린 퇴적토가 덮혀 있었다.

2) 遺構와 遺物

(1) 1호 住居址 (그림 5, 사진 2-②~15-①)

① 遺構

1호 주거지는 구릉의 북서편 고속도로와 인접한 E1트렌치의 탐색조사갱내에서 주거지의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한 결과 장방형의 주거지가 노출되었다. 북편의 어깨윤곽선은 현지표하 10~15m



〈그림 4〉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조사 현황도

깊이에서 노출된 반면, 남쪽장벽은 경사면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동안 삭평되었기 때문에 남쪽장벽과 모서리부분의 윤곽선은 결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먼저 주거지 윤곽선 안에 30㎝의 十字둑을 남기고 퇴적층을 차례로 제거한 결과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들어가 마련된 바닥과 벽이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구릉의 방향과 일치하게 동 서(북 서 50°) 방향으로 안치하였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9.6m, 폭 5m, 수혈깊이는 40㎝이며, 주거지의 전체 면적은 48㎡(약 15평)이다.

바닥에는 고운 진흙을 얇게 깔았고, 북동쪽 벽에서는 판자벽 뒤쪽에 불에 탄 진흙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자를 세우고 진흙으로 뒷채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바닥 바로 위층은 약 10~15cm 두께로 회백색 진흙층이 퇴적되어 있고, 위층은 암갈색 진흙층에 숯이 약간 섞여 있는 점토가 북동벽에서 남서벽으로 가면서 비스듬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 바로 위층은 황갈색의 점토층이 덮여져 있었으나 어깨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노지는 위석식 노지로 주거지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방형으로 2~3매의 할석을 돌려 만들었으나 남 · 동쪽이 경실되었고, 내부 바닥은 소토화 되었다.

기둥구멍은 동벽에서 7개, 북벽에서 5개, 서벽에서 1개가 조사되었고, 주거지의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동서로 탄화기둥 1개와 기둥구멍 1개가 확인되었다. 중앙의 기둥간 거리는 약 5m, 직경 약 10cm, 벽체 기둥간 거리는 동벽이 80~120cm, 북벽이 80~10cm 직경 10~12cm, 깊이 10~14cm이다.

한편 주거지의 바닥 곳곳에서는 탄화된 목탄이 확인되며, 동남쪽 모서리의 목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바닥 약간 아래에서 일부 탄화미가 확인되어 목탄을 제거하고 흙을 채취하여 정리해 본 결과 상당량의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탄화미는 평균 길이 4.5㎜, 폭 2.5㎜, 장폭 비 1.6의 단립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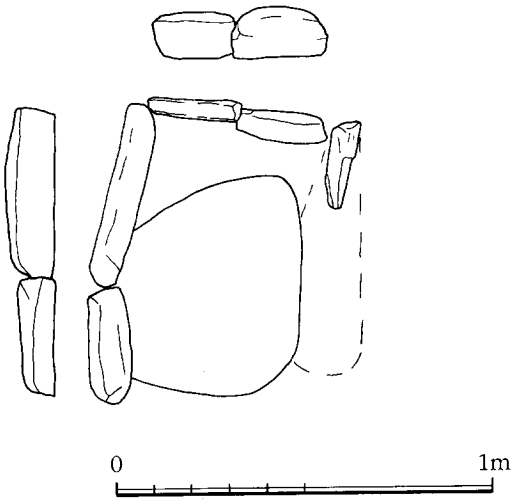
1호 주거지에서는 동남쪽 모서리에 2곳, 남쪽 중앙에 1곳 등 모두 3곳의 저장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직경은 40~60㎝이며, 동남쪽 모서리의 2곳에서는 심발형토기가 각각 1점씩 비스듬히 넘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작업대는 모두 3점이 출토되었는데 남쪽벽에 붙어서 길이 50㎝, 폭 28㎝, 두께 3㎝ 크기의 판석 1매가 출토되었고 이 작업대에서 동쪽으로 1.3m정도 떨어져 길이 50㎝, 폭 24㎝, 두께 7㎝크기의 판석이 옆으로 세워져 있고 바로 옆의 저장구덩이에서도 지름 25㎝정도의 판석이 1매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북쪽벽과 동남쪽벽 모서리부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동남쪽 모서리 저장구덩이 안에서 공열토기 1점과 그 주위에서 2점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나 파손이 심하여 완형으로 복



〈그림 5〉 교동 1호 주거지 실측도



〈그림 6〉 1호 주거지 노지 실측도

원되지 않았다. 한편 주거지 가운데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소형의 심발형토기 2점과 목긴 두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북쪽벽에 붙어서 이중구연에 단사선문을 시문한 대형토기 1점이 파손된 상태로 나왔고, 바로 옆에 심발형토기 1점이 옆으로 넘어진 상태로 나왔고 주위에는 무문토기편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그밖의 출토유물로는 북벽 바로 밑에서 둥근 토제 어망추 15점이 한 지점에서 집중 출토되었고, 반월형석도 2점, 토제 방추차 6점, 석제 방추차 1점, 화살촉 4점. 돌대패 등이 출토되었다.

② 遺物

○ 二重口緣土器 (그림 7, 사진 49-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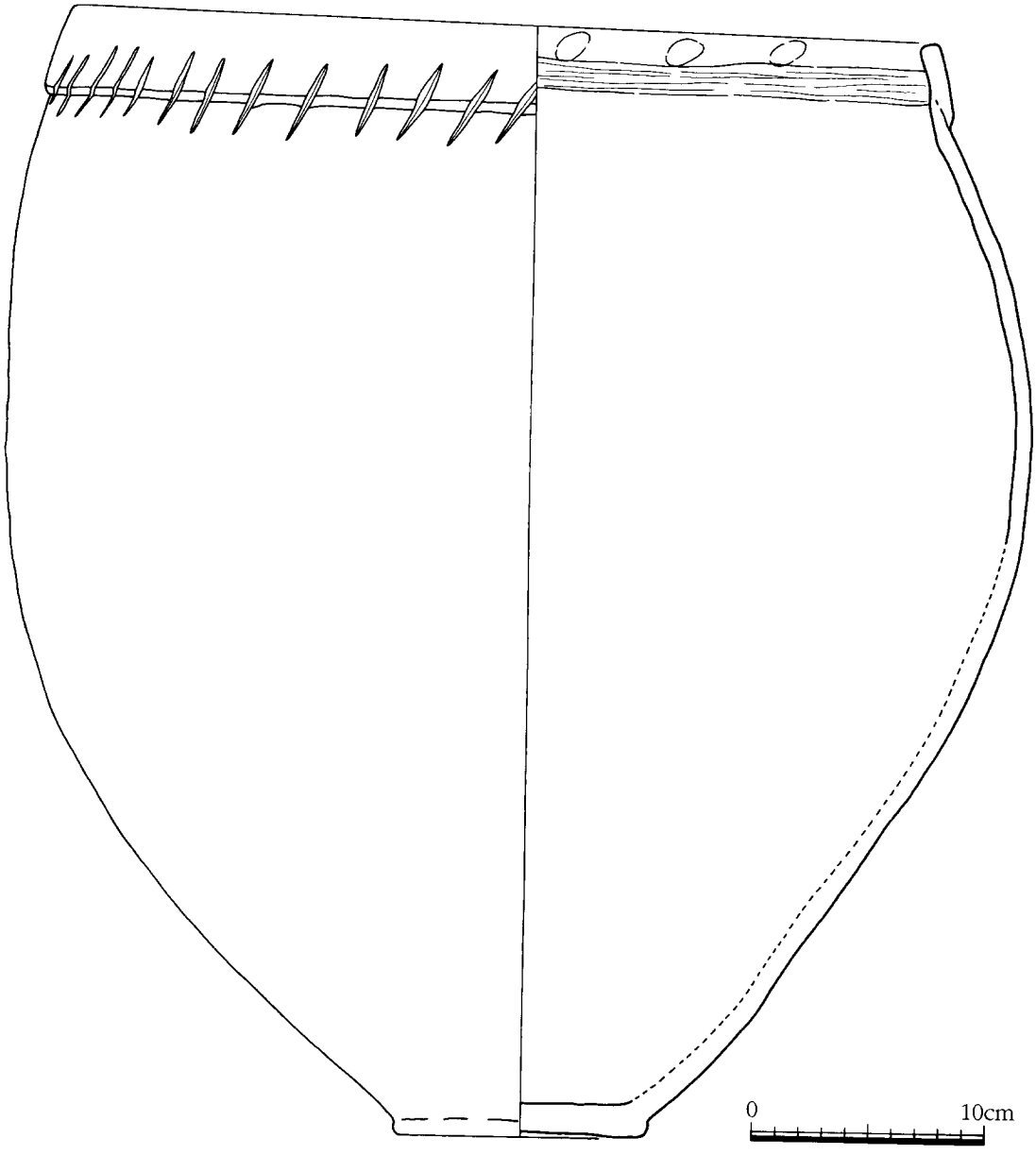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쪽벽에 붙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대형 이중구연토기로 구연부는 몸통에서부터 완만하게 좁혀지다가 구연의 접합부분에서부터 약간 오므라들다가 직립하였다. 구연의 접합부에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붙여 이중구연을 만들고, 그 상단에는 우측상단에서 아래로 4.5cm 크기의 단사선을 새겼다. 몸통은 동체 상단에서 최대를 이루다가 서서히 좁혀져 바닥과 연결된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에 비해 작은 편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토기의 내 ·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하엿으며 구연부 상단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띠며 소성은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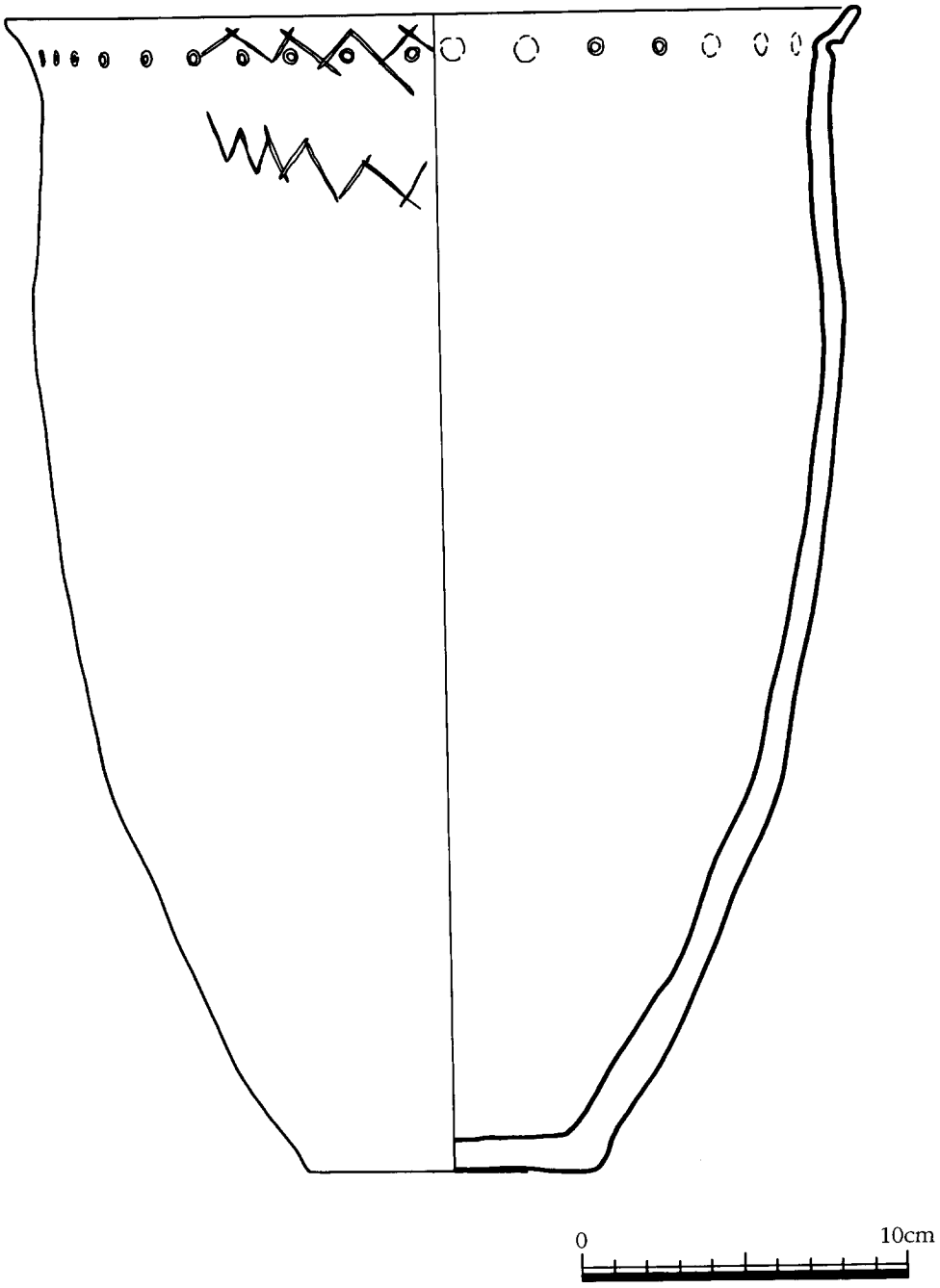
크기는 높이 50.5cm 입지름 38.5cm 밑지름 11cm 몸통최대폭 43.5cm 기벽두께 0.6~1cm이다.

○ 孔烈土器 (그림 8, 사진 49-②)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 저장공 안에서 비스듬하게 쓰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심발형의 공열토기로 구연은 몸통에서 완만하게 좁혀지다가 짧게 외반하였다. 구연부 바로 밑에는 돌아가면서 서로



〈그림 7〉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8〉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교차하는 사격선을 새기고 사선이 교차하여 이루는 예각 사이에 직경 0.5cm 크기의 공열문을 밖에서 안으로 반 관통 되게 뚫었다.

크기는 높이 39cm 입지름 26cm 밑지름 9cm이다.

○無文土器 (그림 9, 사진 49-③)

주거지의 북벽에서 위의 이중구연토기와 인접해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몸통은 상단부분부터 안으로 오므라들다가 목은 약간 길게 직립하였다. 몸통은 둥근 편이다. 몸통은 중앙에서 최대 폭을 이루다가 서서히 좁혀져 바닥과 연결되며.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이다. 바닥은 납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목 부부분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높이 39.4cm 몸통최대폭 29.1cm 입지름 15.5cm 밑지름 9.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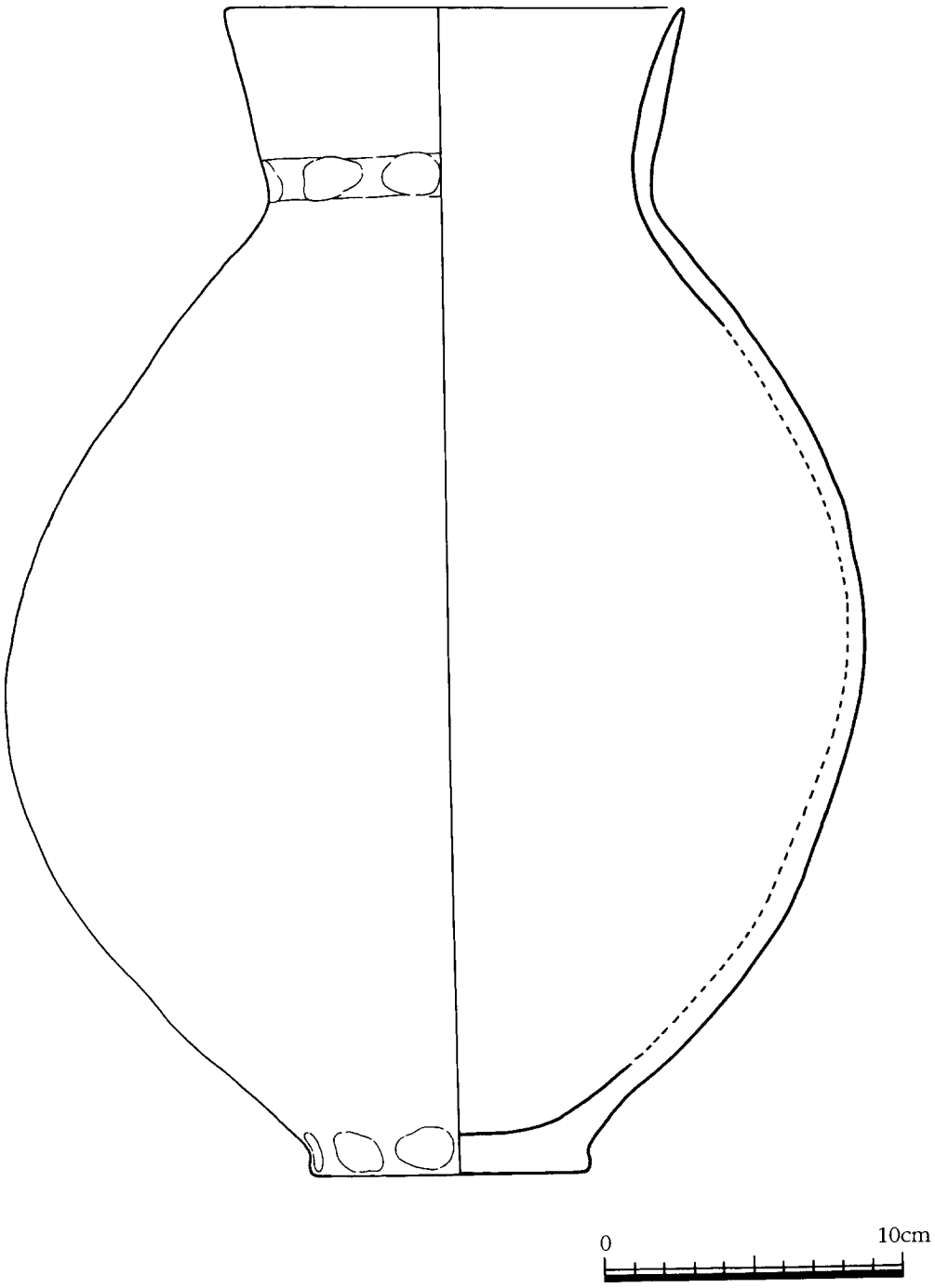
○深鉢形土器 (그림 10-①, 사진 49-④)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출토된 완형의 심발형 토기이다. 몸통은 밑동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져 올라오다가 구연부는 곧게 섰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토기의 접합부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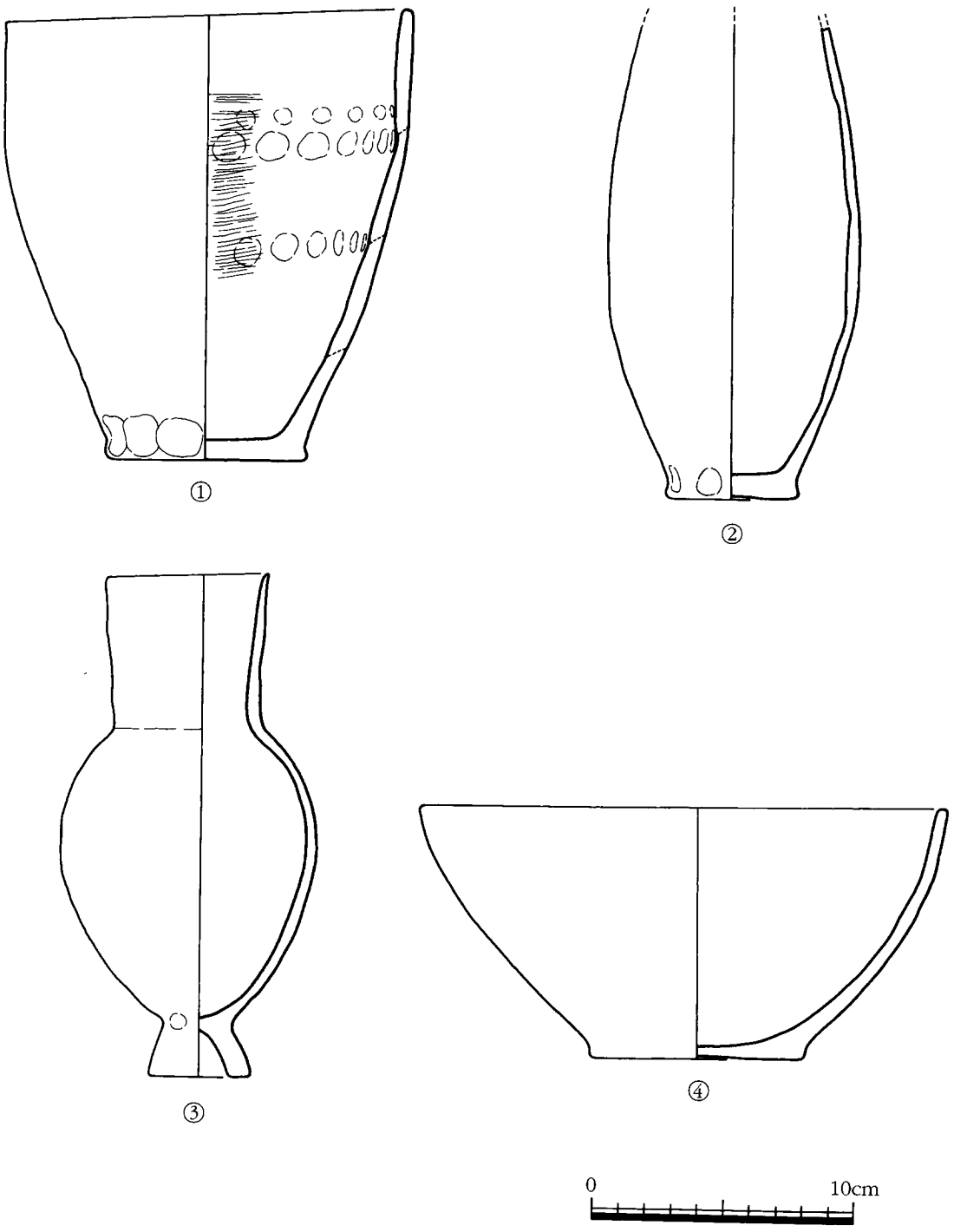
크기는 높이 17.4cm 입지름 15.6cm 밑지름 7.7cm이다.

○深鉢形土器 (그림 10-②, 사진 50-①)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의 심발형 토기와 인접해서 출토되었으나 구연부분이 결실되었다. 몸통은 장동형으로 중앙에서 최대 폭을 이룬 후 밑으로 내려가면서 축약되어 바닥과 연결된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높이 18.2cm 몸통최대폭 9.6cm 밑지름 5.2cm이다.



〈그림 9〉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10〉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臺附小壺 (그림 10-③, 사진 50-②)

주거지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의 심발형 토기와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구연은 몸통에서부터 완만하게 좁혀지며 올라오다가 목에서부터 길게 곧게 섰으며 입술끝에서 짧게 외반한다. 몸통은 중간 이하에서 최대 폭을 이룬 후 밑으로 내려가면서 축약되어 굽과 연결된다. 굽은 몸통과의 연결면에서부터 완만하게 벌어지며 내려오다가 둥근 저부를 만들었다. 저부의 끝부분은 윗쪽보다 약간 넓고, 들린 바닥을 만들었다. 들린 바닥 안쪽으로는 3.2cm 깊이로 파여 있다. 기벽은 얇은 편이며 내 · 외면 모두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은 붉은 점토칠을 한 후 마연하였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은 양호하다.

크기는 높이 18.3cm 몸통최대폭 9.8cm 입지름 6.2cm 굽지름 4cm 기벽두께는 0.4cm로 고른 편이다.

○無文土器 鉢 (그림 10-④, 사진 50-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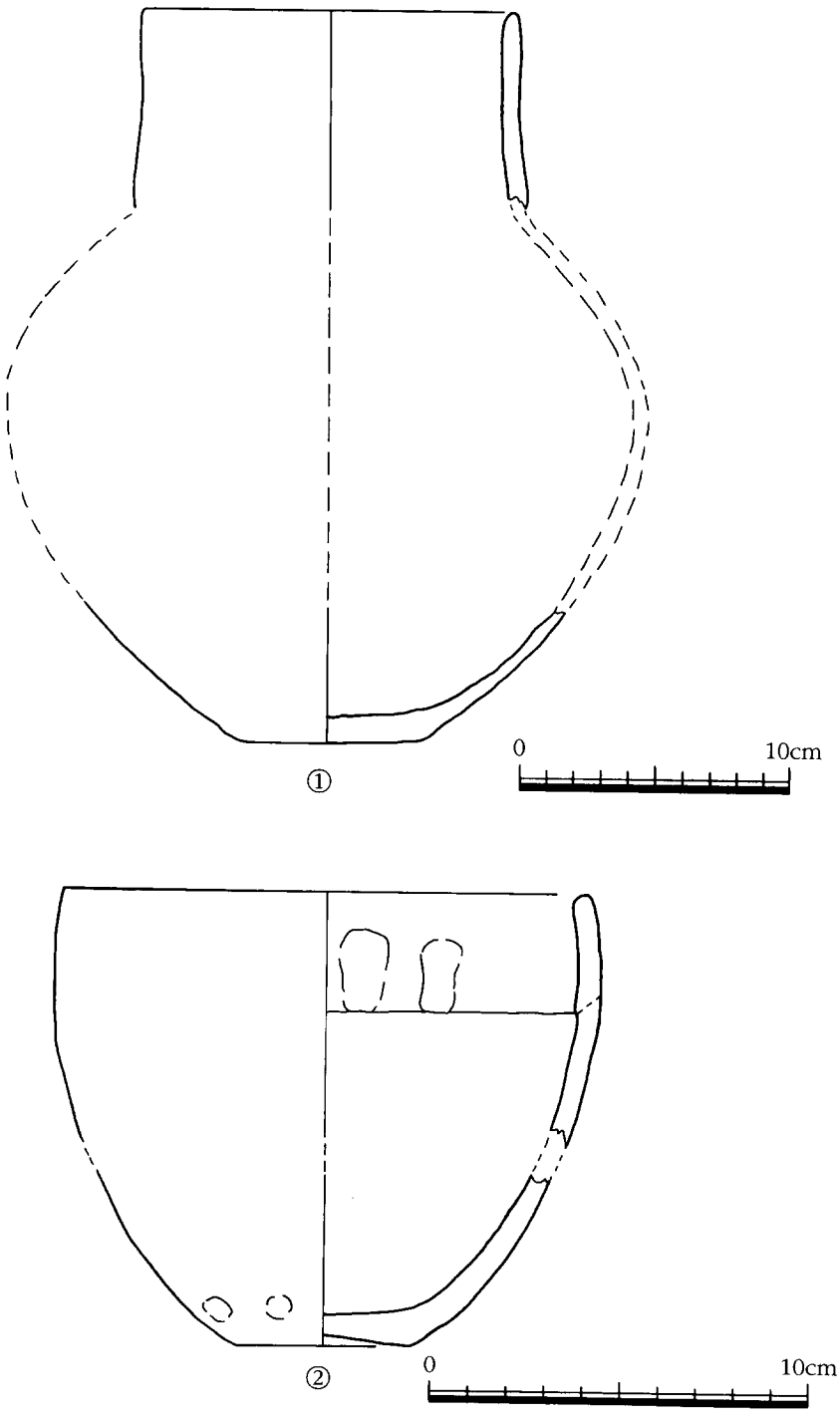
주거지의 중앙 부분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에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몸통은 자연스럽게 벌어져 올라오다가 몸통 상단에서 오므라들며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몸통의 최대 폭은 구연부에 위치한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외면은 마연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높이 9.7cm 입지름 20.2cm 밑지름 8.2cm이다.

○無文土器 (그림 11-①, 사진 50-④)

주거지의 북벽에서 출토된 호형토기로 구연부의 일부와 바닥의 일부만이 남아 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구연부는 직립하였고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목은 약간 길게 직립하였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어 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진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높이 27cm 추정입지름 13.6cm 밑지름 6.4cm이다.

○無文土器 (그림 11-②, 사진 50-⑤)

주거지의 북벽에서 중앙으로 약간 치우쳐서 출토된 무문토기로 구연부의 일부와 바닥의 일부만이 남아 있어 도면복원하였다. 구연부는 몸통상단에서부터 서서히 오므라들며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몸통은 중상위에서 최대 폭을 이루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서서히 축약되어 바닥과 연결된



〈그림 11〉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바닥과 몸통의 접합부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내면 토기의 접합부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잇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띠며 크기는 추정높이 12cm 추정입지름 12.4cm 밑지름 5cm이다.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12-①, 사진 51-①)

주거지의 북벽 부분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구연부로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며 기면의 일부가 박리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1cm 추정입지름 37.4cm 두께 0.6cm이다.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12-②, 사진 51-②)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에서 출토된 구연부 편으로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며 내면 토기의 접합부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cm 추정입지름 34.2cm 두께 0.6cm이다.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12-③, 사진 51-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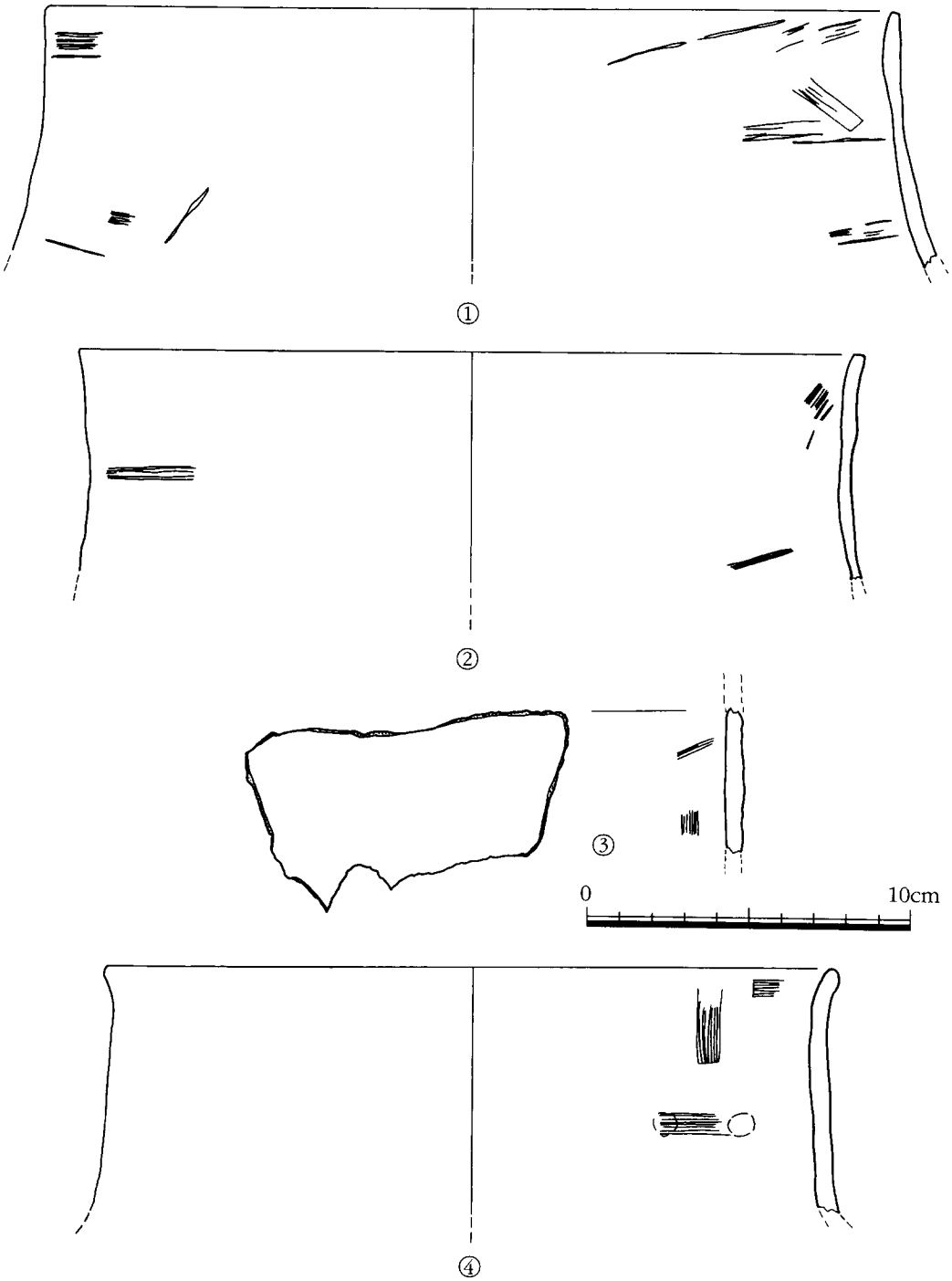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부분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구연부로 입술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나 거친 편이며 기벽은 얇은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7cm 두께 0.5cm이다.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12-④, 사진 51-④)

주거지의 북벽 부분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구연부로 구연부는 목에서부터 길게 직립하여 올라오다가 입술 끝에서 살짝 외반한다.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며 내면에는 토기의 접합부에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8cm 추정입지름 22.4cm 두께 0.6cm이다.



〈그림 12〉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13-①, 사진 51-⑤)

주거지의 북벽 부분에서 출토된 공열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몸통에서 완만하게 오라들며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0.5cm 밑에는 직경 0.3cm 크기의 공열문을 밖에서 안으로 뚫었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며 일부 흑반된 곳이 보이며 내면은 토기의 표면이 많이 박리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2cm 추정입지름 17.2cm 두께 0.9cm이다.

○孔列土器 口緣部片 (그림 13-②, 사진 51-⑥)

주거지의 북벽 부분에서 출토된 공열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직립하였고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부 1~1.5cm 밑에는 직경 0.3cm 크기의 공열문을 밖에서 안으로 뚫었는데 반관통된 상태이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고, 외면은 균열이 심하고 일부가 박리된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cm 두께 1cm이다.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13-③, 사진 51-⑦)

주거지의 북벽 부분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구연부로 구연부는 입술끝에서 살짝 바라졌으며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5cm 추정입지름 16.8cm 두께 0.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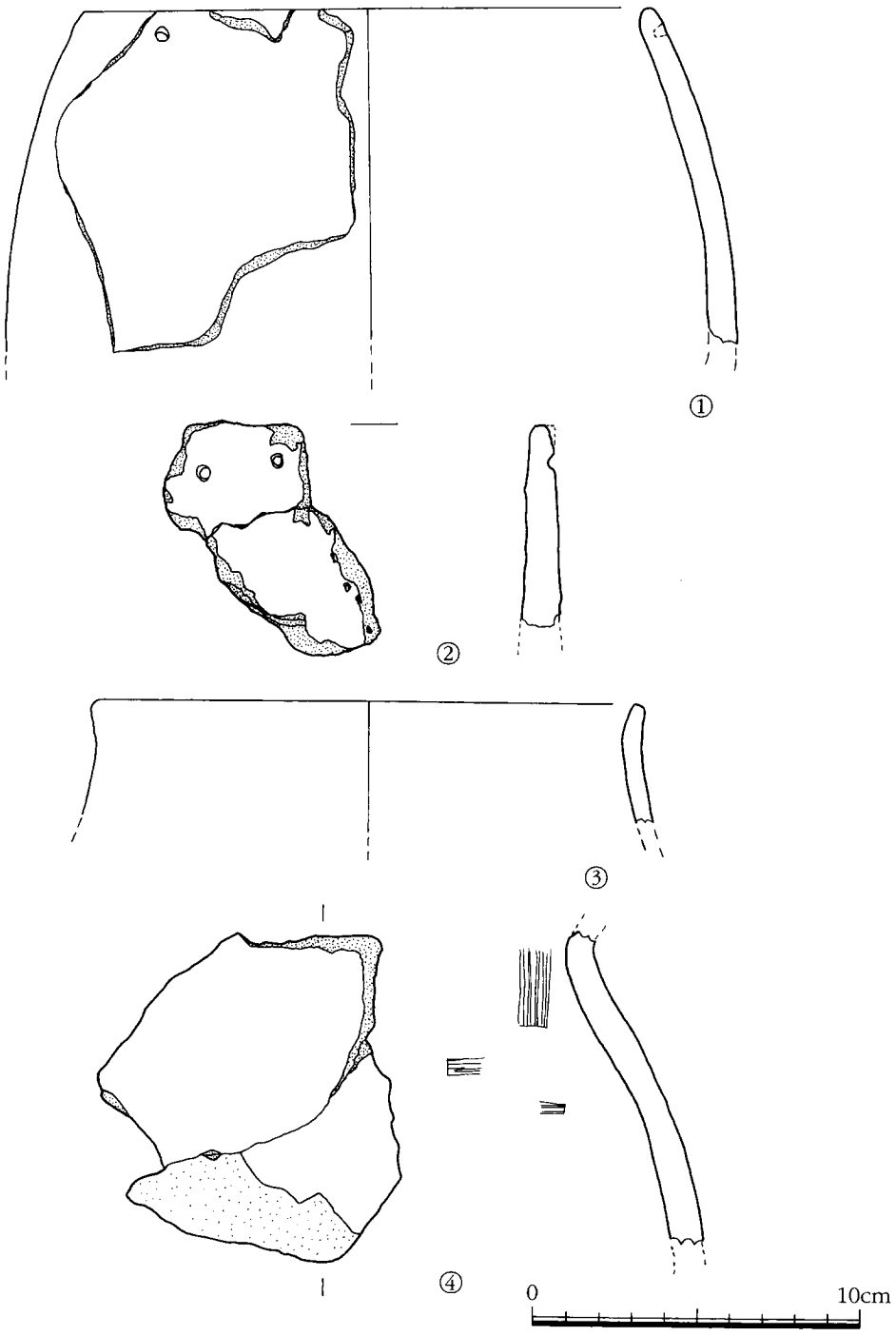
○無文土器 口緣部片 (그림 13-④, 사진 51-⑧)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부분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구연부로 입술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기면은 종방향으로 다치구를 이용하여 긁어 내렸고, 내면에는 토기 소성시에 부착된 유기물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cm 두께는 1cm로 두꺼운 편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4-①, 사진 52-①)

주거지의 북벽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아래면은 박리된 상태이다.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



〈그림 13〉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고 내면은 다치구로 횡방향으로 긁어 내린 후 물손질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소성이 고르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8.6cm 밑지름 7.8cm 바닥두께 0.8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4=②, 사진 52-②)

주거지의 북벽에서 중앙으로 약간 치우쳐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내면은 다치구로 횡방향으로 긁어 내렸고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1cm 밑지름 10.4cm 바닥두께 0.8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4-③, 사진 52-③)

주거지의 서벽 주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이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물손질하였으나 소성이 고르지 못한 편이며 표면이 많이 박리된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4cm 밑지름 10cm 바닥두께 1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4-④, 사진 52-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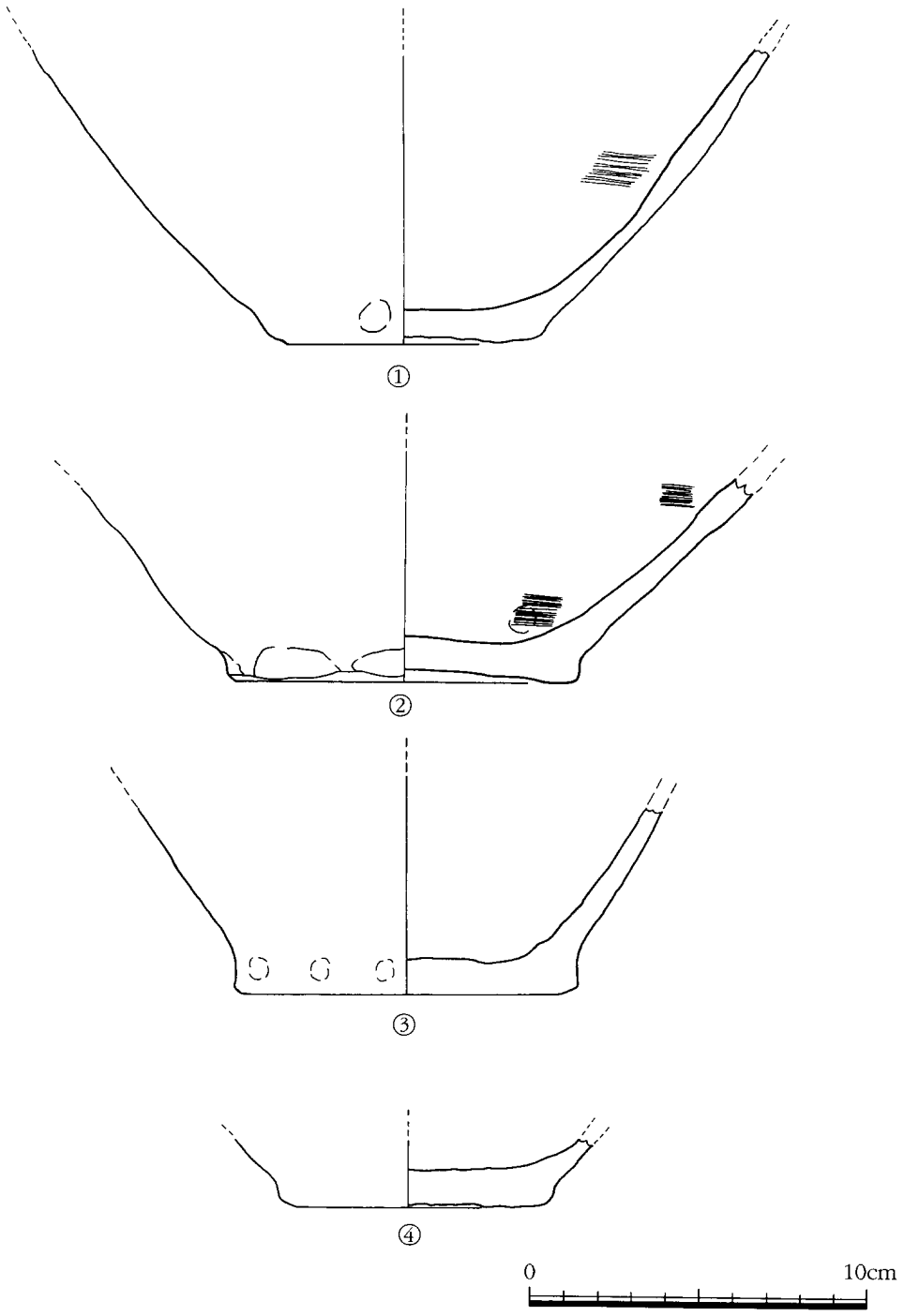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벽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진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소성이 고르지 못하며 표면이많이 박리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1cm 밑지름 8cm 바닥두께 1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5-①, 사진 52-⑤)

주거지의 서벽 주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밑동부분이 결실되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기면은 물손질하였으나 소성이 고르지 못한 편이며 표면이 일부 박리된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7cm 밑지름 13.6cm이다.



〈그림 14〉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5-②, 사진 52-⑥)

주거지의 북벽에서 중앙으로 약간 치우쳐 바닥의 일부만이 남아 잇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깊게 남아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내면은 다치구로 횡방향으로 긁어 내렸고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9cm 밑지름 10cm 바닥두께 0.7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5-③, 사진 52-⑦)

주거지의 북벽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으나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진다. 기면은 물손질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8cm 밑지름 8.8cm 바닥두께 0.6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5-④, 사진 52-⑧)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절반 가량이 남아 있다. 바닥은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매끄러운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띠며 일부 흑반된 곳이 보인다. 크기는 현존높이 2.8cm 밑지름 6.4cm 바닥두께 0.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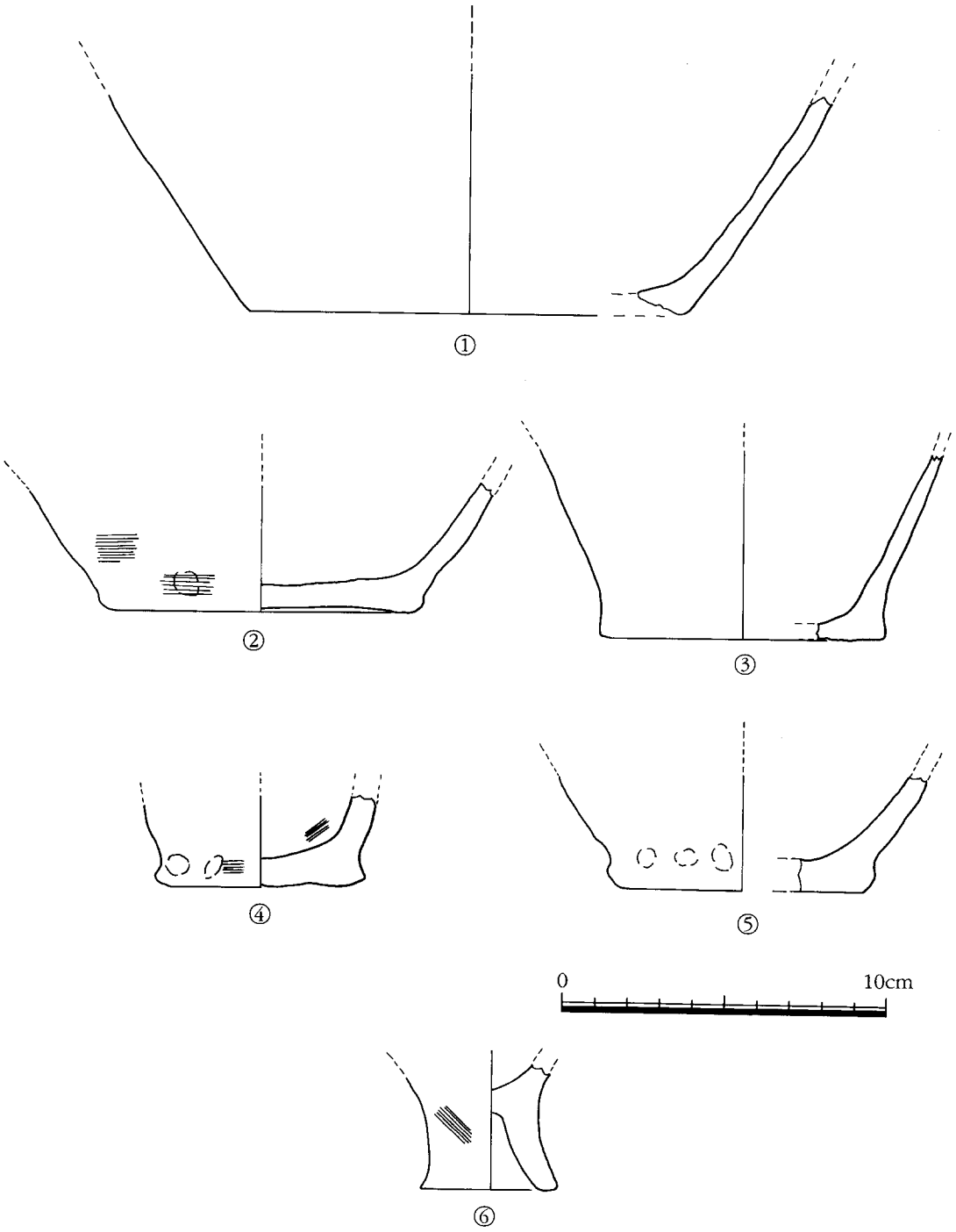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15-⑤, 사진 52-⑨)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절반 가량이 남아 있다. 바닥은 납작 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5cm 밑지름 8.2cm 바닥두께 1cm이다.

○赤色土器 臺脚片 (그림 15-⑥, 사진 52-⑩)

적색토기 대각편으로 굽은 몸통과의 연결면부터 완만하게 벌어지며 내려오다가 둥근 저부를 만들었다. 저부의 끝부분은 윗쪽보다 약간 넓고, 들린 바닥을 만들었다. 들린 바닥 안쪽으로는 2.4cm 깊이로 파여 있다. 내 · 외면 모두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거친 편이며 표면이 박리되었다. 바탕흙은



〈그림 15〉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크기는 현존높이 3.9cm 굽지름 4.2cm 기벽두께는 1cm로 고른 편이다.

○紡錘車 (그림 16-①, 사진 53-①)

주거지의 북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측면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된 토제 가락바퀴이다. 안쪽면에는 방사선문이 전면에 걸쳐 시문되어 있다.

크기는 직경 5.4cm 구멍지름 0.6cm 기벽두께는 1.9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②, 사진 53-②)

토제 가락바퀴로 중앙에는 직경 1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직경 5.4cm 구멍지름 1cm 기벽두께는 1.8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③, 사진 53-③)

토제 가락바퀴로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0.8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직경 5.4cm 구멍지름 0.8cm 기벽두께는 1.8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④, 사진 53-④)

토제 가락바퀴로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매끄럽게 정면되었다. 색깔은 적갈색이다.

크기는 직경 5.2cm 구멍지름 0.8cm 기벽두께는 1.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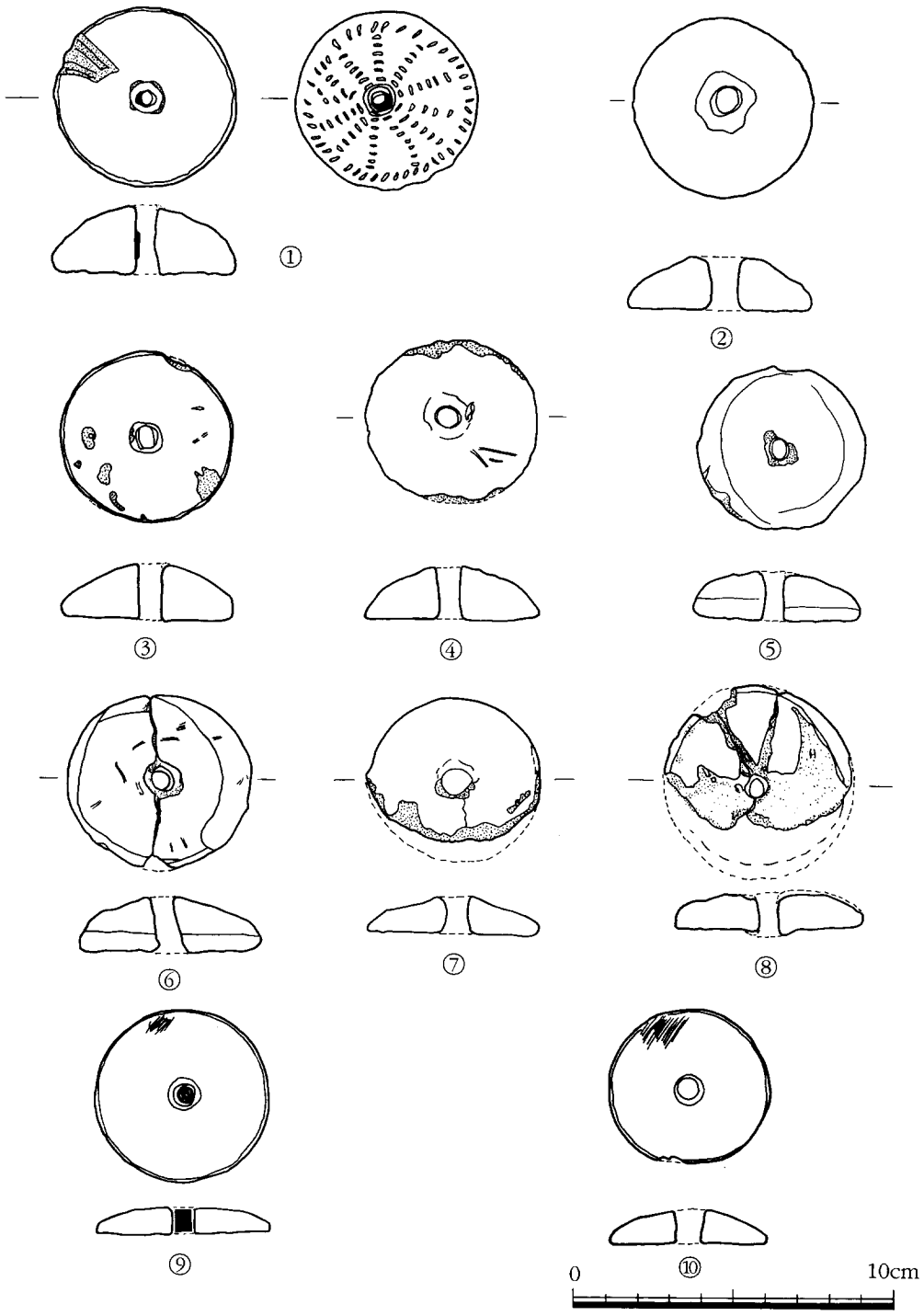
○紡錘車 (그림 16-⑤, 사진 53-⑤)

토제 가락바퀴로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0.8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직경 5.2cm 구멍지름 0.8cm 기벽두께는 1.5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⑥, 사진 53-⑥)

토제 가락바퀴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단면은 산주형으로 중앙에는 직경 0.7cm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그림 16〉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크기는 직경 5.4cm 구멍지름 1cm 기벽두께는 1.8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⑦, 사진 53-⑦)

화덕자리 안에서 출토된 토제 가락바퀴로 약 $\frac{1}{3}$ 가량이 결실되었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직경 5.2cm 구멍지름 0.8cm 기벽두께는 1.2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⑧, 사진 53-⑧)

토제 가락바퀴로 약 $\frac{1}{3}$ 가량이 결실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0.8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표면이 많이 박리된 상태이다.

크기는 직경 5.6cm 구멍지름 0.8cm 기벽두께는 1.2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⑨, 사진 53-⑨)

석제 가락바퀴로 중앙에는 직경 0.9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중앙의 구멍에는 목탄이 박혀 있다. 크기는 직경 5.4cm 구멍지름 0.9cm 두께는 0.9cm이다.

○紡錘車 (그림 16-⑩, 사진 53-⑩)

석제 가락바퀴로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1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는 직경 4.8cm 구멍지름 1cm 두께는 1.1cm이다.

○半月形石刀 (그림 17-①, 사진 54-①)

주거지의 서북편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이다. 형태는 魚形이며 좌측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날은 외쪽날로 중앙에는 약 1cm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고 석질은 흑색의 세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12.5cm 폭 4.9cm 두께 0.7cm이다.

○半月形石刀 (그림 17-②, 사진 54-②)

주거지의 서북편에서 위의 반월형석도와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형태는 잡압형이며 좌측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날은 외쪽날로 중앙에는 2개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고 석질은 흑색의 세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10.9cm 폭 4.9cm 두께 0.5cm이다.

○半月形石刀 (그림 17-③, 사진 54-③)

주거지의 서북편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일부가 결실되었다. 형태는 魚形이며 날은 외쪽날로 중앙에는 약 2.3cm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고 석질은 흑운모 편암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12.5cm 폭 4.9cm 두께 0.7cm이다.

○半月形石刀 片 (그림 17-④, 사진 54-④)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편이다. 날은 외쪽날이다. 석질은 흑색의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7.1cm 폭 5.3cm 두께 0.5cm이다.

○半月形石刀 片 (그림 17-⑤, 사진 54-⑤)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편이다. 날은 외쪽날이다. 석질은 흑색의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3.9cm 현존폭 3.3cm 두께 0.4cm이다.

○돌대패 (그림 17-⑥, 사진 54-⑥)

주거지의 북벽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전면이 곱게 갈려 있고, 날은 외쪽날로 인부가 약간 결실되었다. 석질은 담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길이 5.3cm 폭 4.4cm 두께 1cm이다.

○有莖式石鏃 (그림 17-⑦, 사진 54-⑦)

주거지의 서북편에서 촉신과 슴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단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있고, 슴베는 단면 원형이다. 석질은 녹회색 셰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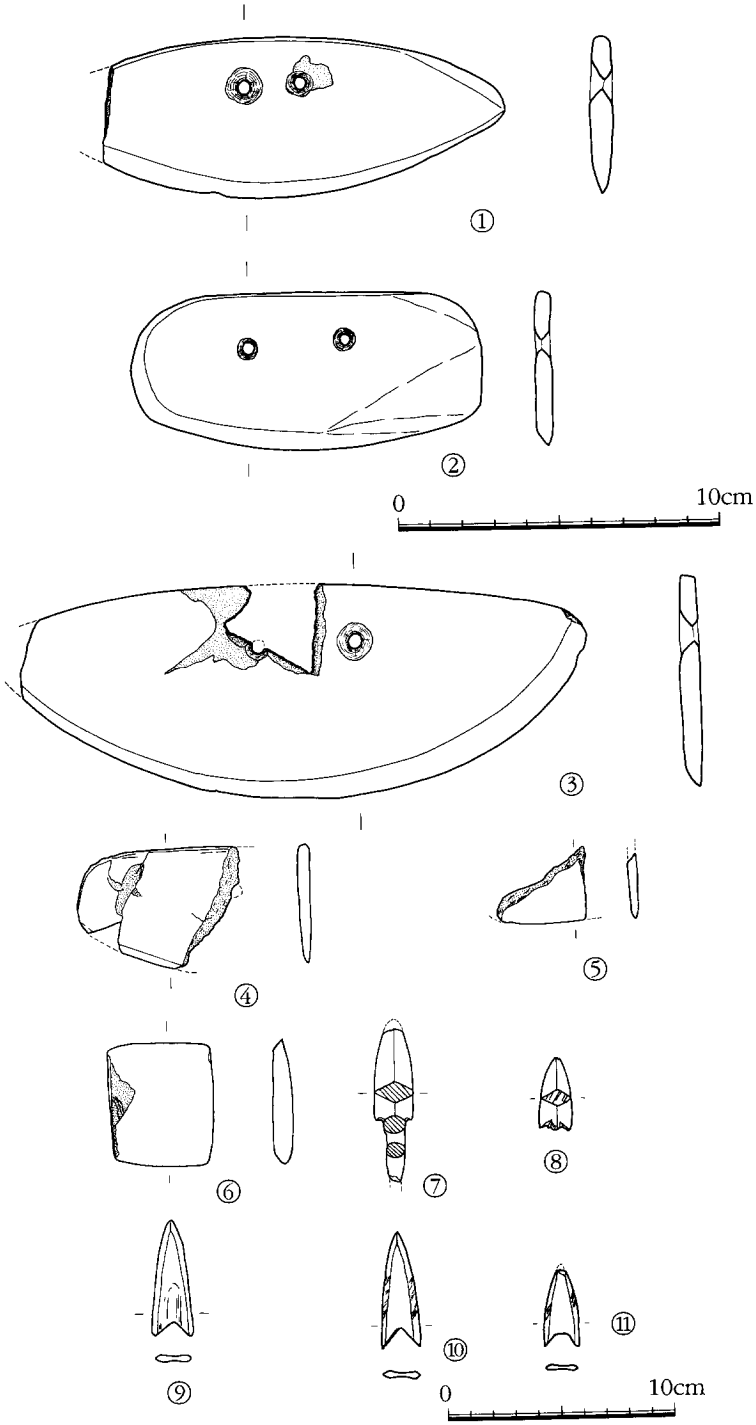
크기는 길이 6.6cm 폭 1.7cm 두께 0.8cm이다.

○有莖式石鏃 片 (그림 17-⑧, 사진 54-⑧)

주거지의 서북편에서 슴베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유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있다. 석질은 담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3.4cm 폭 1.5cm 두께 0.5cm이다.

○無莖式石鏃 (그림 17-⑨, 사진 54-⑨)

주거지의 북벽에서 출토된 화살촉이다. 무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편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있고 중앙에는 혈구가 마련되어 있다. 석질은 녹회색 셰일이다.



〈그림 17〉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크기는 길이 5.2cm 폭 1.8cm 두께 0.3cm이다.

○無莖式石鏃 (그림 17-⑩, 사진 54-⑩)

주거지의 동벽에서 출토되었다. 무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편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있고 중앙에는 혈구가 마련되어 있다. 석질은 녹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길이 5.3cm 폭 1.7cm 두께 0.4cm이다.

○無莖式石鏃 (그림 17-⑪, 사진 54-⑪)

주거지의 북벽에서 촉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소형의 무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편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있고 중앙에는 혈구가 마련되어 있다. 석질은 녹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길이 3.4cm 폭 1.5cm 두께 0.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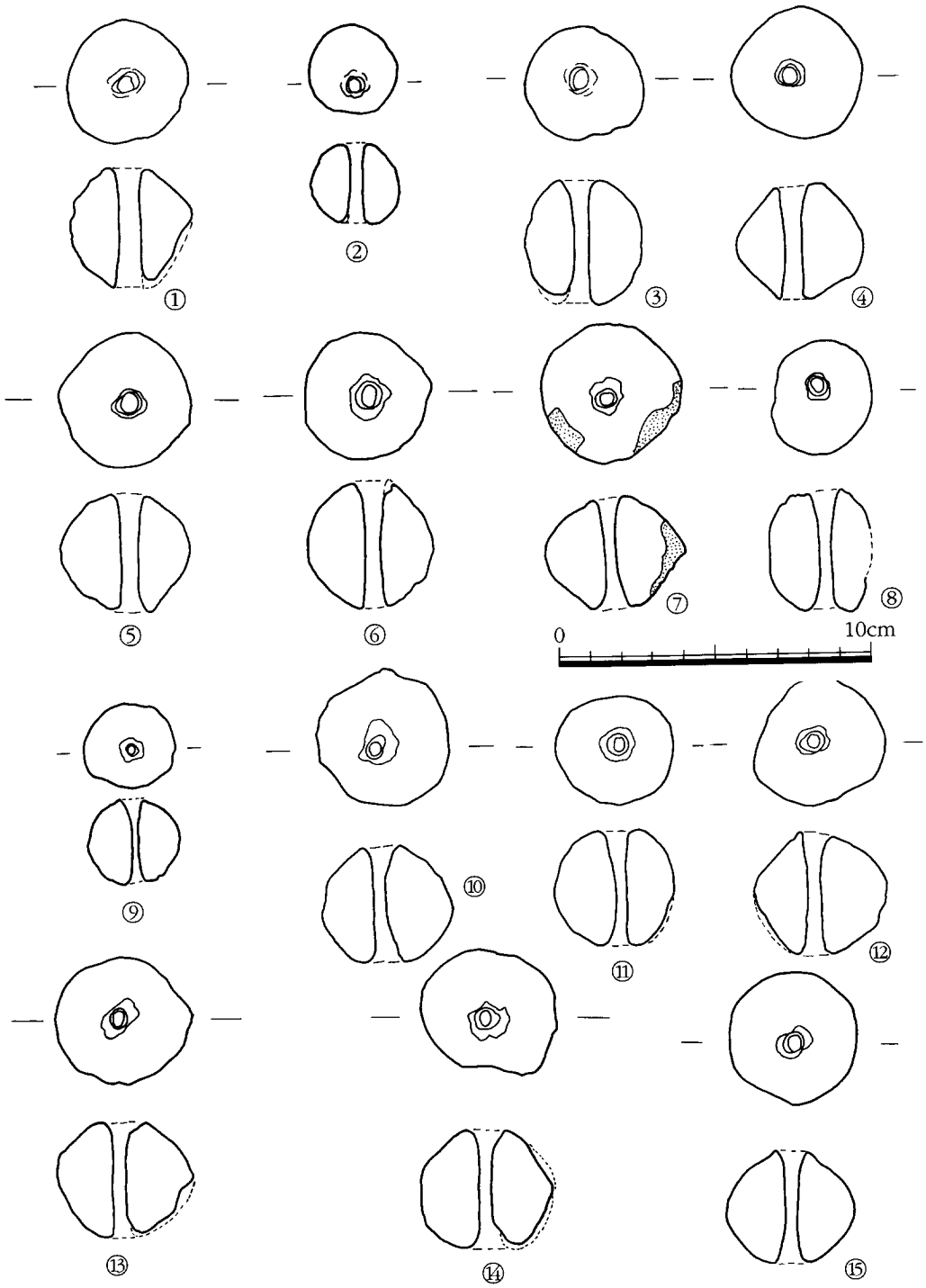
○漁網錘 (그림, 사진) 1-40

토제 어망추로 주거지의 북벽 모서리 한 지점에서 15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산주형이 12점, 구형이 3점으로 중앙에는 직경 0.6~0.8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1호 주거지 출토 어망추 집계표

단위 : cm

번호	형태	지름	구멍지름	두께	무게(g)	그림	사진	비고
1	산주형	2.8	0.8	2.4	16	18-①	54-⑫	일부파손
2	산주형	2.6	0.8	2.8	18	18-②	54-⑬	
3	구형	2.9	0.7	2.5	18	18-③	54-⑭	
4	산주형	2.8	0.7	2.8	20	18-④	54-⑮	
5	산주형	2.4	0.7	2.8	18	18-⑤	54-⑯	
6	산주형	2.5	0.7	2.6	16	18-⑥	54-⑰	
7	산주형	2.6	0.7	2.8	16	18-⑦	54-⑱	
8	구형	2.5	0.6	2.3	14	18-⑧	54-⑲	일부파손
9	산주형	2.5	0.6	2.3	16	18-⑨	54-⑳	
10	산주형	2.6	0.6	2.5	16	18-⑩	54-㉑	
11	구형	2.4	0.6	2.5	14	18-⑪	54-㉒	
12	산주형	2.6	0.6	2.6	16	18-⑫	54-㉓	
13	산주형	2.6	0.6	2.6	16	18-⑬	54-㉔	일부파손
14	산주형	2.4	0.8	2.6	14	18-⑭	54-㉕	일부파손
15	산주형	2.5	0.8	2.7	14	18-⑮	54-㉖	



〈그림 18〉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漁網錘 (그림 19-①, 사진 사진 55-①)

주거지의 서북편 모서리에서 출토된 석제 어망추이다. 둥근 자갈의 양쪽면을 타격하여 그물코를 만들었다. 석질은 석영-흑운모암이다. 크기는 길이 4.5cm 폭 3.8cm 두께 1.2cm 무게 28g이다.

○漁網錘 (그림 19-②, 사진 55-②)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된 석제 어망추이다. 둥근 자갈의 양쪽면을 타격하여 그물코를 만들었다. 석질은 석영-장석질 암맥이다. 크기는 길이 3.4cm 폭 3.9cm 두께 0.7cm 무게 16g이다.

○砥石 (그림 19-③, 사진 55-③)

주거지의 남벽 목탄 주위에서 출토되었다. 단면 삼각형으로 자연석의 한면을 갈아 사용하였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이다. 크기는 길이 11cm 폭 14.7cm 두께 7cm이다.

○砥石 片(그림 19-④, 사진 55-④)

주거지의 서남벽 모서리 저장공 주변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타원형의 둥글고 긴 냇돌의 한 면이 사용되었다.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크기는 길이 6.9cm 폭 10cm 두께 4cm이다.

○砥石 片(그림 19-⑤, 사진 55-⑤)

주거지의 남벽에서 출토된 지석편으로 자연석의 한면만을 갈아 사용하였으나 면이 거친 편이다. 석질은 흑운모 편마암으로 크기는 길이 16.5cm 폭 8.1cm 두께 2.8cm이다.

○砥石 (그림 19-⑥, 사진 55-⑥)

주거지의 남벽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직사각형으로 4면이 곱게 갈려 있으나 일부 표면이 떨어져 나갔다. 석질은 규장질암으로 크기는 길이 10.9cm 폭 5.1cm 두께 2cm이다.

○砥石 (그림 19-⑦, 사진 55-⑦)

주거지의 북벽에서 2조각 난 상태로 출토된 지석편으로 자연석의 한면만을 갈아 사용하였으나 면이 거친 편이다. 석질은 반 화강암으로 무른 편이다.

크기는 길이 5.8cm 폭 4.9cm 두께 2.9cm이다.



〈그림 19〉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石棒 片 (그림 19-⑧, 사진 55-⑧)

주거지의 서벽에서 출토된 갈봉으로 자연석의 전면을 갈아 사용하였으나 현재 일부분만이 남아 있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6.7cm 폭 4.6cm 두께 2.8cm이다.

○石刀 (그림 19-⑨, 사진 55-⑨)

주거지의 북벽에서 출토된 석도로 양쪽에서 갈아 날을 세웠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운모 편암이며, 크기는 길이 7cm 폭 3.3cm 두께 1.2cm이다.

(2) 2호 住居址 (그림 20, 사진 2-②~4-① · 15-②~19)

① 遺構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1.4m 떨어진 E1 트렌치의 탐색조사갱에서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한 결과 2호 주거지가 노출되었다. 2호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은 북쪽이 현지표하 10~15㎝ 깊이에서 노출된 반면 남쪽벽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삭평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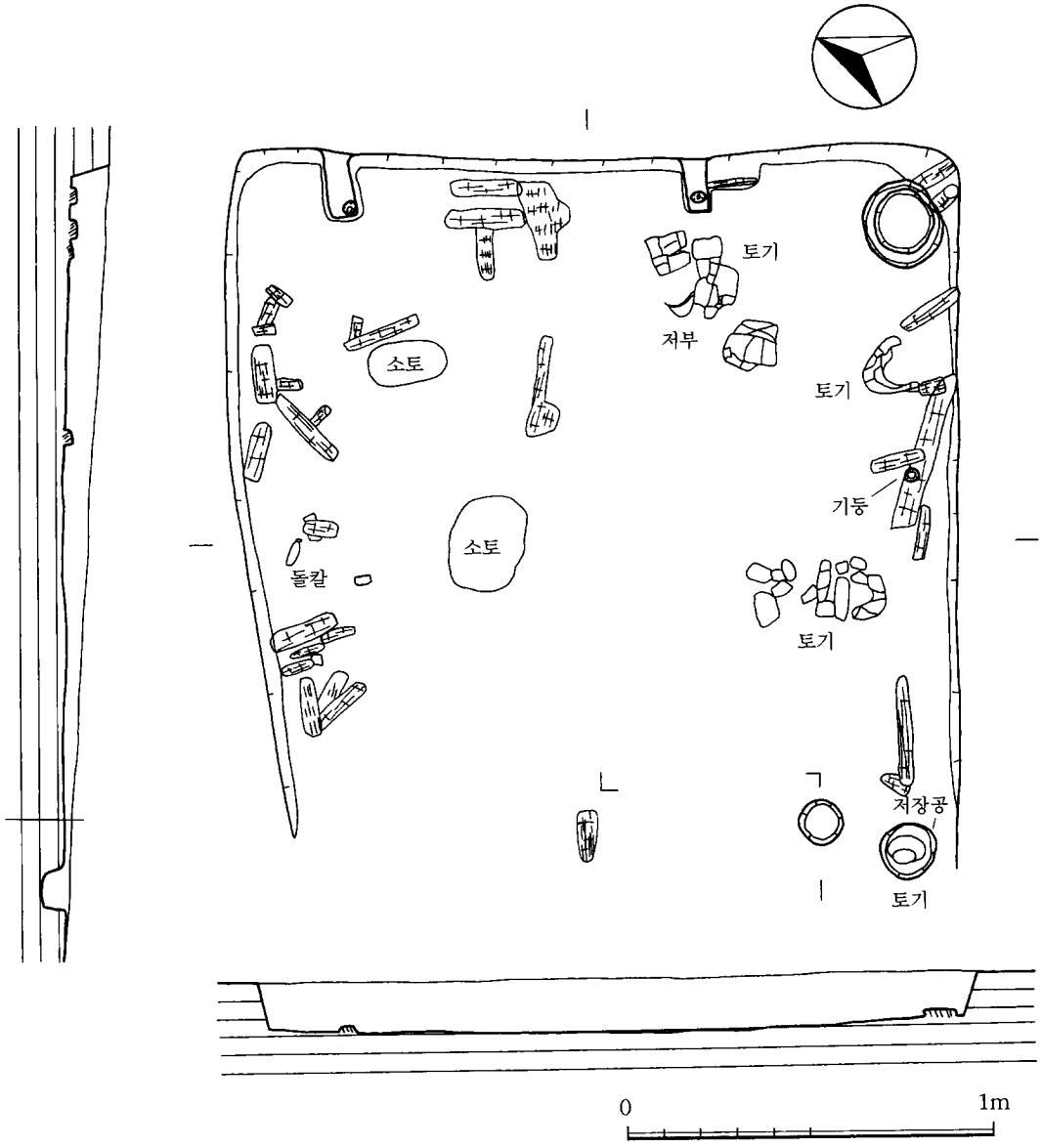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와 같은 동 서(북 서 50°) 방향으로 남 · 북 4m, 동 · 서 4.1m, 수혈깊이 30㎝의 방형 주거지로 전체면적은 16㎡(약 5평)이다. 2호 주거지 역시 1호 주거지와 같이 동남편의 한쪽벽이 모두 결실되었다.

주거지 바닥은 진흙을 얇게 깔았고,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지름 45㎝정도 크기의 불에 구운 단단한 소토가 노출되었고, 동쪽으로 70㎝정도 떨어져 길이 40㎝, 폭 25㎝크기의 단단한 소토가 노출되어 무시설식의 화덕자리가 아닌가 추정된다.

벽에는 판자를 댄 흔적이 남아 있고, 동벽 어깨선에서 안쪽으로 약 10cm떨어져서 지름 8㎝정도의 숯기둥이 수직으로 남아 있다. 벽 안쪽으로는 탄화목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으나 벽에서 안쪽으로 넘어진 것이 더 많다.

저장공은 2개소가 확인되었는데 동벽 모서리에서는 이중으로 파여져 있는데 외부는 직경 40cm, 깊이 10cm, 내부는 직경 30cm, 깊이 16cm이다. 동남벽 모서리의 저장공은 직경 30cm, 깊이 8cm이다.

출토유물로는 남쪽벽 가까이에서 모두 3점의 심발형토기가 출토되었으나 2점의 토기는 형체만 알 수 있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나머지 1점은 바닥 중앙에 깔려 있다. 동남벽 모서리 저장공 안에서 발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고 북벽밑에서 반월형석도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20〉 교동 2호 주거지 실측도

② 遺物

○ 深鉢形土器 (그림 21-①, 사진 56-①)

주거지의 중앙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한 완형의 심발형 토기이다. 몸통은 밑동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져 올라오며, 구연부는 곧게 섰다. 몸통의 최대 폭은 중상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

려가면서 좁아져 바다과 연결된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에 비해 작은 편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은 고른 편으로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이다.

크기는 높이 32cm 입지름 25.4cm 밑지름 7.4cm 이다.

○無文土器 鉢 (그림 21-②, 사진 56-②)

주거지의 동남벽 모서리 저장공 안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몸통은 구연부에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에서 축약되어 바닥과 연결되며 전체적으로 몸통이 둥근 형태이다. 토기의 기면은 물손질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암갈색을 띠나 부분적으로 흑반된 곳이 있다.

크기는 높이 9.2cm 입지름 17.6cm 밑지름 7.6cm 이다.

○半月形石刀 (그림 22-①, 사진 56-③)

주거지의 북벽 밑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이다. 형태는 장주형이며 좌측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날은 외쪽날로 무딘 편이며 중앙에는 약 1.5cm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고 석질은 흑운모 편암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15cm 폭 5.2cm 두께 0.7cm이다.

○砥石 (그림 22-②, 사진 56-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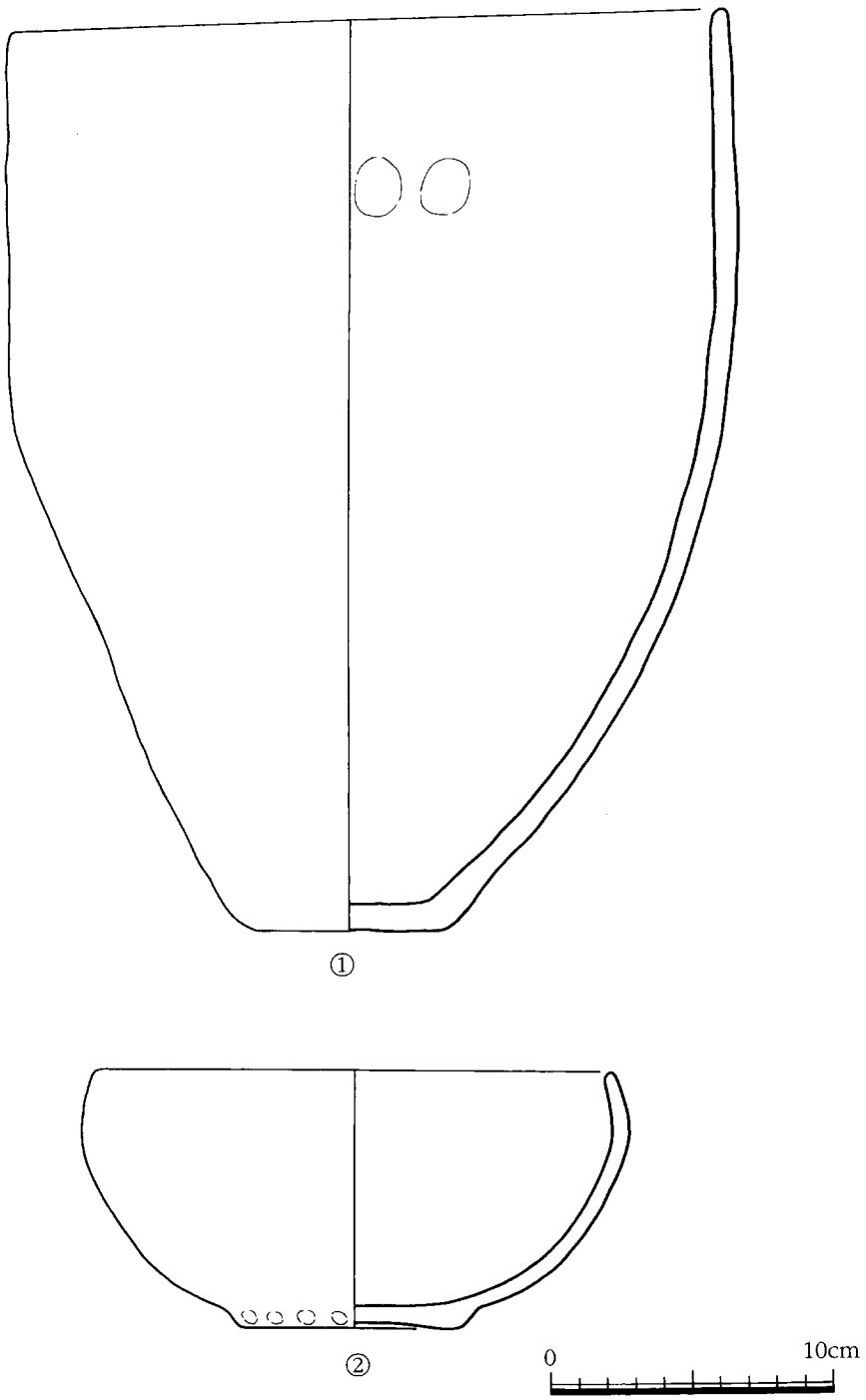
주거지의 서벽 중앙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직사각형으로 한면이 갈려 있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11.6cm 폭 5.6cm 두께 3.2cm이다.

○砥石 (그림 22-③, 사진 56-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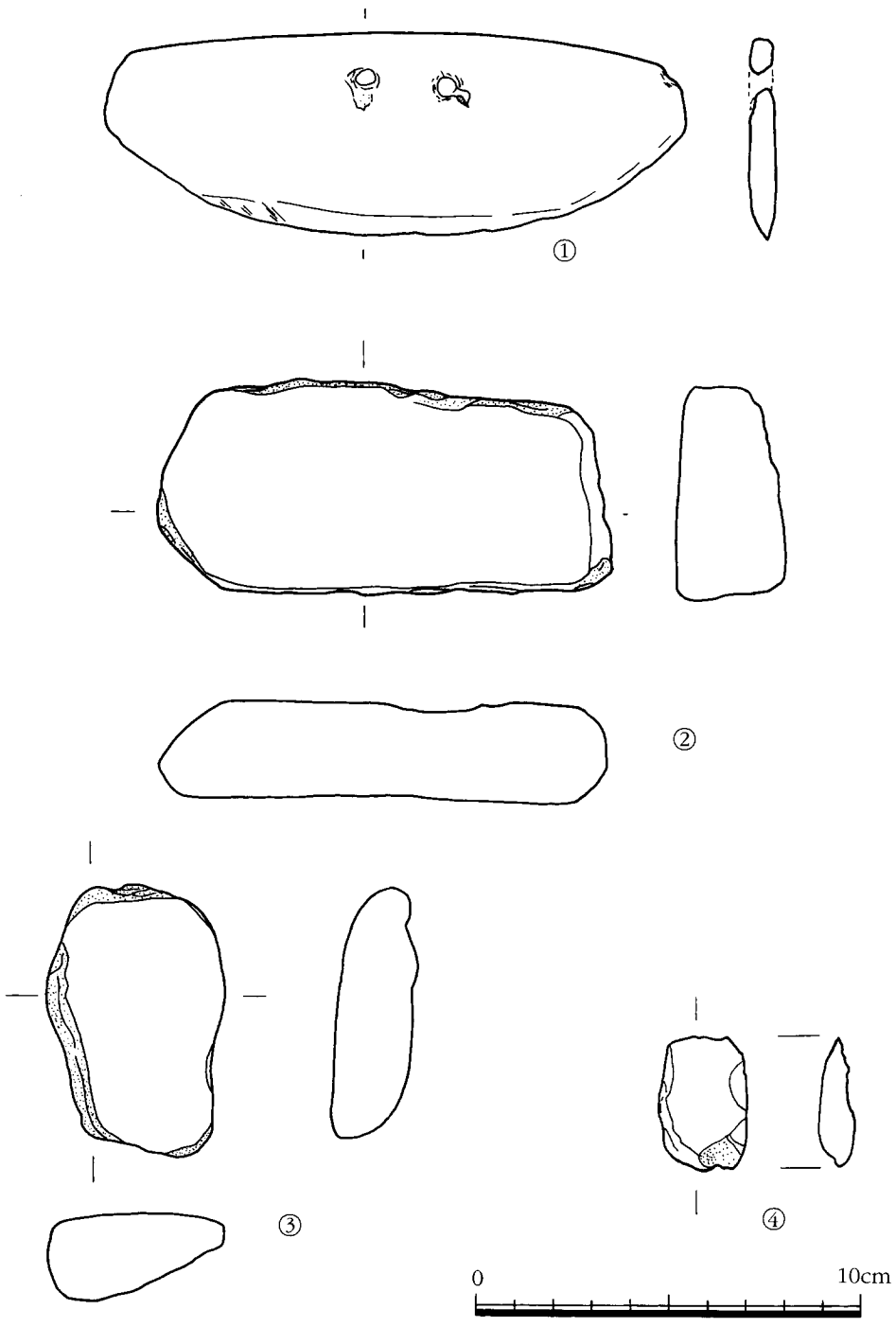
주거지의 서벽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직사각형으로 한면이 갈려 있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7cm 폭 4.5cm 두께 2cm이다.

○漁網錘 (그림 22-④, 사진 56-⑥)

주거지의 서벽에서 출토된 소형의 석제 어망추이다. 둥근 자갈의 양쪽면을 타격하여 그물코를 만들었다. 석질은 운모 편암이다. 크기는 길이 3.5cm 폭 2.3cm 두께 0.9cm 무게 10g이다.



〈그림 21〉 교동 2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22〉 교동 2호 주거지 출토유물

(3) 3호 住居址 (그림 23, 사진 20 ~ 27-①)

① 遺構

3호 주거지는 I11 트렌치의 탐색조사갱에서 현지표하 약 5~15cm 깊이에서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한 곳으로 남서 단벽은 현지표하 약 10~15cm 깊이에서 노출된 반면, 북서쪽 모서리부분은 경사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거의 지표상에서 곧 바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부분 삭평된 것으로 추정된다.

3호 주거지 역시 1, 2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구릉의 방향과 일치하게 주거지가 마련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남서-북동(북→동40°) 방향이고, 남서 · 북동 길이 6.8m, 동남 · 북서 폭 4.9m, 수혈의 깊이는 남서 단벽이 60cm, 북쪽 모서리 부분이 약 10cm 길이로 나오고 있다. 주거지의 전체 면적은 33㎡(약 10평)이다.

주거지의 어깨윤곽선 안에 30cm의 둑을 十字 모양으로 설치한 후 어깨선 안에 퇴적된 부식토를 차례로 제거한 결과 풍화된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들어가 마련한 바닥과 벽이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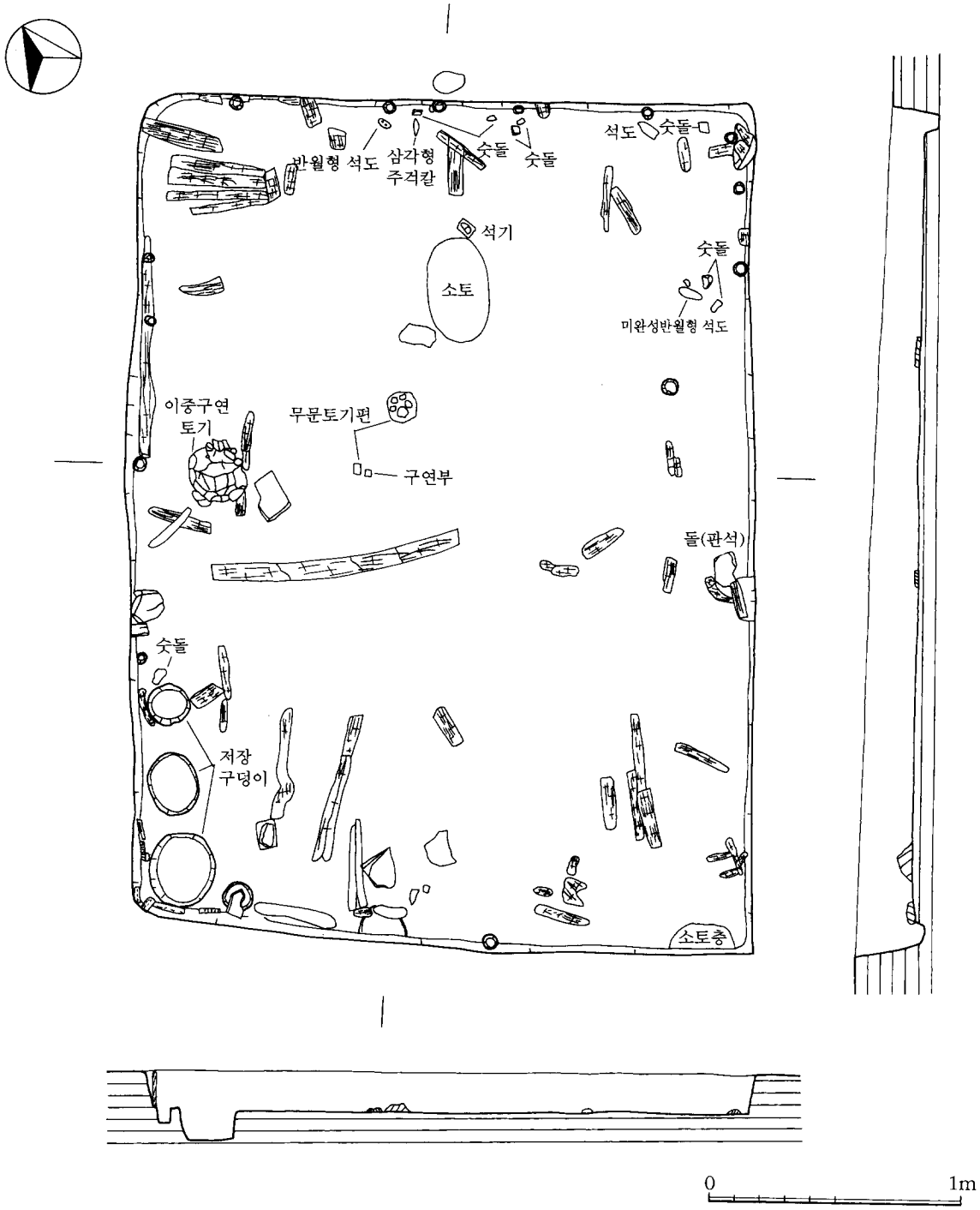
주거지의 바닥은 생토층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얇게 점토를 깔아 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바닥에서 보이는 소토는 화재로 인하여 바닥의 점토층이 소토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바닥 바로 위층은 약 17~25cm 두께로 숯과 소토가 섞여 있는 황갈색+흑갈색 진흙층이 퇴적되어 있고, 위층은 적갈색 진흙층이 비교적 평탄하게 퇴적되어 있다. 맨상층은 암갈색의 점토층이 덮여져 있었으나 어깨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주거지의 남서벽에 인접해서 기둥과 서까래로 추정되는 목탄이 서로 연결되어 넘어진 상태로 나왔고, 북서 장벽과 북편 모서리 부근에서 벽체의 판자로 보이는 목탄이 안으로 넘어진 상태로 나왔다. 기둥구멍은 북벽에서 5개, 동벽에서 5개, 남벽에서 3개, 서벽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북벽의 기둥간 거리는 160~180cm. 직경 10cm. 깊이 12~14cm이고, 동벽은 120~140cm 직경 8~10cm, 깊이 12~14cm이다. 남벽은 80~100cm, 직경 10cm 깊이 12~15cm이다.

저장공은 북서벽 모서리에서 인접하여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크기는 ①직경 60cm, 깊이 26cm, ② 직경 48cm, 깊이 20cm, ③ 직경 32cm 깊이 6cm이다.

주거지의 중앙 북서 장벽에 인접하여 심발형의 이중구연토기 1점이 파손된 상태로 노출되었고 약간 안쪽으로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에서 나온 석기들은 대부분 북동편으로 치우쳐서 나왔고 비교적 많은 소형의 숫돌들이 주거지의 북벽 벽체에 인접하여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의 가장자리와 안쪽에서도 판석의 할



〈그림 23〉 교동 3호 주거지 실측도

석들이 노출되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남서 단벽에 인접하여 숫돌 1점과 무경식 화살촉 1점이 출토되었고, 북동 단벽에 인접하여 반월형석도편 1점과 석도 1점이 출토되었다.

② 遺物

○ 二重口緣土器 (그림 24, 사진 57-①)

주거지의 북서벽에 붙어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이중구연토기로 구연부는 몸통에서부터 완만하게 좁혀지다가 구연의 접합부분에서부터 약간 오므라들다가 직립하였다. 구연의 접합부에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붙여 이중구연을 만들었다. 몸통의 최대 폭은 중하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바닥과 연결된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에 비해 작은 편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은 고른 편으로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이다.

크기는 높이 32cm 입지름 26cm 밑지름 7.4cm이다.

○ 半月形石刀 (그림 25-②, 사진 57-②)

주거지의 북동 단벽에서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형태는 만배만인의 魚形으로 여겨지며 날은 외쪽날로 무딘 편이며 중앙에는 약 1.5cm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고 석질은 산성 암맥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9.5cm 폭 4.2cm 두께 0.7cm이다.

○ 石刀 (그림 25-③, 사진 5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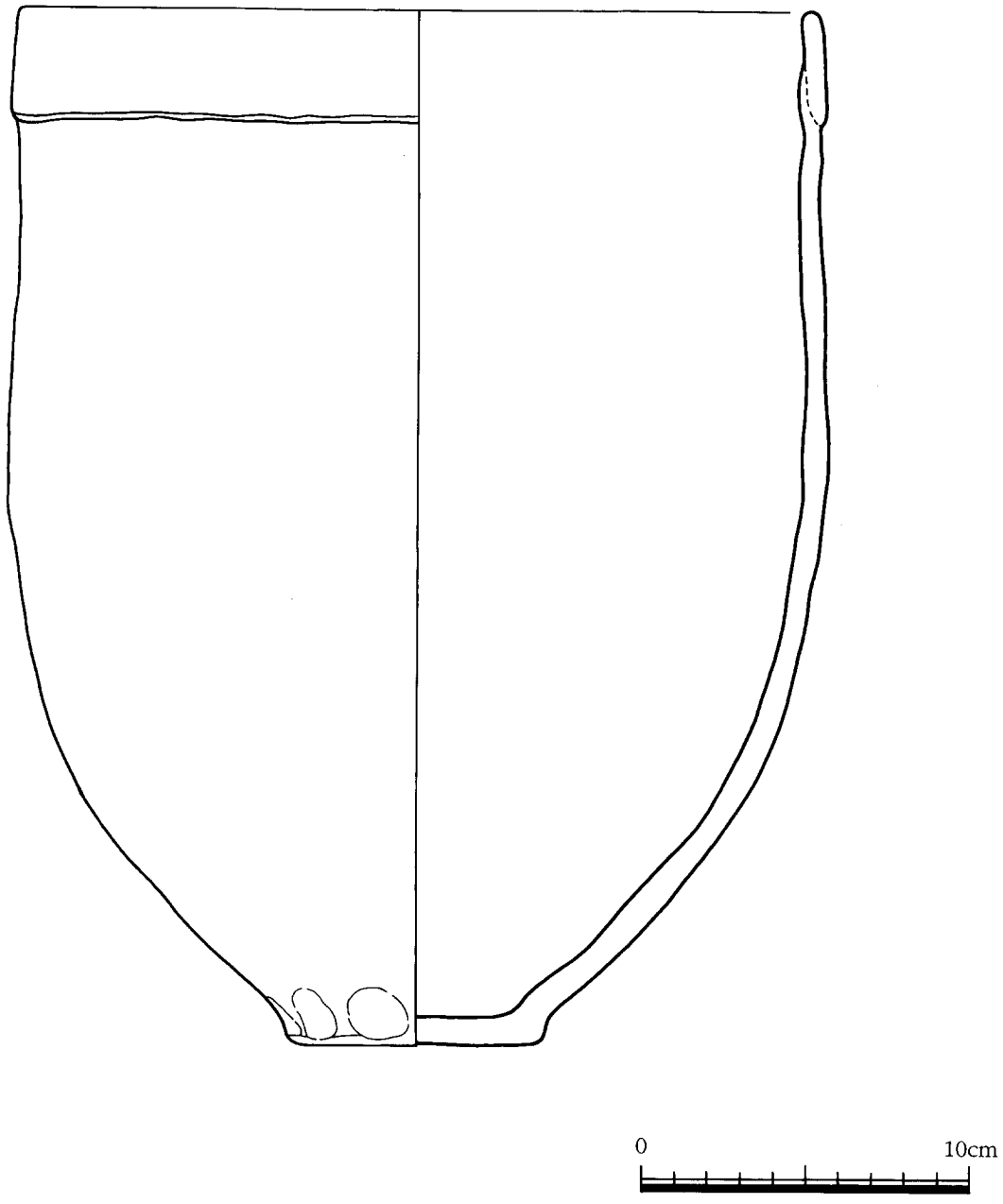
주거지의 북동 단벽에서 위의 반월형석도와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단면 삼각형으로 석도의 한면만을 마연하여 날을 세웠으나 날은 거친 편이다. 석질은 산성 암맥이다.

크기는 길이 9.7cm 폭 6.2cm 두께 1.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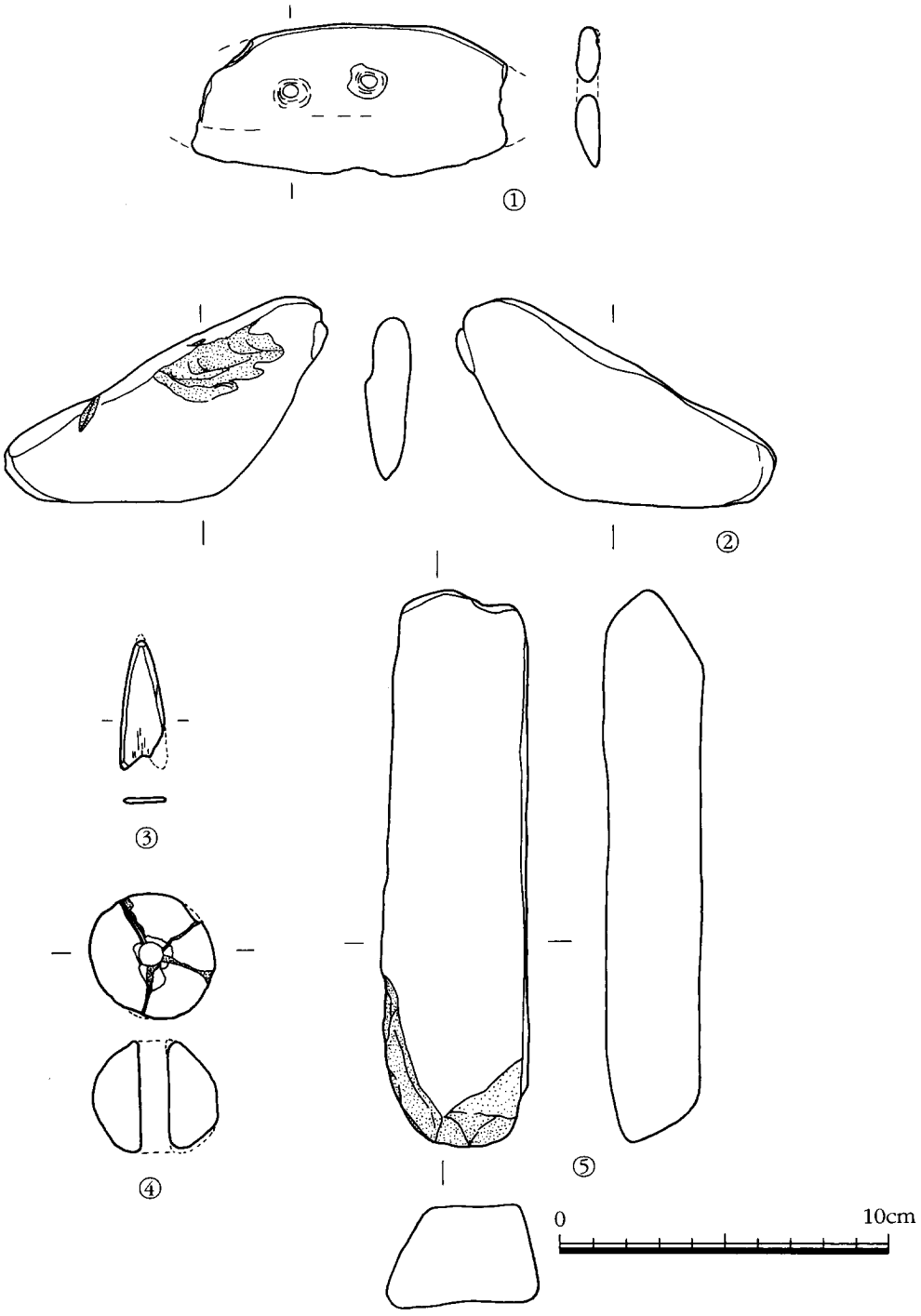
○ 無莖式石鏃 片 (그림 25-④, 사진 57-④)

주거지의 동북편에서 슴베와 촉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무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직사각형으로 예리하게 갈려있다.. 석질은 녹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3.9cm 폭 1.3cm 두께 0.2cm이다.



〈그림 24〉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25〉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漁網錘 (그림 25-⑤, 사진 57-⑤)

주거지의 중앙지점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토제 어망추로 령태는 산주형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지름 3.6cm 구멍지름 1cm 두께 1.4cm 무게 34g이다.

○砥石

주거지에서 17점의 지석이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많은 소형의 지석들이 주거지의 북동벽 벽체에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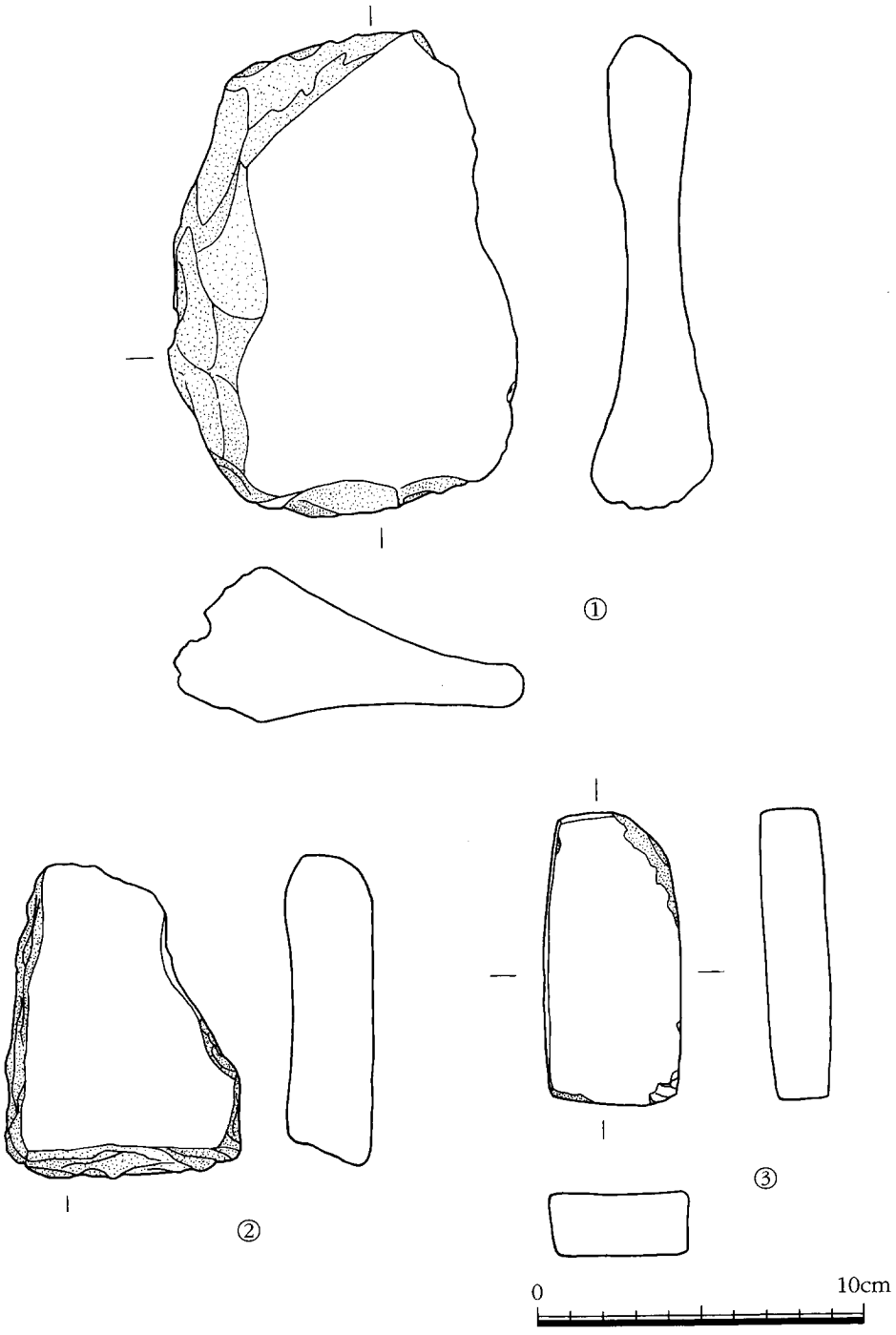
3호주거지 출토 지석 집계표

단위 :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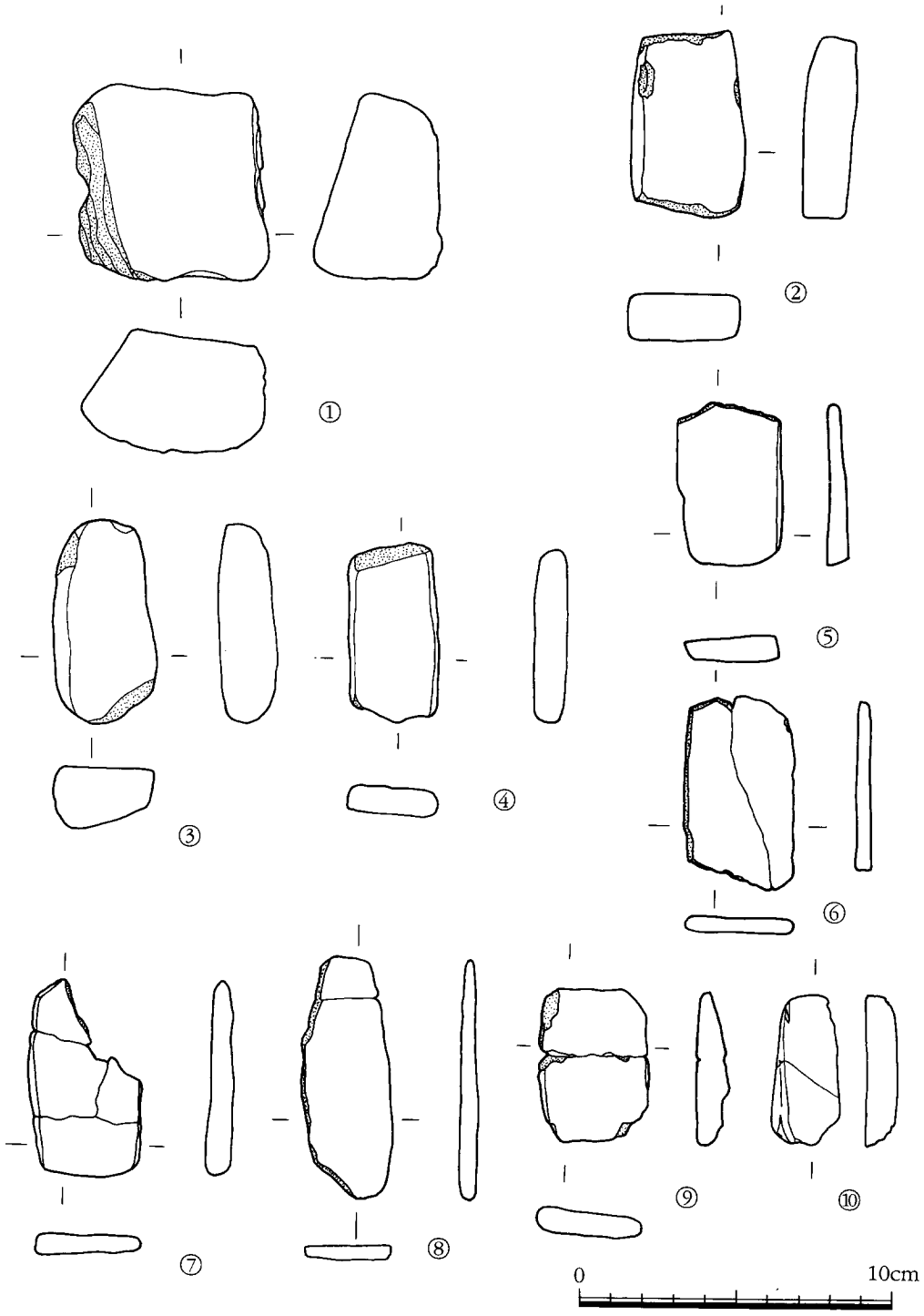
연번	출토위치	단면형태	석질	길이	폭	두께	그림	사진
1	북동벽	직사각형	산성암맥	16.7	4.4	2.8	25-⑤	57-⑥
2	서벽	직사각형	흑운모화강암	14.8	10.4	4.7	26-①	57-⑦
3	북벽	직사각형	산성암맥	9.5	7.2	2.6	26-②	57-⑧
4	남벽	직사각형	규장질암맥	8.9	4.2	1.9	26-③	58-①
5	북동벽	직사각형	반화강암	6.2	5.9	3.9	27-①	58-②
6	북동벽	직사각형	규장질암맥	5.9	3.6	1.6	27-②	58-③
7	북동벽	직사각형	산성 암맥	6.4	3.2	1.9	27-③	58-④
8	북동벽	직사각형	산성 암맥	5.6	2.8	1	27-④	58-⑤
9	북동벽	직사각형	산성 암맥	5.3	3.3	0.7	27-⑤	58-⑥
10	북동벽	직사각형	산성 암맥	6.1	3.5	0.5	27-⑥	58-⑦
11	북동벽	직사각형	산성 암맥	6.3	3.6	0.8	27-⑦	58-⑧
12	북동벽	직사각형	운모 편암	7.6	2.3	0.5	27-⑧	59-①
13	북동벽	타원형	산성 암맥	5	3.5	1.1	27-⑨	59-②
14	북동벽	편마름모형	산성 암맥	4.6	2.3	0.9	27-⑩	59-③
15	북동벽	직사각형	반화강암	8.3	7	2.8	28-①	59-④
16	남벽	편마름모형	반화강암	8	6.1	4.6	28-②	59-⑤
17	북동벽	직사각형	규장질암맥	8.9	6	2.7	28-③	59-⑥

○미완성석기 (그림 28-④, 사진 59-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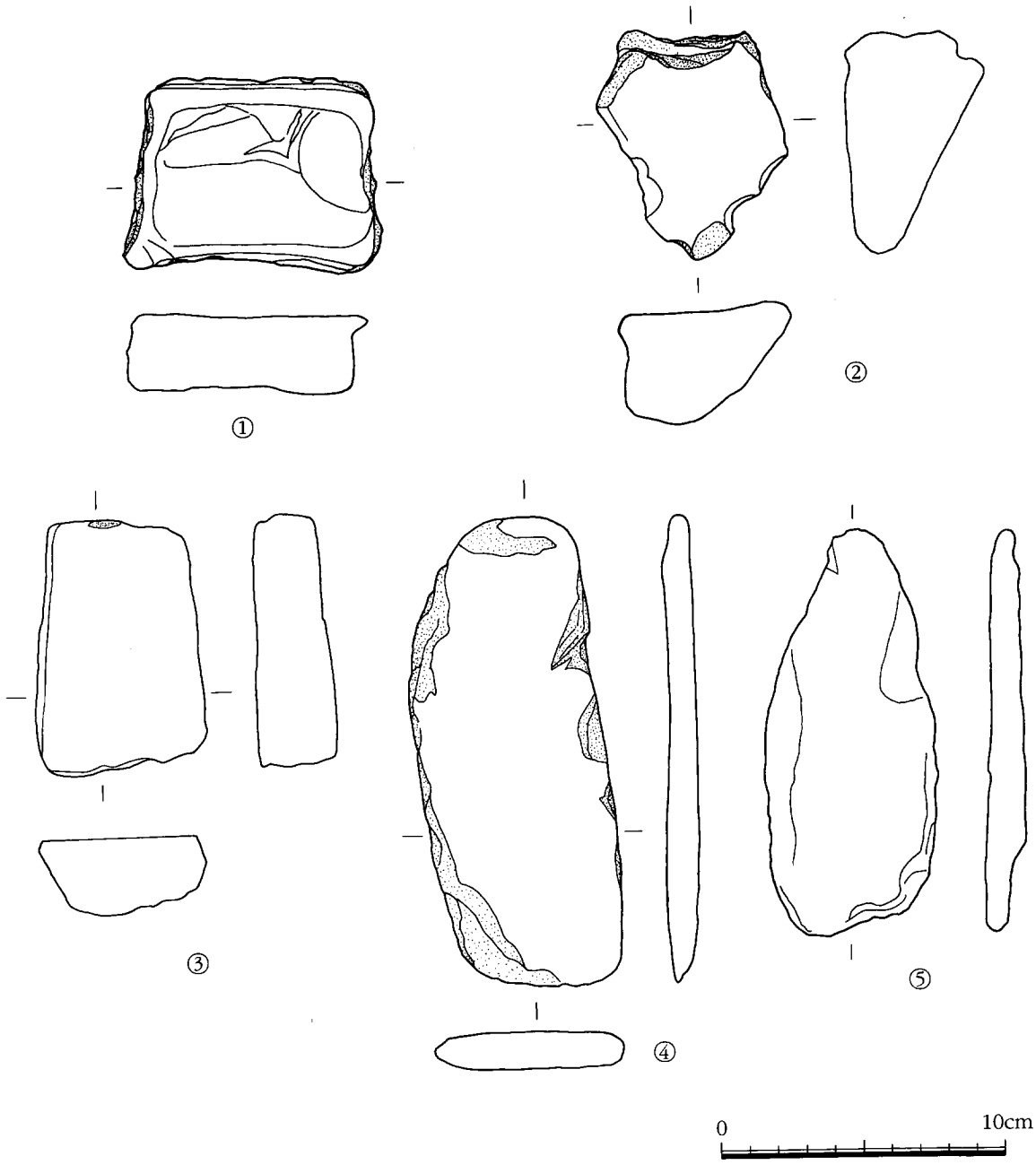
점판암계의 미완성 석기이다. 형태로 보아 반월형석도를 제작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진다. 양면은 마연되였다. 길이 16.4cm 폭 6.7cm 두께 1.1cm이다.



〈그림 26〉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27〉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28〉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ㅇ미완성석기 (그림 28-⑤, 사진 59-⑧)

점판암계의 미완성 석기이다. 자연석으로 마연은 하지 않았다.

길이 14.2cm 폭 6.1cm 두께 1.4cm이다.

(4) 4호 住居址 (그림 29, 사진 20-① · 27-②~31)

① 遺構

4호 주거지는 3호 주거지에서 북편으로 약 4m 떨어진 J11트렌치 탐색조사갱에서 주거지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한 곳으로 3호 주거지와 같은 구릉의 방향과 일치하게 마련하였다. 주거지의 어깨 윤곽선은 현지표하 5~10㎝ 깊이에서 노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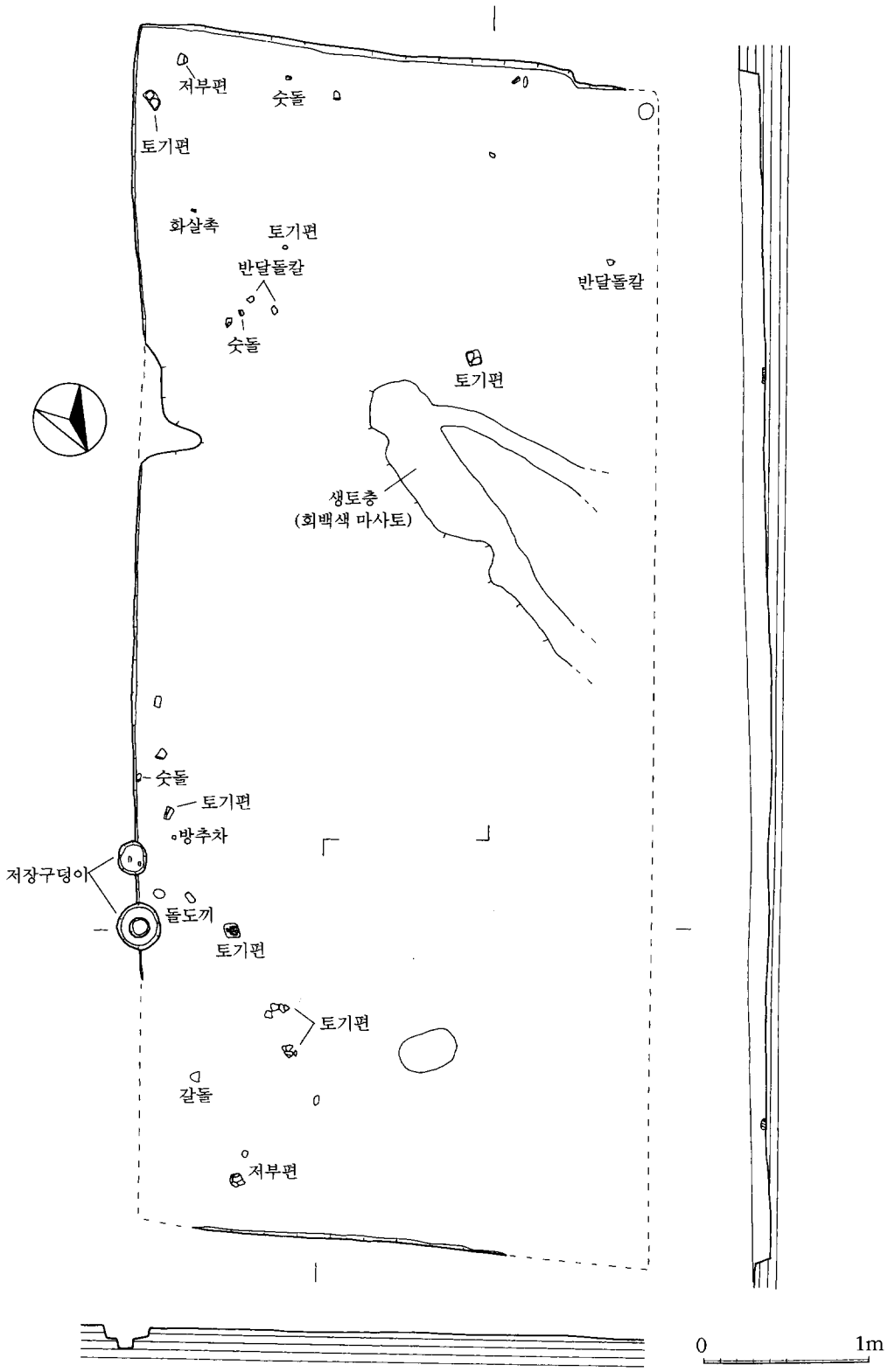
4호주거지의 상면은 지금부터 약 15년전에 구릉의 북동편 말단부에 보이는 주택 신축과정에서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기 위하여 중장비로 평탄작업을 한 관계로 동남장벽이 결실되었고, 맞은편 북서장벽 역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실되었다.

4호 주거지 역시 3호 주거지와 같은 남서 북동(북 동 40°) 방향으로 남서 · 북동 길이 14.5m, 북서 · 남동 폭 6.2m로 추정되며 수혈깊이는 제일 깊은 곳이 약 28㎝정도이다. 주거지의 전체면적은 89㎡(27평)정도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갈색의 진흙을 평탄하게 깐 것으로 보이며 바닥 중앙 북쪽벽에서 안쪽으로 가운데 부분까지 단단한 암질이 보이는데 이 암질을 경계로 위쪽 바닥이 아래쪽보다 10㎝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바닥은 전체적으로 평탄하지 않다. 주거지 바닥 바로 위층은 약 10~15cm 두께로 명갈색 진흙층이 퇴적되어 있고, 위층은 암갈색 진흙층이 비교적 평탄하게 퇴적되어 있어 어깨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저장공은 서벽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2개소가 확인되었는데 2개소 중 남쪽의 저장공은 이중으로 확인되었는데 외부는 직경 56cm 깊이 10cm 내부는 직경 22cm, 깊이 18cm이고, 또 다른 저장공은 직경 42cm 깊이 18cm로 내부에서는 소형 숫돌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거의 대부분 바닥에서 3~15㎝정도 떠서 출토되고 있으며, 화살촉 1점, 석부 1점, 반월형석도 조각 3점, 숫돌, 방추차와 약간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그림 29〉 교동 4호 주거지 실측도

② 遺物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0-①, 사진 60-①)

주거지의 동북 모서리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바닥의 저면에는 나뭇잎 자국이 찍혀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으나 표면이 박리되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7cm 밑지름 9.2cm 바닥두께 1.5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0-②, 사진 60-②)

주거지의 동벽 중앙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약 $\frac{1}{3}$ 가량이 결실되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밋밋하게 연결된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매끄러운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4cm 밑지름 5.3cm 바닥두께 0.9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0-③, 사진 60-③)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매끄러운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2cm 추정밑지름 8cm 바닥두께 0.7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0-④, 사진 60-④)

주거지의 동벽 중앙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은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였으나 매끄럽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5cm 추정밑지름 9.6cm 바닥두께 0.6cm이다.

○半月形石刀 片 (그림 30-⑤, 사진 60-⑤)

주거지의 남서벽 모서리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이다. 형태는 魚形으로 절반가량이 결실되었다. 날은 외쪽날로 무딘 편이며 중앙에는 약 1.5cm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고 석질은 천매암질암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11.1cm 폭 6.9cm 두께 0.9cm이다.

○半月形石刀 片 (그림 30-⑥, 사진 60-⑥)

주거지의 남벽 모서리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이다. 형태는 舟形으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날은 외쪽날로 무딘 편이며 중앙에는 약 1.7cm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으나 한 곳은 구멍을 뚫다가 말았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6.9cm 폭 6.3cm 두께 0.7cm이다.

○半月形石刀 片 (그림 30-⑦, 사진 60-⑦)

주거지의 남벽 모서리에서 위의 반월형석도와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약 절반 가량이 남아 있으며 형태는 舟形으로 여겨지는데 날은 외쪽날로 잘 마연되었고, 측면부분도 날을 세운 상태이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으로 크기는 현존길이 6.9cm 폭 5cm 두께 0.6cm이다.

○有莖式石鏃 片 (그림 30-⑧, 사진 60-⑧)

주거지의 남벽 모서리에서 촉신과 슴베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유경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있고, 석질은 녹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4.4cm 폭 1.8cm 두께 0.8cm이다.

○有莖式石鏃 片 (그림 30-⑨, 사진 60-⑨)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촉신과 슴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일단경식 화살촉으로 촉의 단면은 편마름모꼴로 예리하게 갈려있고, 슴베는 단면 직사각형이다. 석질은 담녹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6.1cm 폭 2.5cm 두께 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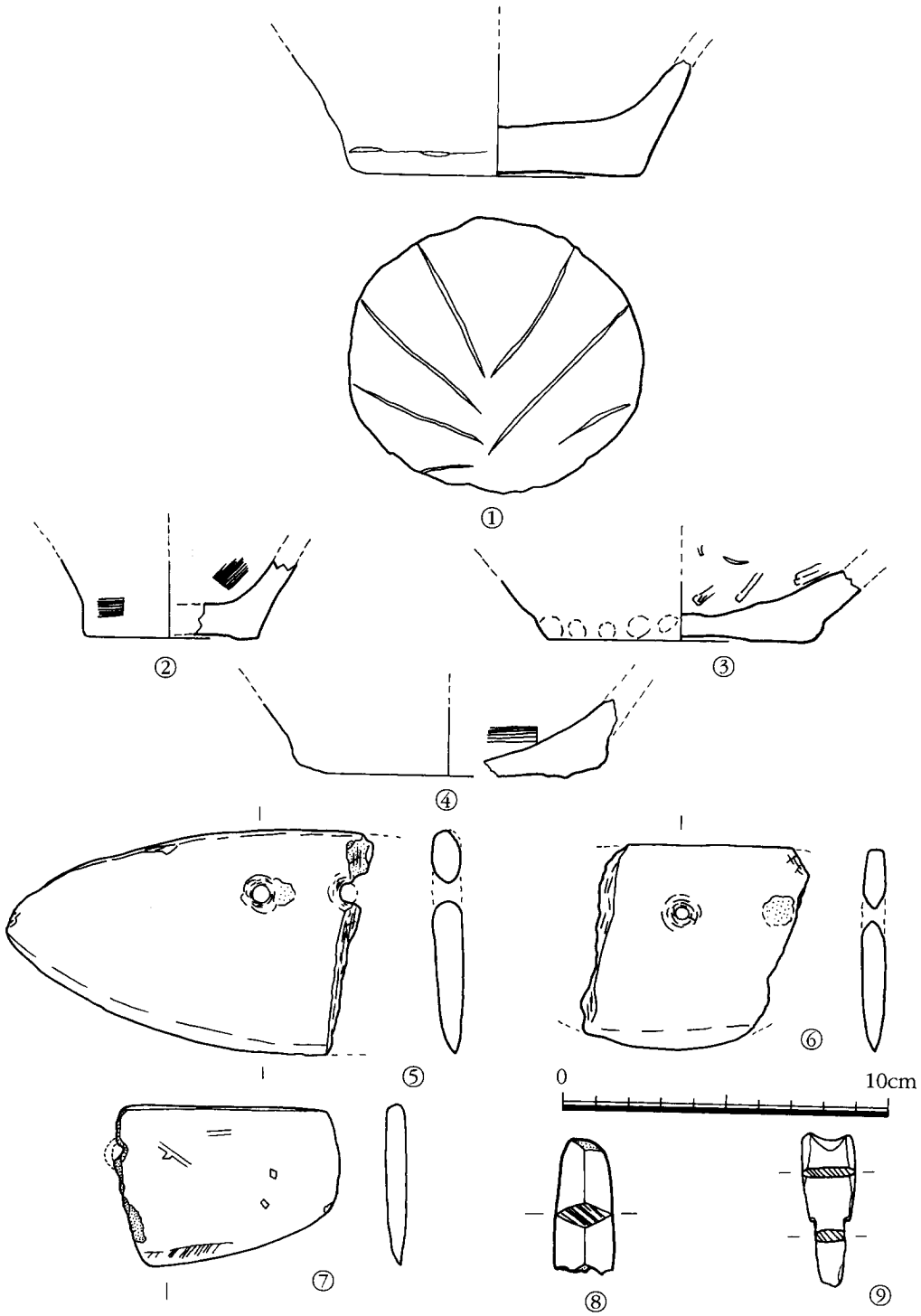
○石斧 (그림 31-①, 사진 61-①)

주거지의 동벽 저장공 옆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은 타원형으로 볼록한 편이며, 양쪽에서 갈아 날을 세운 조갯날이나 날이 거친 편이다. 날의 일부분은 결실되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이다. 크기는 길이 16.3cm 폭 6.8cm 두께 4.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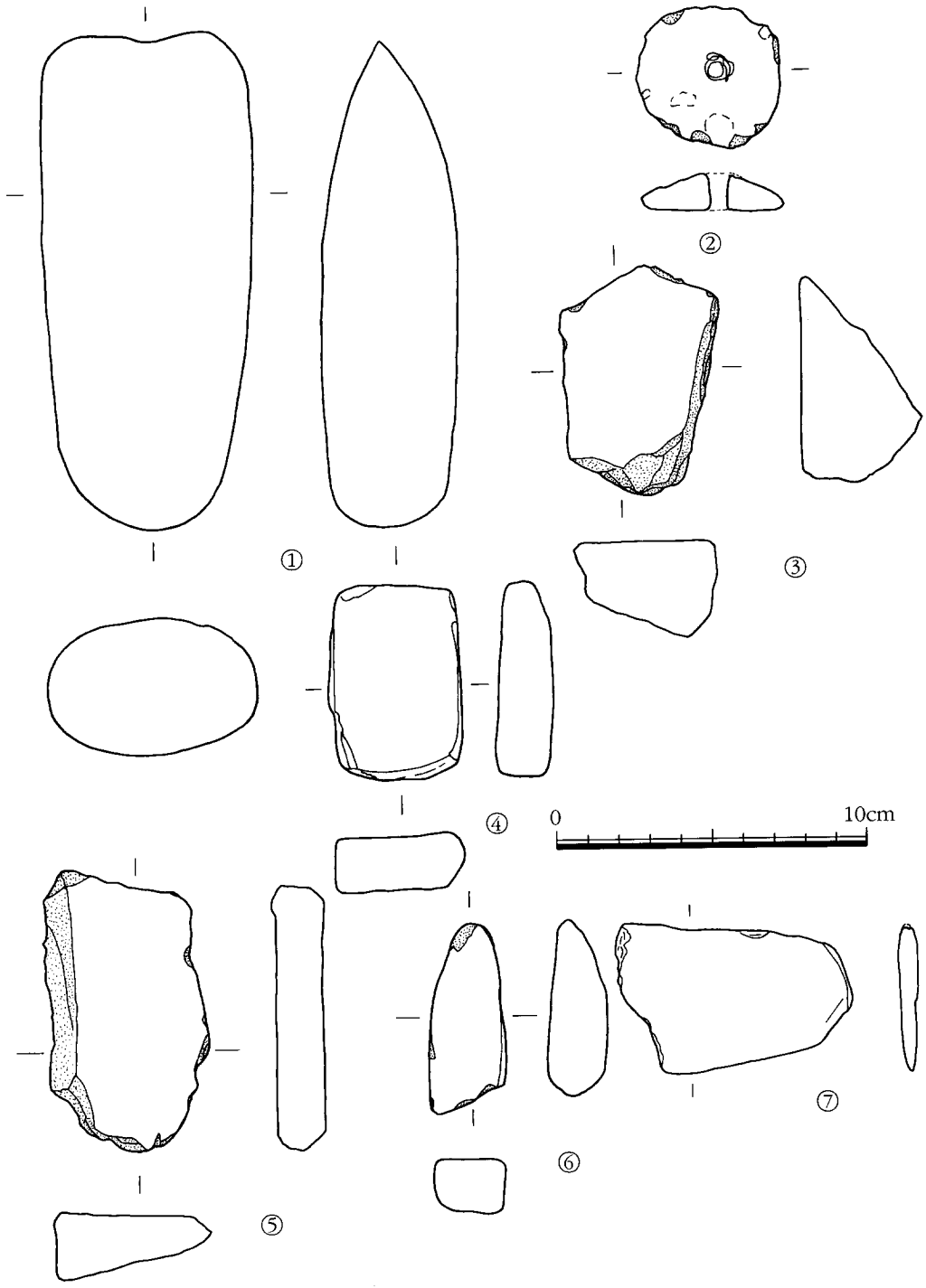
○紡錘車 (그림 31-②, 사진 61-②)

주거지의 동벽 저장공 옆에서 출토되었다. 산주형의 토제 가락바퀴로 측면이 결실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0.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전체적으로 소성이 고르지 못한 편이며

크기는 지름 4.6cm 구멍지름 0.5cm 두께 1.2cm이다.



〈그림 30〉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31〉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砥石 (그림 31-③, 사진 61-③)

주거지의 동남벽 모서리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사각형으로 한면이 갈려 있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으로 크기는 길이 7.2cm 폭 5cm 두께 4.5cm이다.

○砥石 (그림 31-④, 사진 61-④)

주거지의 동벽 모서리에서 반월형석도와 인접하여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직사각형으로 전면이 갈려 있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6.2cm 폭 4.3cm 두께 1.8cm이다.

○砥石 (그림 31-⑤, 사진 61-⑤)

주거지의 동벽 중앙 저장공 옆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직사각형으로 한면이 갈려 있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반화강암으로 크기는 길이 8.6cm 폭 5.3cm 두께 1.6cm이다.

○砥石 (그림 31-⑥, 사진 61-⑥) 4-15

주거지의 남벽 중앙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사각형으로 전면이 고르게 갈려 있으나 무른 편이다. 석질은 규장질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6.1cm 폭 2.5cm 두께 2cm이다.

○石刀 片 (그림 31-⑦, 사진 61-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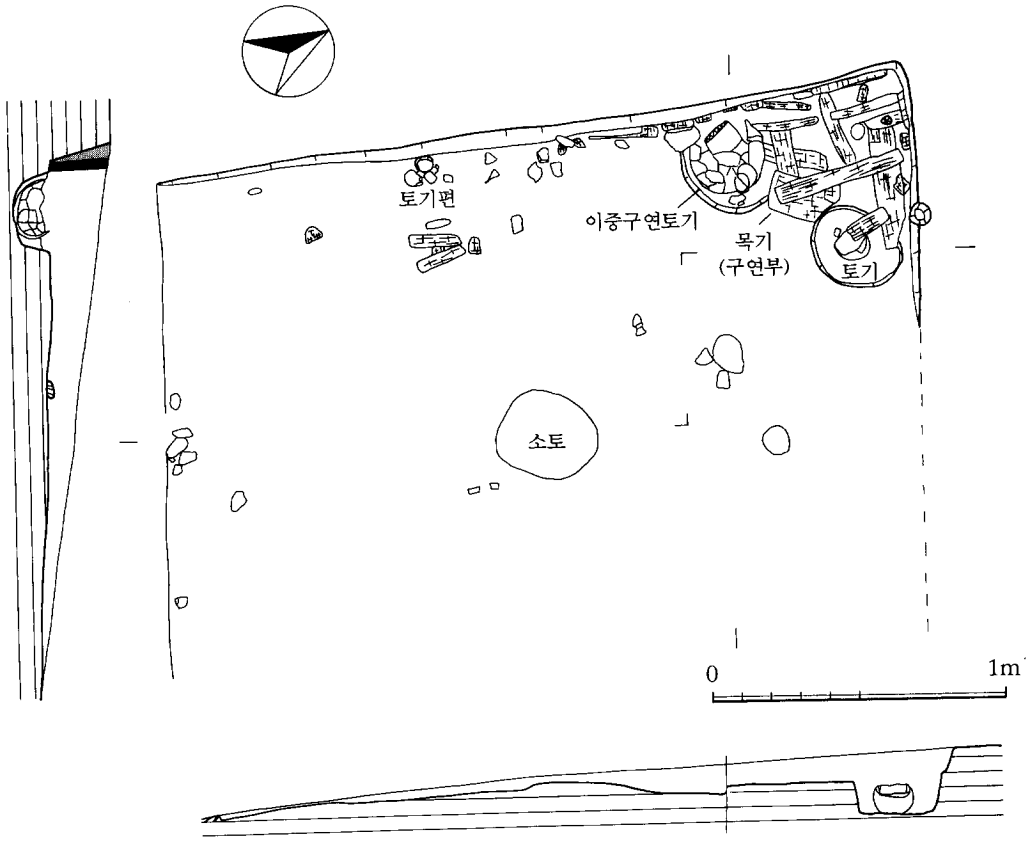
주거지의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석도의 한면만을 마연하여 날을 세웠으나 날은 거친 편이다. 석질은 천매암질암이다. 크기는 길이 7.5cm 폭 5.7cm 두께 0.7cm이다.

(5) 5호 住居址 (그림 32, 사진 32~36)

① 遺構

5호 주거지는 3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50m떨어진 F15트렌치의 탐색조사갱에서 주거지의 윤곽선이 현지표하 5~15㎝ 깊이에서 노출되었는데 북쪽과 동쪽벽 일부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결실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5호 주거지는 본 유적이 위치한 구릉의 말단부선상의 끝부분에 남-북(북 동 30°) 방향으로 위치하며 남쪽과 서쪽은 어깨윤곽선이 삭평되어 없어져서 주거지의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으나 유물의 출토상태로 보아 남북 4.8m, 폭 3.2m, 수혈깊이 35㎝정도가 남아 있고, 주거지의 현존 면적은 15㎡(약 4평)이다.



〈그림 32〉 교동 5호 주거지 실측도

바닥에는 고운 진흙을 얇게 깐 것으로 보이고, 바닥 중앙에는 67×58㎝정도 크기의 불에 구워진 단단한 소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화덕자리로 추정된다.

5호 주거지 벽체는 토광선에서 5~15㎝정도 떨어져 판자벽을 세웠고, 그 뒤로는 점토로 뒷채움을 한 것으로 보이고, 판자벽 뒤쪽에는 갈대가 판자벽과 붙어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판자벽 뒤쪽에 갈대를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쪽 모서리에서는 ① 지름 65㎝, 깊이 21㎝, ②지름 60㎝, 깊이 18㎝ 크기의 저장공이 발견되었는데 ① 저장공에서는 이중구연에 거치문이 시문된 심발형토기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② 저장공 속에는 항아리 위에 돌을 올려놓은 호형 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양 저장공 사이에서는 목기로 추정되는 구연부 몸통편이 확인되었으나 탄화된 관계로 수습이 불가능하여 주거지 북쪽 부분을 이전 복원 하였다.

출토유물은 주로 북동벽 가까이에서 주로 나왔는데 두형토기 대각편 1점, 지석 2점, 대패 1점, 작

업대 1점과 무문토기편이 약간 출토되었다.

② 遺物

○二重口緣土器 (그림 33, 사진 62-①)

주거지의 동북쪽 모서리 저장공 안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이중구연의 심발형토기로 구연부는 몸통에서부터 완만하게 좁혀지다가 직립하였다. 구연부 바로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거치문을 시문하였고, 구연의 접합부에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붙여 이중구연을 만들었다. 몸통의 최대 폭은 중앙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바닥과 연결된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외면은 마연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에 비해 작은 편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은 고른 편으로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이며 일부 흑반된 곳이 있다.

크기는 높이 41.3cm 입지름 31.4cm 밑지름 10.2cm이다.

○無文土器 (그림 34, 사진 6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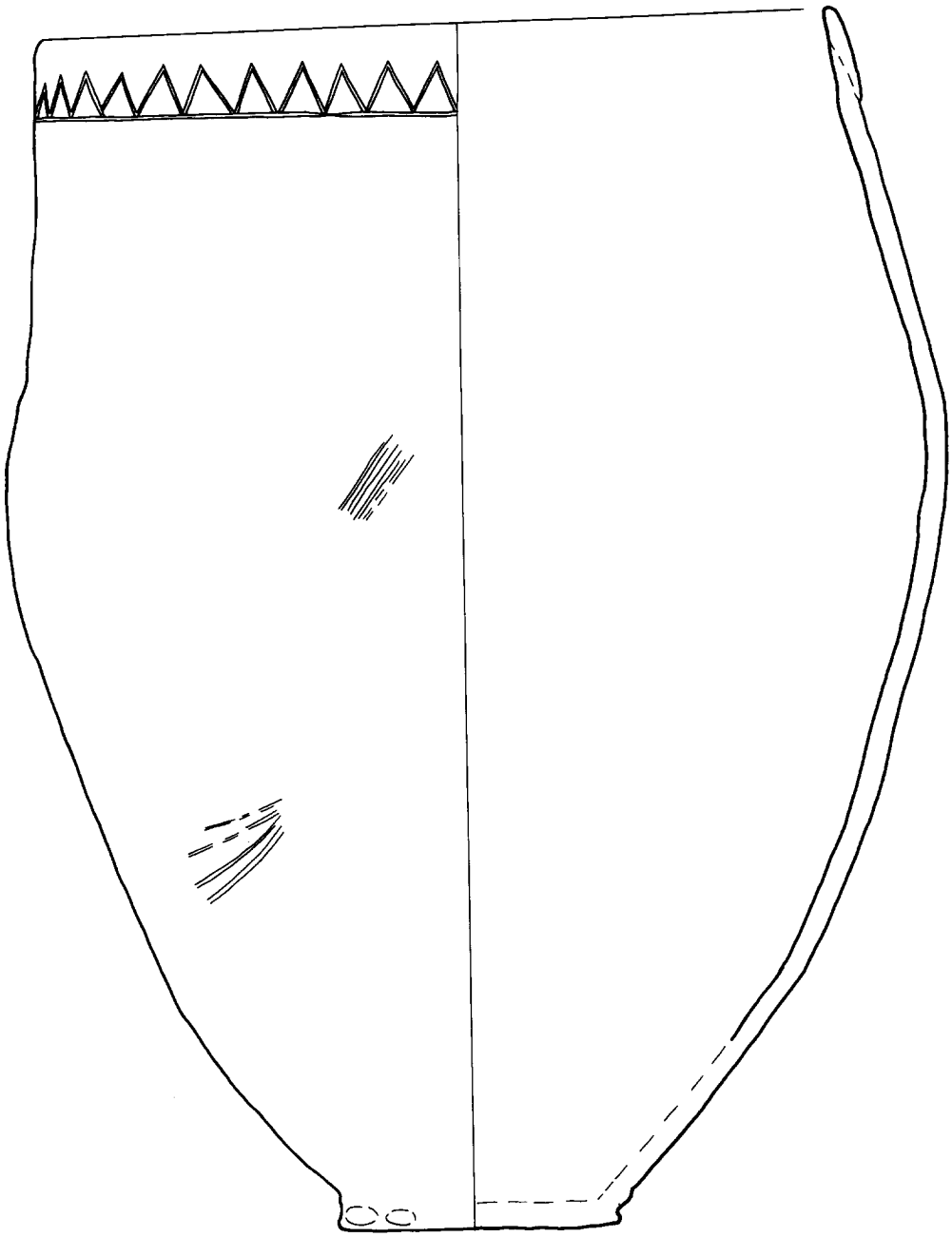
주거지의 동북벽 저장공 안에서 뚜껑돌이 덮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목이 긴 호형토기로 몸통은 상단부분부터 안으로 오므라들다가 목은 길게 직립하였다. 몸통은 둥근 편이으로, 몸통의 최대 폭은 중앙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바닥과 연결된다. 토기의 기면은 물손질하였으나 약간 거친 편이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은 고른 편으로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이며 일부 흑반된 곳이 있다. 크기는 높이 26cm 입지름 10cm 밑지름 7.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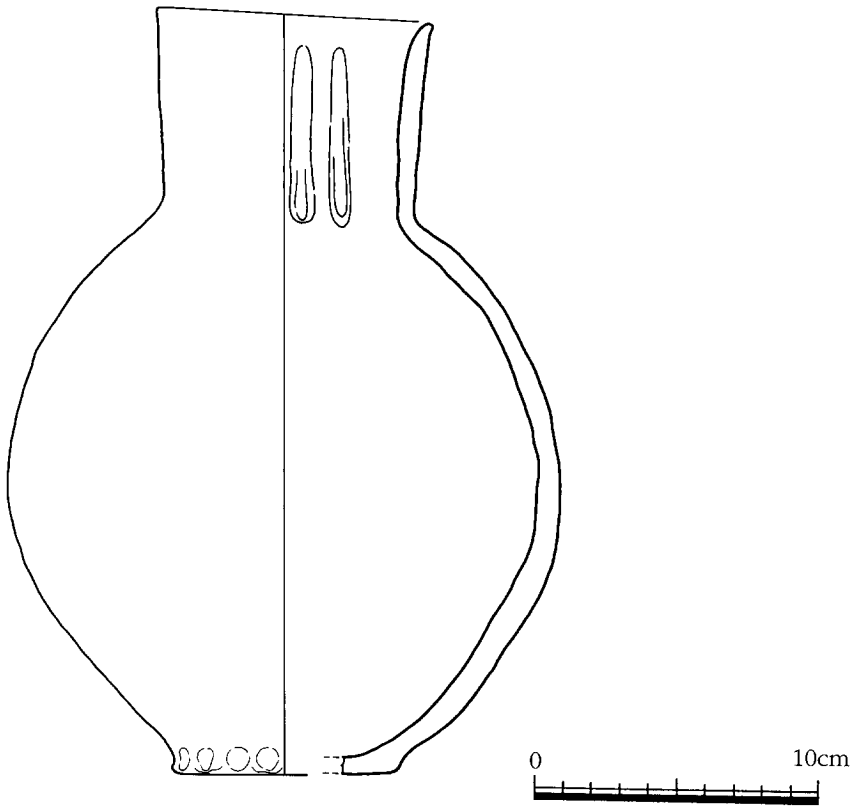
○無文土器 鉢(그림 35-①, 사진 62-③)

주거지의 동북벽 모서리 부분에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에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몸통은 자연스럽게 벌어져 올라오다가 몸통 상단에서 오므라들며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몸통의 최대 폭은 상단부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바닥과 연결된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외면은 마연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높이 10cm 입지름 18cm 밑지름 9cm이다.



〈그림 33〉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34〉 교동 5호 주거지 실측도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5-②, 사진 62-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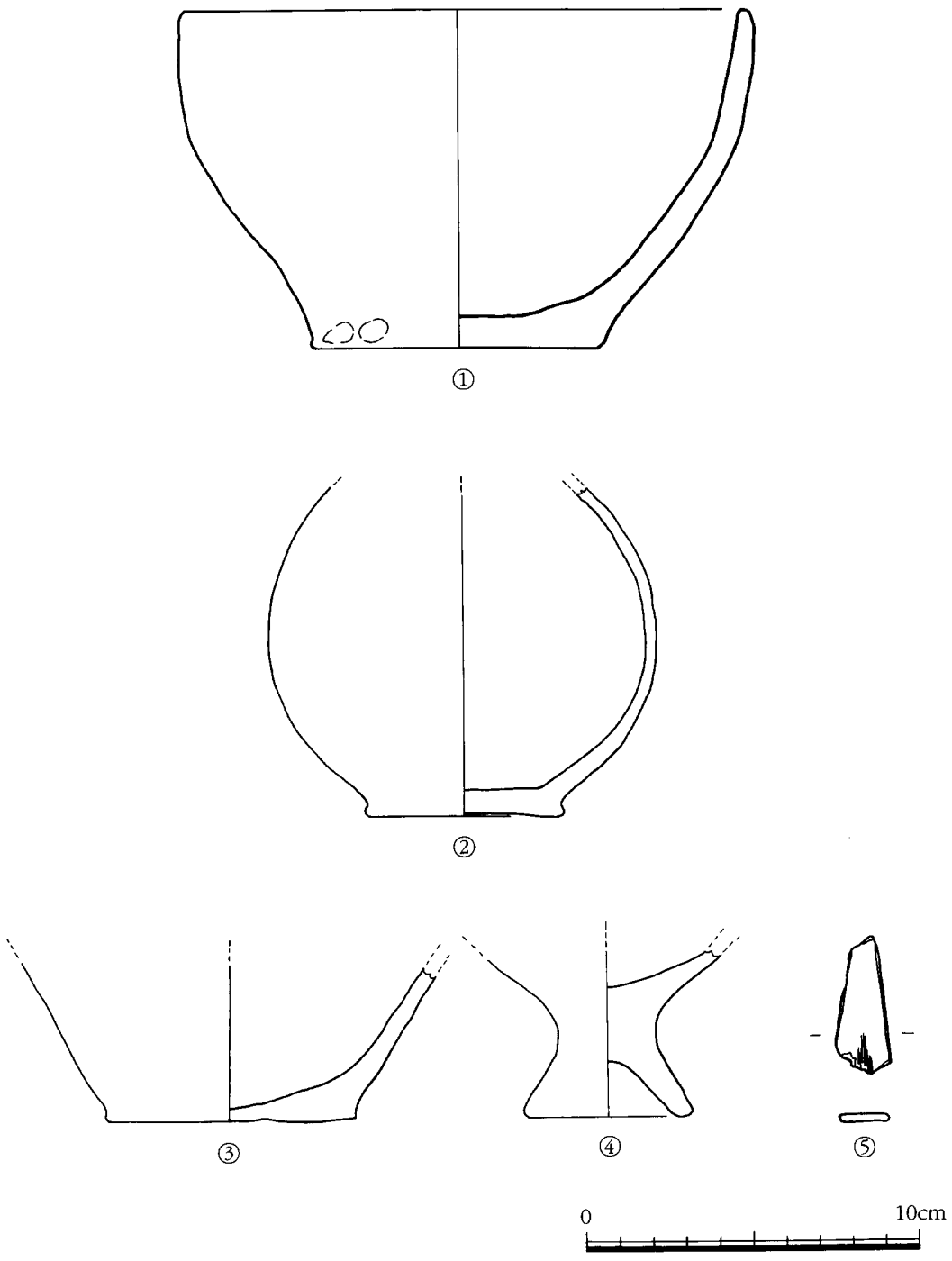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매끄러운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2cm 추정밑지름 8cm 바닥두께 0.7cm이다.

○無文土器 底部片 (그림 35-③, 사진 63-①)

주거지의 동남 모서리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하여 매끄러운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2cm 추정밑지름 8cm 바닥두께 0.7cm이다.



〈그림 35〉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赤色土器 臺脚片 (그림 35-④, 사진 63-②)

적색토기 대각편으로 굽은 몸통과의 연결면에서부터 완만하게 벌어지며 내려오다가 저부 상단에서 약간 더 벌어지면서 저부와 연결된다.. 저부의 끝부분은 윗쪽보다 약간 넓고, 들린 바닥을 만들었다. 들린 바닥 안쪽으로는 3cm 깊이로 파여 있다. 내 · 외면 모두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거친 편이며, 마연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붉은 점토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크기는 현존높이 4.7cm 굽지름 4cm 기벽두께는 0.4cm이다.

○石鏃 片 (그림 35-⑤, 사진 63-③)

주거지의 북동벽에서 슴베와 촉신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어 정확한 형태는알 수 없으나 무경식 화살촉으로 여겨진다. 석질은 녹회색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4.1cm 폭 1.5cm 두께 0.4cm이다.

○돌대패 (그림 36-①, 사진 63-④)

주거지에서 출토된 대패날로 양면이 곱게 갈려 있고, 인부는 양쪽에서 날을 세웠다. 석질은 운모편암이다. 크기는 길이 4.5cm 폭 3.4cm 두께 1cm이다.

○紡錘車 片 (그림 36-②, 사진 63-⑤)

석제 가락바퀴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다. 중앙에는 직경 0.7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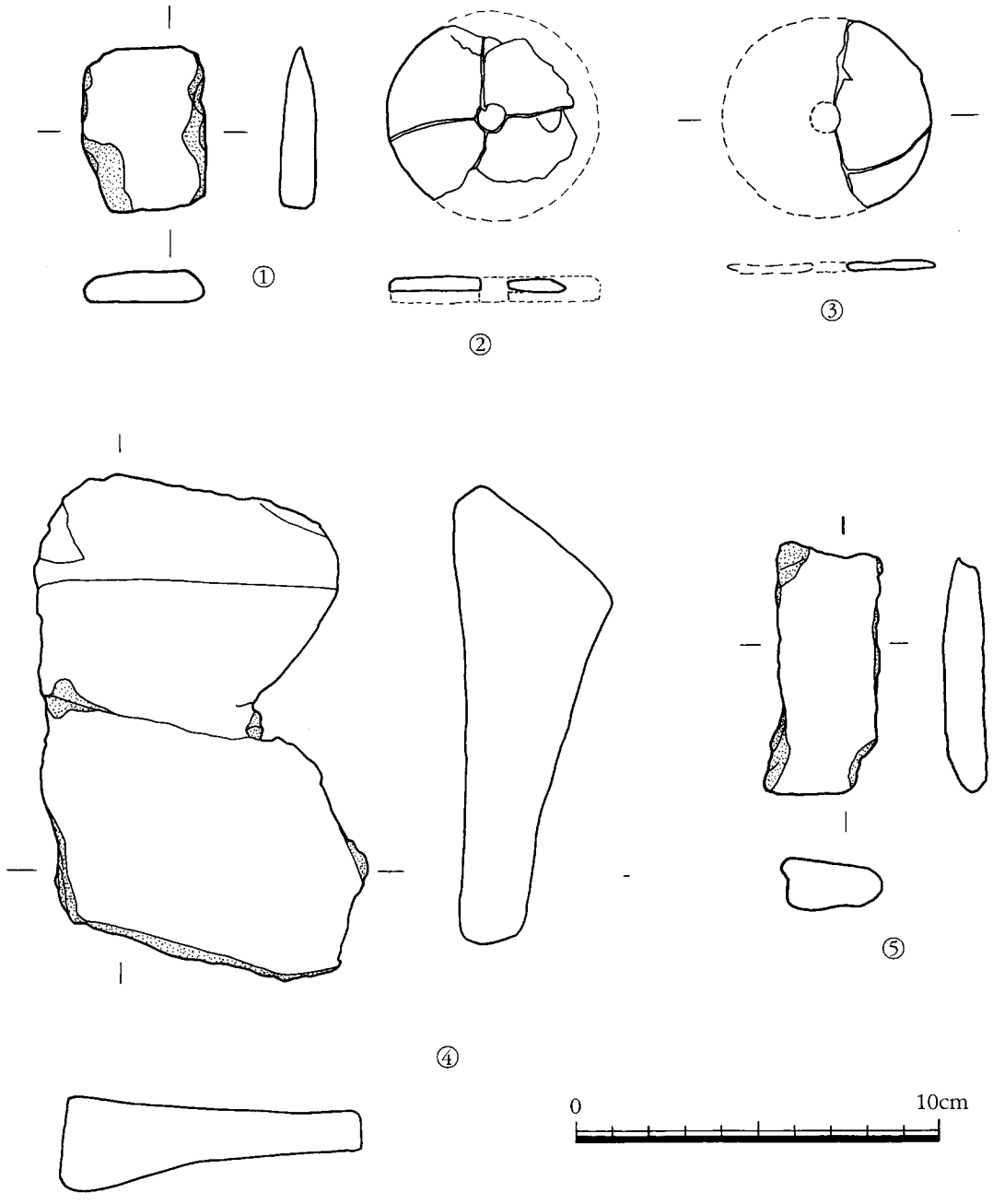
석질은 적색 셰일이며, 크기는 직경 5.8cm 구멍지름 0.7cm 두께는 0.7cm이다.

○紡錘車 片 (그림 36-③, 사진 63-⑥)

석제 가락바퀴로 현재 절반 가량이 남아 있다. 크기는 직경 5.6cm 구멍지름 0.8cm 두께는 0.2cm로 얇은 편이다.

○硏石 片 (그림 36-④, 사진 63-⑦)

주거지의 북동벽에 인접하여 출토된 갈돌편으로 파손된 상태로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일부가 결실되었다. 양면이 갈려져 잇으며, 사용면은 움푹하게 들어갔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질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13.7cm 폭 9.2cm 두께 4.1cm이다.



〈그림 36〉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砥石 片 (그림 36-⑤, 사진 63-⑧)

주거지의 남벽 중앙에서 출토된 지석 편으로 상면과 밑면의 일부만 갈려 있다. 석질은 암회색 셰일이며, 크기는 길이 6cm 폭 3.3cm 두께 1.1cm이다.

(6) 6호 住居址 (그림 37, 사진 37~44)

① 遺構

6호 주거지는 1-5호 주거지가 자리잡은 구릉에서 동으로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남-북 방향으로 뻗은 해발 약 40~50m 높이의 능선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서쪽은 죽일골이, 남동쪽은 이랄골의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현재 동 지역에는 70~80년생된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좁은 능선을 따라 청동기시대의 집자리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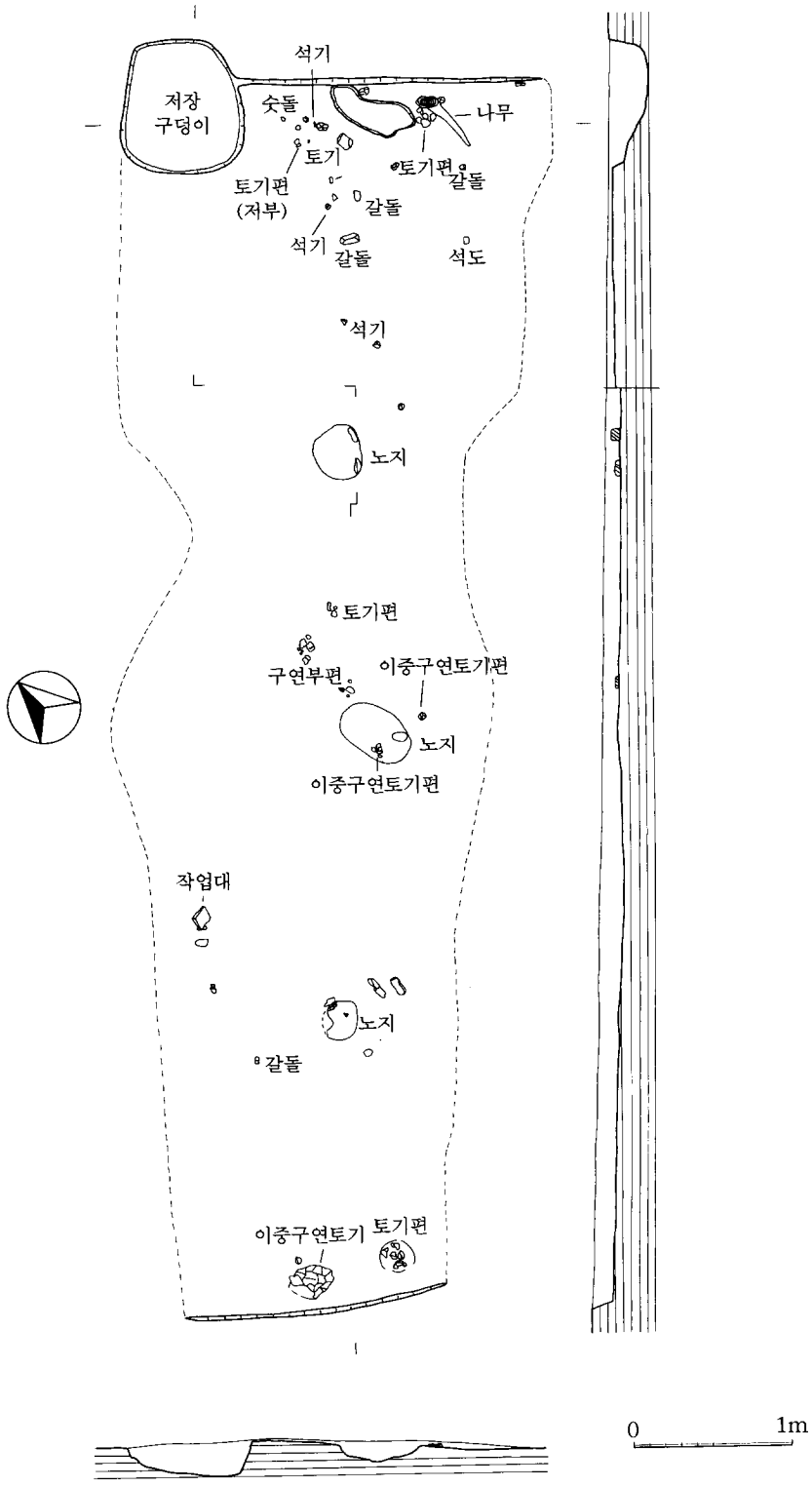
시굴조사시 동 지역은 절대보존녹지지역으로 보존하기로 되어 있어 제외되었으나 6호 주거지가 확인된 좁고 긴 구릉의 일부가 현상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에 발굴조사기간 중에 조사하게 되었다.

6호 주거지는 탐색조사갱에서 현지표하 약 15~20㎝ 깊이에서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이 확인되어 확장한 곳으로, 남서 . 북동 단벽은 현지표하 15~20㎝ 깊이에서 노출되었으나 남동 . 북서 장벽은 구릉의 양쪽 경사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삭평되어 결실되었다.

6호 주거지는 구릉의 방향과 일치하게 마련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남동-북서(북 서 40°)방향이고, 남동 . 북서 장축 길이 15, 8m, 북동 단벽 잔존 길이 4,8m, 수혈 깊이 15~28㎝, 남서 단벽 잔존 길이 3m, 수혈 깊이 15~27㎝이다.

주거지의 어깨윤곽선 안에 40㎝의 둑을 +字 모양으로 설치한 후 어깨선 안에 퇴적된 흙을 걷어내자 풍화 암반층을 수직으로 파들어가 마련한 바닥과 벽이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바닥은 생토층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부분적으로 얇게 점토를 다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바닥 바로 위층은 약 15~20cm 두께로 숯과 소토가 섞여 있는 암갈색 진흙층이 퇴적되어 있고, 맨상층은 명갈색의 사질점토층이 덮여져 있었으나 어깨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기둥구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동벽 중앙부분에서 벽에 붙어 타원형의 저장공이 노출되었고 저장공 내부에서 타제 석기 1점이 5조각 난 채로 출토되었다. 북벽 모서리 부분에서 수혈 벽을 약 50㎝ 더 파고 들어가 마련한 길이 140~170m, 폭 130~170㎝, 깊이 20~50㎝ 크기로 저장구덩이가



〈그림 37〉 교동 6호 주거지 실측도

약간 경사지게 마련되었다.

노지는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중앙부분의 교란구덩이와 인접하여 확인된 노지는 동쪽으로 18~20㎝ 크기의 둥근 돌이 20㎝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붉은색 진흙이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 남쪽 중앙부분에서 확인된 노지는 불에 맞은 소토층이 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소토층 위에서 구연부에 단사선문을 시문한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과 무문토기편들이 노출되었다. 주거지 남서쪽 경사면에 인접하여 확인된 노지는 일부가 약간 파손된 채로 흑갈색 진흙층이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할석들이 박혀 있다.

출토유물은 주거지 남서 단벽 중앙에 인접하여 구연부에 거치문을 시문한 이중구연토기 1점이 비스듬히 선 채로 약간 파손되어 노출되었으며, 인접하여 구연부가 내반된 옹형토기 1개체분이 노출되었고, 북동벽 저장구덩이 옆에서 적갈색 무문토기 1개체분이 출토되었으나 현재 나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파손되었다. 남쪽 중앙부분 노지 부근에서 구연부에 단사선을 시문한 이중구연토기구연부와 무문토기편 소량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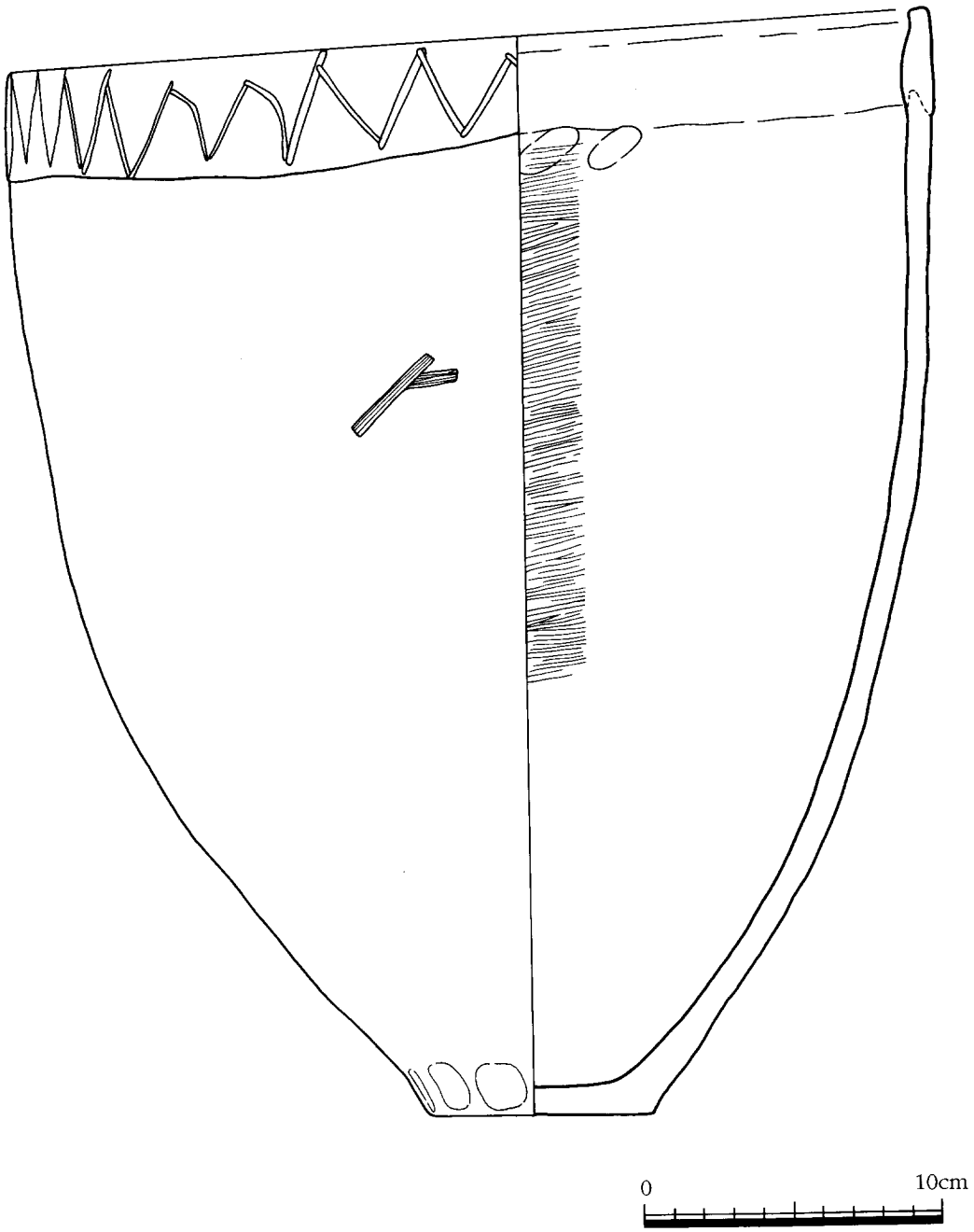
주거지에서 나온 석기들은 대부분 북동편으로 치우쳐 나왔는데 소형의 숫돌들과, 타제석기들이 출토되었고, 적색마연토기 대각 1점이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북동쪽 모서리부분에서 석도 1점, 북서쪽 경사면에서 마연된 찌르개 1점이 출토되었다. 남서 단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작업대로 보이는 20×25㎝ 크기의 돌이 둥근 냇돌들과 일렬로 노출되었고, 인접하여 적갈색 무문토기 저부 1점좌 숫돌 1점이 약간 파손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② 遺物

○二重口緣土器 (그림 38, 사진 64-①)

주거지의 남벽 중앙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이중구연의 심발형토기로 구연부는 몸통 중간 아래에서 부터 약간 바라지게 올라오다가 직립하였다. 구연부 바로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거치문을 시문하였고, 구연의 접합부에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붙여 이중구연을 만들었다. 몸통의 최대 폭은 중하에 위치하며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져 바닥과 연결된다. 토기의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외면은 마연하였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에 비해 작은 편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벽은 고른 편이며,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이며 일부 흑반된 곳이 있다.

크기는 높이 37.1cm 입지름 30.9cm 밑지름 7.5cm이다.



〈그림 38〉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二重口緣土器 片 (그림 39-①, 사진 64-②)

주거지 남쪽 중앙 노지 상면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토기 구연부로 일부분만이 남아 있다.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구연의 접합부에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붙여 이중구연을 만들었으나 뚜렷하지 않다. 구연부의 접합부에는 단사선문이 남아 있다. 내면의 접합부에는 손누름자국이 깊게 남아 있고, 구연부 상단에는 손누름자국이 약하게 남아 있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소성이 양호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적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3.5cm 추정입지름 22.8cm 두께 1cm이다.

○二重口緣土器 片 (그림 39-②, 사진 64-③)

주거지 남쪽 중앙 노지 상면에서 위의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과 같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입술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구연의 접합부에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붙여 이중구연을 만들고, 접합부에는 단사선문이 남아 있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 하였으나 거친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외면 황갈색, 내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3cm 추정입지름 34cm 두께 1cm이다.

○二重口緣土器 片 (그림 39-③, 사진 64-④)

주거지 남쪽 노지 상면에서 위의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과 같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입술은 비스듬하게 처리하였다. 구연의 접합부에는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 붙여 이중구연을 만들었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소성이 고르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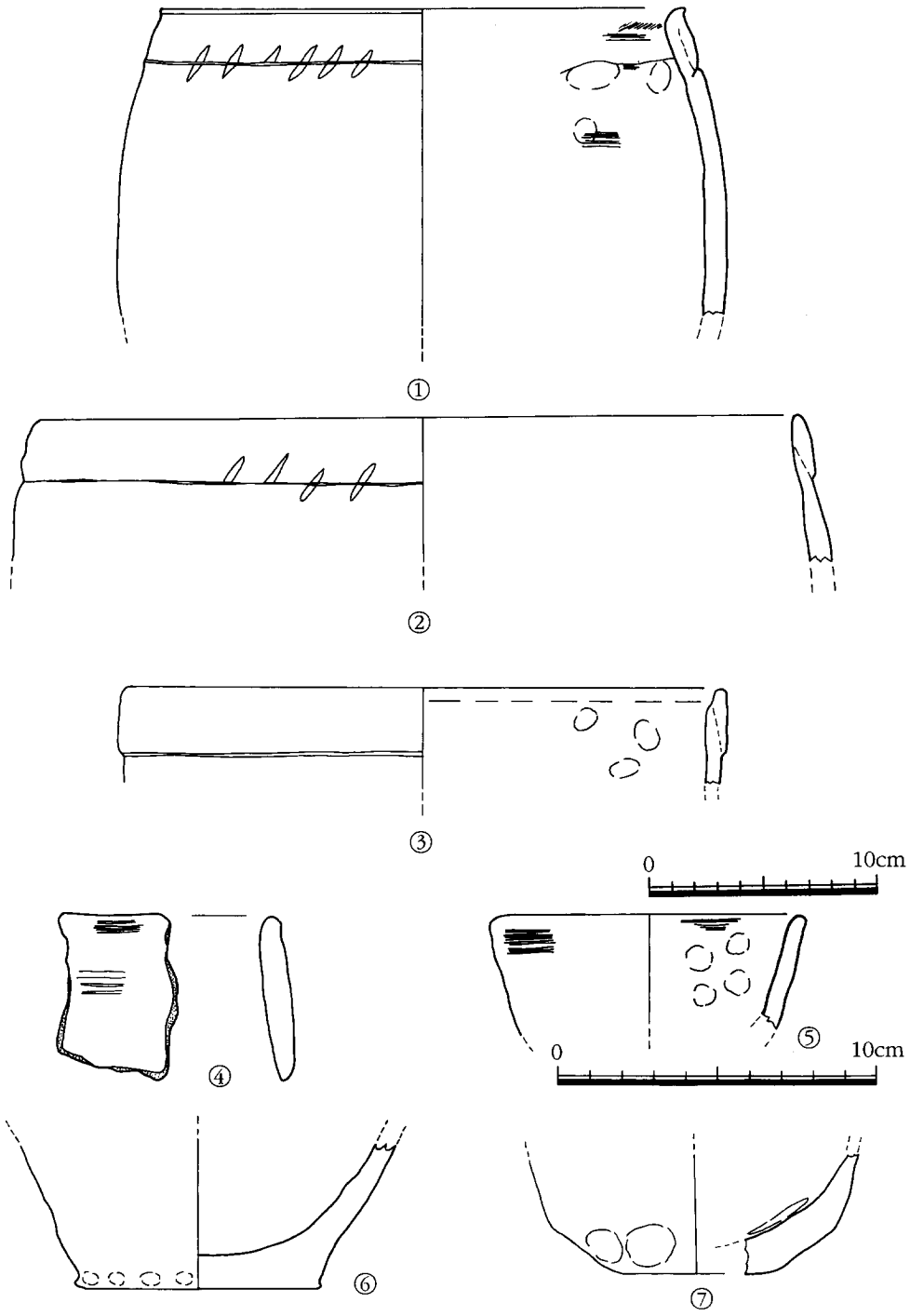
크기는 현존높이 4.2cm 추정입지름 26.8cm 두께 1cm이다.

○無文土器 口緣部 片 (그림 39-④, 사진 64-⑤)

주거지의 중앙 노지 주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구연부로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1cm 두께 0.9cm이다.

○無文土器 口緣部 片 (그림 39-⑤, 사진 64-⑥)

주거지의 중앙 노지 주변에서 출토된 소형 무문토기 구연부로 구연부는 직립하였으며 입술은 둥



〈그림 39〉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글게 처리하였다. 기면은 횡방향으로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고, 내면에는 손누름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8cm 추정입지름 10cm 두께 0.6cm이다.

○無文土器 底部 片 (그림 39-⑥, 사진 65-①)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소성은 고르지 못한 편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cm 밑지름 7.8cm 바닥두께 1.1cm이다.

○無文土器 底部 片 (그림 39-⑦, 사진 65-②)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은 약간 들린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8cm 추정밑지름 5.4cm 바닥두께 1.2cm이다.

○無文土器 底部 片 (그림 40-①, 사진 65-③)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일부만이 남아 있다.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납작밑 바닥에는 나뭇잎자국이 찍혀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으며 내면은 박리된 상태이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5cm 추정밑지름 8.8cm 바닥두께 1.2cm이다.

○無文土器 底部 片 (그림 40-②, 사진 65-④)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두꺼운 편이며,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7cm 추정밑지름 12.2cm 바닥두께 2.4cm이다.

○無文土器 底部 片 (그림 40-③, 사진 65-⑤)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바닥은 납작밑 바닥으로 몸통과의 접합부는 단이 지며 내면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소성은 고르지 못하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8cm 추정밑지름 5.6cm 바닥두께 1.2cm이다.

○赤色土器 口緣部 片 (그림 40-④, 사진 65-⑥)

주거지의 남쪽 노지 상면에서 출토된 적색토기 외반구연소호편이다. 구연부는 목에서부터 바라지고 입술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기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하였으며 내·외면은 붉은칠을 하였으나 마연되지는 않았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였으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2cm 두께 0.8cm이다.

○대부소호 臺脚 片 (그림 40-⑤, 사진 65-⑦)

대부소호 대각편으로 굽은 몸통과의 연결면부터 완만하게 벌어지며 내려오다가 둥근 저부를 만들었다. 저부의 끝부분은 윗쪽보다 약간 넓고, 들린 바닥을 만들었다. 들린 바닥 안쪽으로는 2.4cm 깊이로 파여 있다. 내·외면 모두 붉은 점토칠을 한 후 마연하였으며. 외면 하단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바탕흙은 정선된 점토에 미세한 운모가루와 모래를 사용하였고 크기는 현존높이 3.8cm 굽지름 3.6cm 기벽두께는 0.3cm이다..

○半月形石刀 片 (그림 40-⑥, 사진 66-①)

주거지의 서북편에서 출토된 반월형석도이다. 형태는 魚形이며 좌측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날은 외쪽날로 중앙에는 약 1cm의 간격을 두고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고 석질은 흑색의 셰일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6.2cm 폭 6.1cm 두께 1cm이다.

○石斧 (그림 40-⑦, 사진 66-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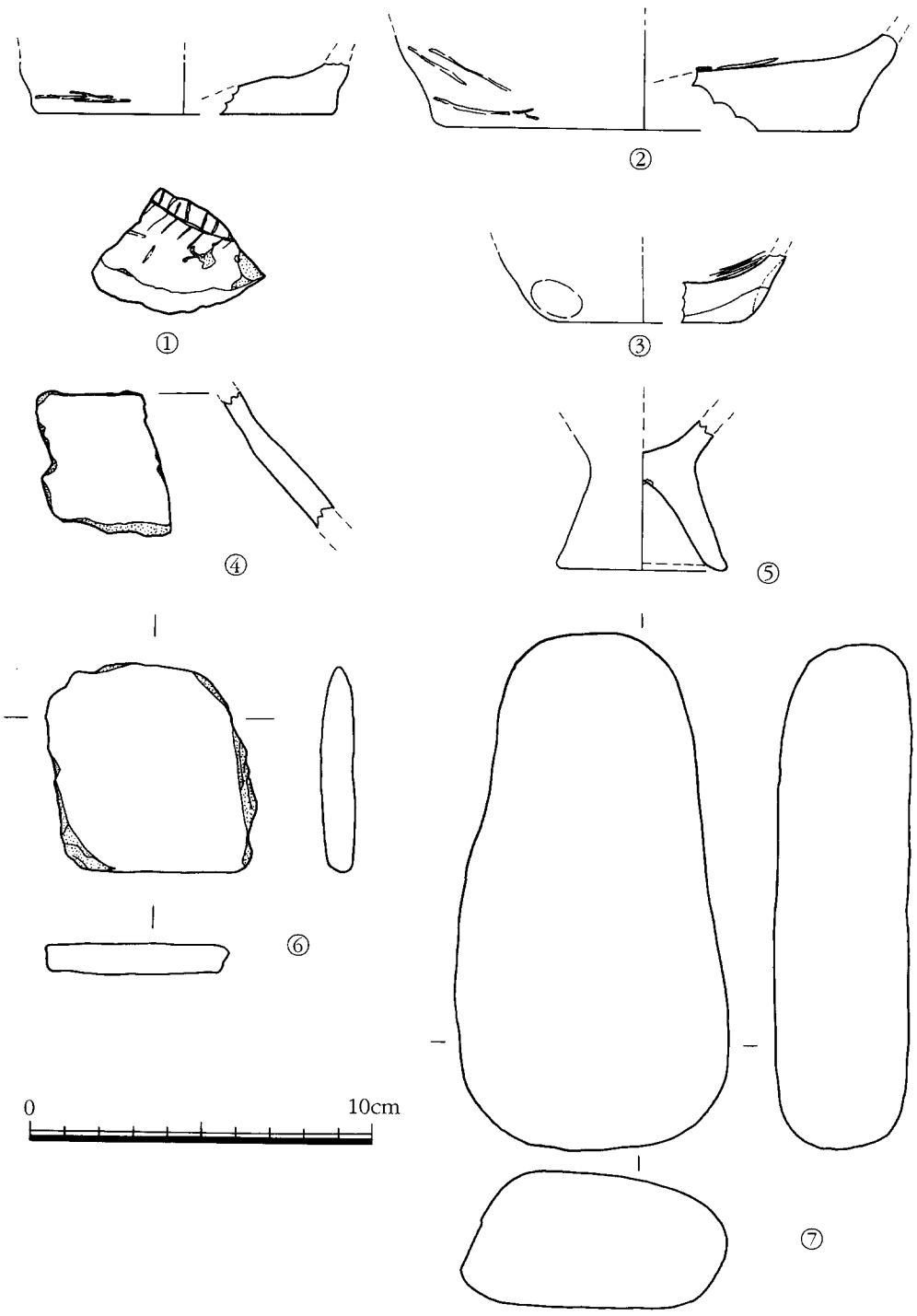
주거지의 동벽 저장공 옆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은 타원형으로 볼록한 편이며, 양쪽에서 갈아 날을 세운 조갯날이나 날이 거친 편이다. 날의 일부분은 결실되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이다.

크기는 길이 16.3cm 폭 6.8cm 두께 4.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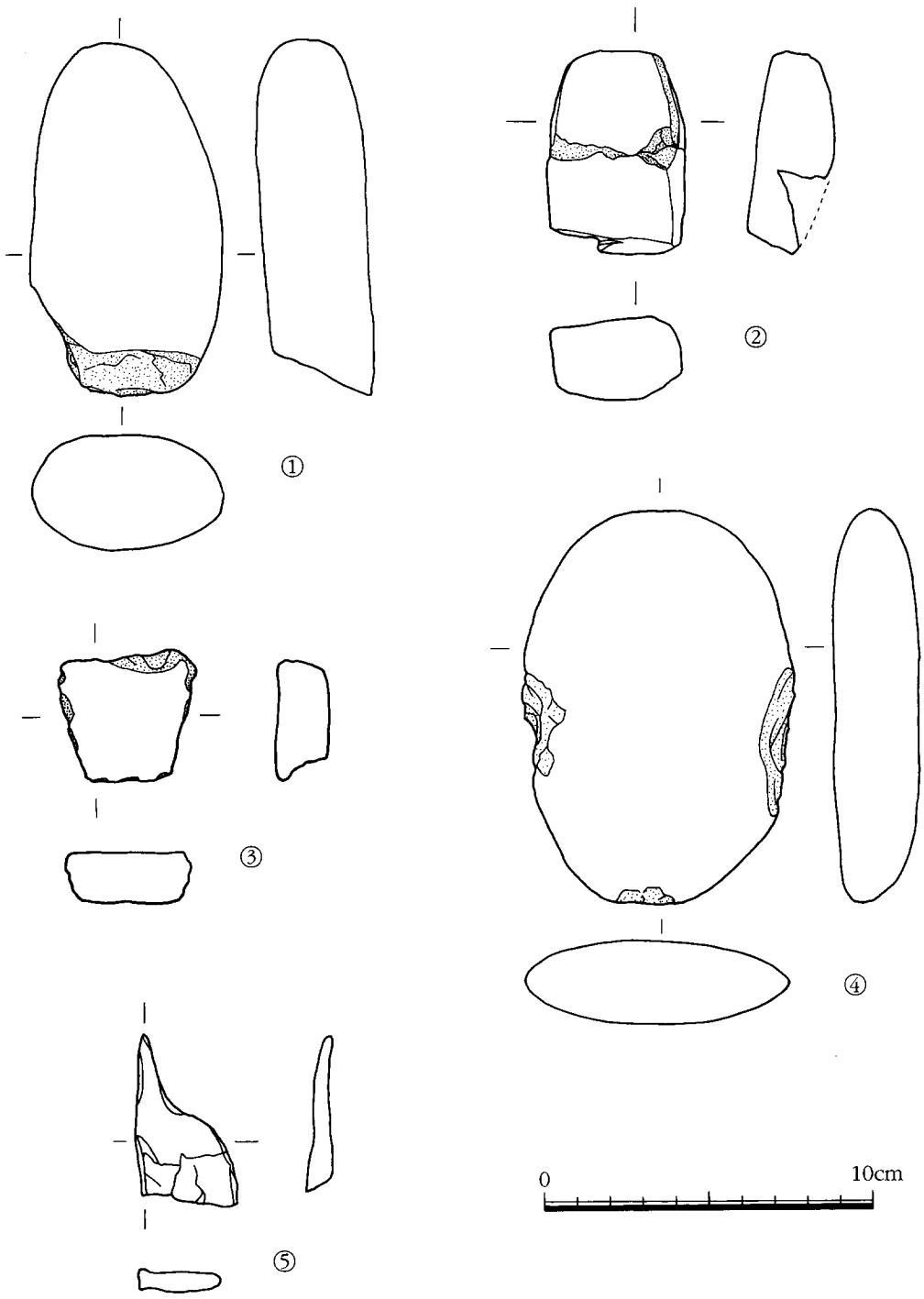
○石斧 (그림 41-①, 사진 66-③)

주거지의 동벽 저장공 옆에서 출토되었다. 몸통은 타원형으로 볼록한 편이며, 양쪽에서 갈아 날을 세운 조갯날이나 날이 거친 편이다. 날의 일부분은 결실되었다.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이다.

크기는 길이 13.9cm 폭 8.2cm 두께 4.8cm이다.



〈그림 40〉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그림 41〉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砥石 (그림 41-②, 사진 66-④)

주거지의 서벽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직사각형으로 한면이 갈려 있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6.1cm 폭 4.2cm 두께 2.3cm이다.

○砥石 (그림 41-③, 사진 66-⑤)

주거지의 서벽에서 출토된 지석으로 단면 직사각형으로 한면이 갈려 있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산성 암맥으로 크기는 길이 4.1cm 폭 4cm 두께 1.6cm이다.

○漁網錘 (그림 41-④, 사진 66-⑥)

주거지의 서북편 모서리에서 출토된 석제 어망추이다. 둥근 자갈의 양쪽면을 타격하여 그물코를 만들었다. 석질은 석영-흑운모암이다. 크기는 길이 16.7cm 폭 11.6cm 두께 3.5cm 무게 28g이다.

○石器 (그림 41-⑤, 사진 66-⑦)

주거지의 서북편 모서리 경사면에서 출토된 석기로, 앞부분은 뾰족하고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마연되었다. 용도는 문양 새기개로 여겨진다. 석질은 녹색 셰일이다.

크기는 길이 5.2cm 폭 3.1cm 두께 0.7cm이다.

2. 유천동 廢瓦窯地(그림 42, 사진 45~48-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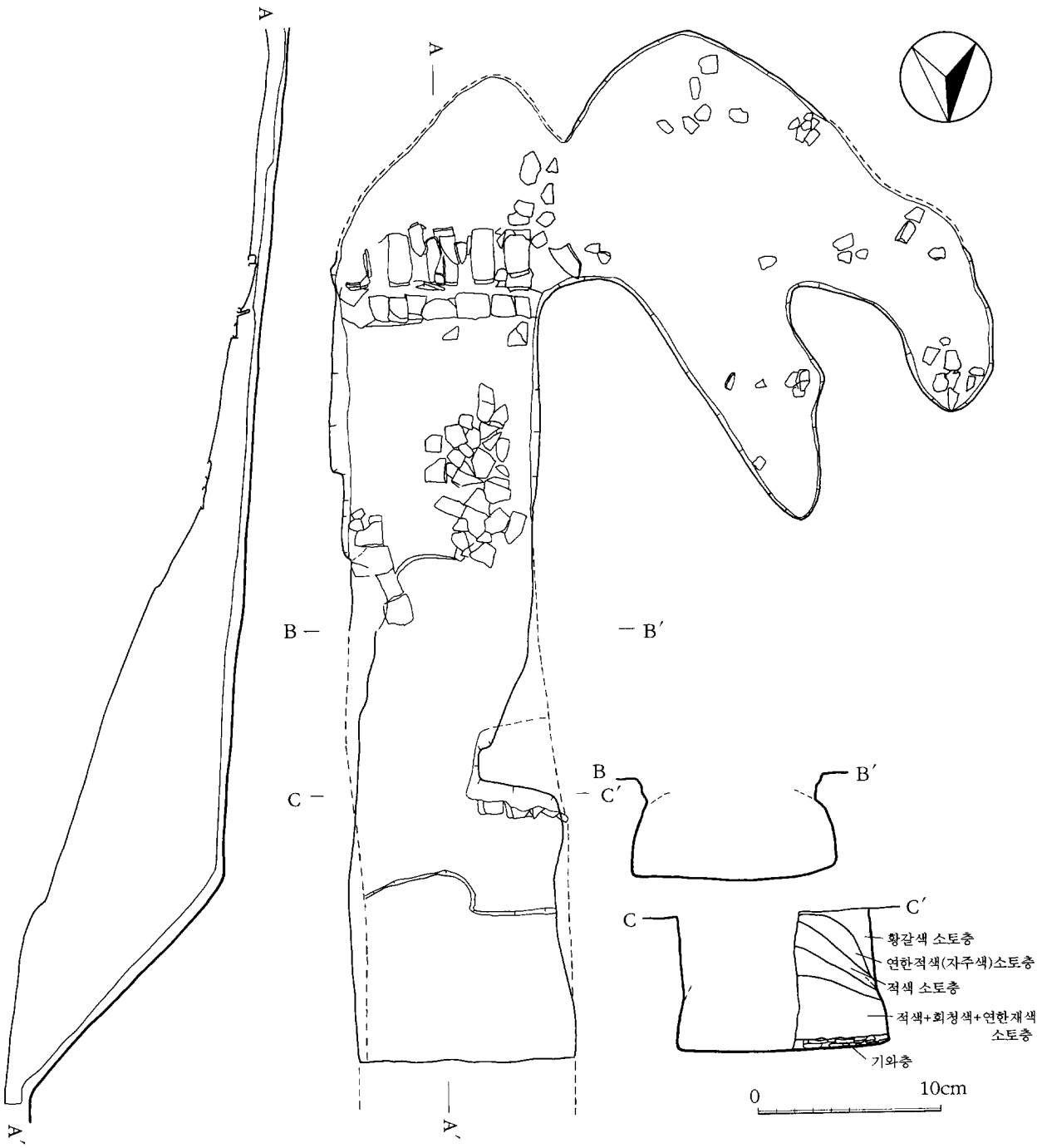
① 遺構

유천동 폐와요지는 유천동 신석기시대 유적과 청동기시대 유적지 사이에 위치한 해발 27m 높이의 구릉 하부 지역으로 농로 개설시 이미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 없어지고 일부에서 기와를 쌓아 놓았던 와적층이 길게 노출된 상태이다.

와요지의 남쪽면은 급경사면으로 현재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와요지는 동-서방향으로 구릉의 방향과 나란하게 마련되었으며, 회구부는 동편에, 연도부는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가마의 천정부는 붕괴되어 소실되었다. 전체길이는 7.8m 최대폭 1.7m, 최대높이 1.2m이다.

와요지에 대한 조사는 우선 절개면에 노출되어 있는 가마의 벽체를 중심으로 하여 내부에 흙을 걷어내자 소성실이 노출되었다.

소성실은 천정부가 붕괴되어 양쪽 측벽에 일부분만 남아 있으며 내부는 함몰토와 소토덩어리들



〈그림 42〉 유천동 폐와요지 실측도

로 가득차 있었다. 소성실의 벽은 회청색의 점토가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다. 소성실 바닥은 회청색 진흙이 깔려 있으며, 기와가 출토되는 지점부터는 적갈색 진흙층이 약간 단을 져서 형성되어 있다. 바닥에서는 소량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암키와이고, 수키와는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다. 전체길이 4.5m, 폭 1.5~1.7m, 최대높이 1.2m이다.

소성실과 연도부와의 경계에는 평기와가 남-북방향으로 놓여져 있고, 가로방향으로 수키와 5점이 나란히 놓여 있다. 연도부는 소성실과의 경계지점에서 약간 잘록해진 다음 북쪽으로 치우쳐 형성되어 있다. 연도부는 현재 동·서벽과 바닥의 일부분이 남아 있으며, 바닥은 불에 맞아 적갈색 소토화되었고, 기와조각들이 약간 깔려 있다. 연도부 최대길이 5.1m, 폭 2.1~3.1m, 깊이 10㎝이다.

② 遺物

○무문평기와(그림 43-①, 사진 67-①)

언강과 미구가 형성되어 있는 유단식의 수키와이다. 기와의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기와의 등 상단부분에는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배면에는 가는 포흔이 남아 있고, 측면에는 두께의 1/3 정도 되는 와도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색조는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는 길이 42cm 너비 18.5cm 두께 3.3cm이다.

○무문평기와(그림 43-②, 사진 67-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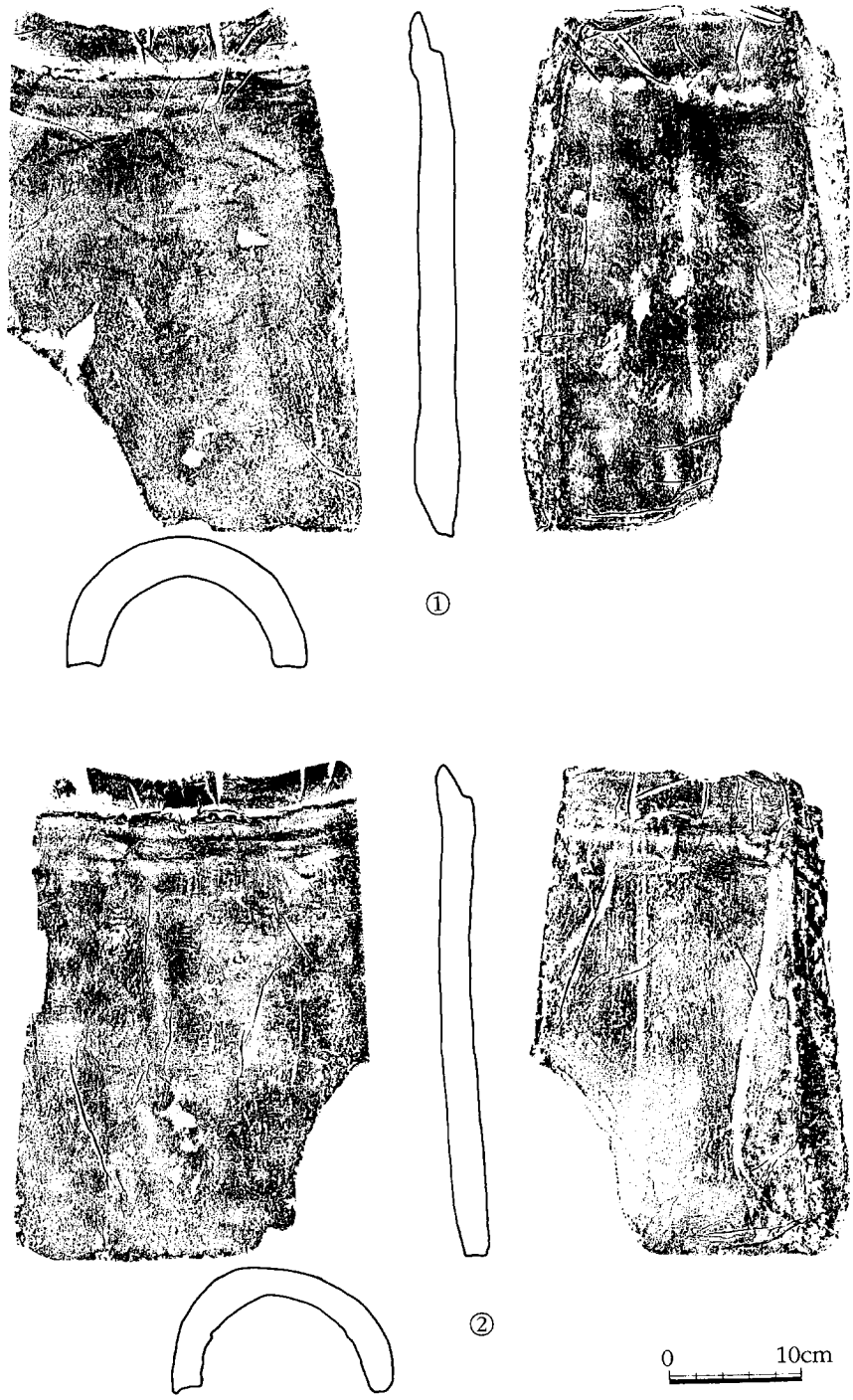
언강과 미구가 형성되어 있는 유단식의 수키와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와의 배면에는 실매듭흔, 포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는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는 길이 37.2cm 너비 17cm 두께 2.5cm이다.

○무문평기와(그림 44-①, 사진 6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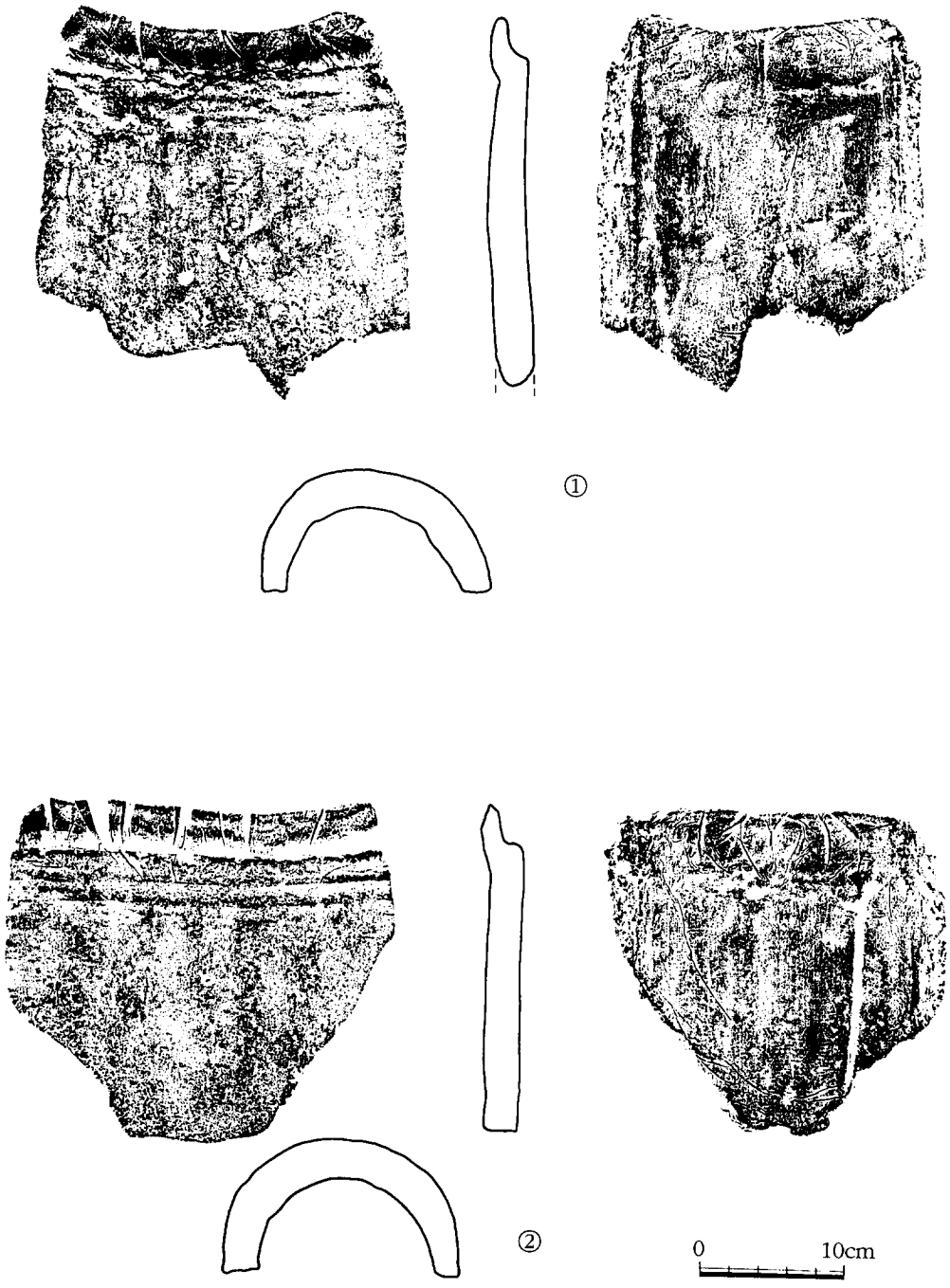
언강과 미구가 형성되어 있는 유단식의 수키와로 절반가량이 결실되었다. 기와의 배면에는 포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는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26cm 너비 16.5cm 두께 2cm이다.

○무문평기와(그림 44-②, 사진 67-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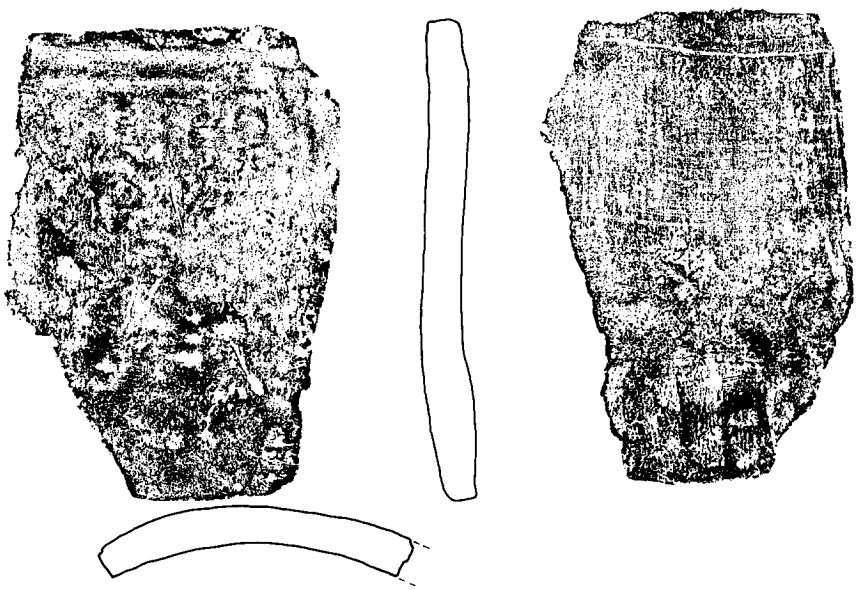
언강과 미구가 형성되어 있는 유단식의 수키와로 절반가량이 결실되었다. 기와의 배면에는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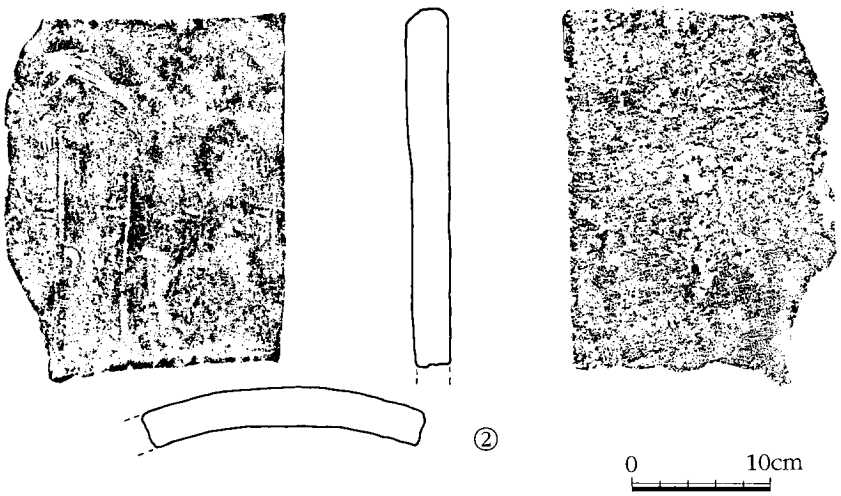
〈그림 43〉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그림 44〉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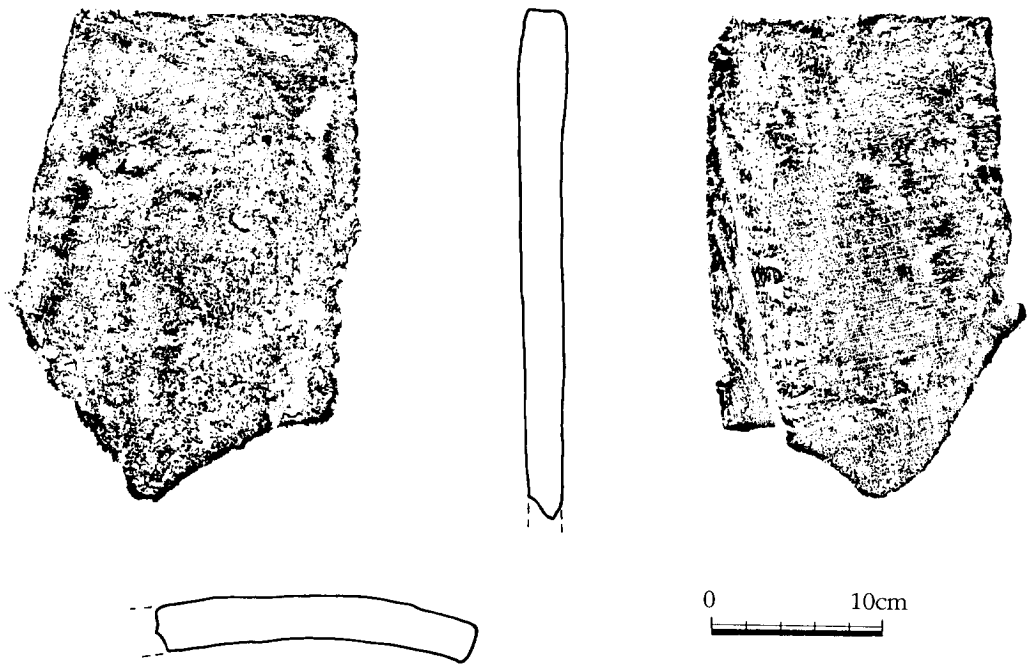


①



②

〈그림 45〉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그림 46〉 유천동 폐와요지 출토유물

포흔과 실매듭흔이 남아 있고, 측면에는 두께의 1/3 정도 되는 와도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22.6cm 너비 16.5cm 두께 2.8cm이다.

○무문평기와(그림 45-①, 사진 67-⑤)

암키와로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와의 배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고, 가는 포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는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는 길이 34.8cm 너비 23.5cm 두께 2.8cm이다.

○무문평기와(그림 45-②, 사진 67-⑥)

암키와로 약 1/3 가량이 결실되었다. 기와의 배면은 소성이 고르지 못한 편이며 가는 포흔이 일부분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는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는 길이 27.2cm 너비 20.8cm 두께 3cm이다.

○무문평기와(그림 46-①, 사진 67-⑦)

암키와로 측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와의 배면은 가는 포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는 적갈색의 경질기와이다.

크기는 길이 30cm 너비 19.5cm 두께 2.5cm이다.

Ⅴ. 考察

1. 靑銅器時代 住居址

강원 영동지역에서 정식적으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대부분 해변에서 멀지 않은 湖畔이나 하천변의 낮은 구릉산지에 분포하는 입지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12].

교동 유적에서는 2개의 구릉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현재 한 구릉은 전체에 걸쳐 조사하여 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고, 다른 구릉은 전체 구릉에 걸쳐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구릉의 일부만 조사하여 주거지 1기(6호)만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등고선 방향으로 축조되었고, 평면형태[13]는 장방형과 방형이 각각 3기씩 확인되었고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 1기와 소형의 방형주거지 1기가 인접하여 한조를 이루고 있는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방향은 동-서 방향이 3기(1호 · 2호 · 6호), 남-북 방향이 1기(5호), 남서-북동 방향이 2기(3호 · 4호)이며, 규모는 10평 미만이 3기(2호 · 3호 · 5호), 10평~20평이 1기(1호), 20평~30평이 2기(4호 · 6호)이다.

주거지는 풍화된 암반을 파 들어가 평평한 바닥을 마련하였고, 그 위에는 진흙을 얇게 깔고 다진 것이 확인되었으나 진흙바닥을 불에 구운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에서 드문드문 발견되는 소토는 화덕자리나 가옥폐기 이후의 화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거지 바닥에는 지붕과 벽체에 덮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갈대가 탄화되어 나오고 있다.

---

12) 속초 청초호 주변의 조양동 유적, 양양군 남대천 주변의 포월리 유적, 화상천 주변의 지리 유적, 강릉 연곡천 주변의 방내리 유적, 강릉 경포호 주변의 교동 유적 등이다.

13) 주거지의 평면형태의 구분은 세장방형 · 장방형 · 방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장단비에 따라 분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장단비 1:1.5 미만을 방형, 1:2.5 미만을 장방형으로 분류하였다.

수혈의 깊이는 4벽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후대의 삭평이나 파괴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움집의 축조 당시부터 자연적 지형의 고저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주거지들 중 남벽쪽이 소실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지들은 대부분 구릉의 남쪽 사면의 풍화암반을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대부분 출입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실된 남벽쪽이 출입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노지, 기둥구멍, 제습용 홈,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1) 노지

교동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노지는 4개로 적은데,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지는 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토광형) 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 노지의 위치는 주거지의 중앙에서 약간 북벽쪽으로 치우치며, 중심선에서 각각 양쪽 벽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지를 중심으로 한쪽은 좁고 넓은 공간이 생겨 주거지 안에서의 생활양상이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14]

(1) 위석식노지

교동 1호 주거지의 노지는 방형의 형태로 할석을 돌린 위석식 노지[15]이다. 위석식노지는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며, 청동기시대의 위석식노지는 북한지방에서는 청천강유역의 세죽리유적[16], 평북 북창 대평리유적[17], 심귀리유적[18], 대동강유역의 덕천 남양유적[19], 평양 표대유적[20], 해주 고연리유적[21],등이며, 청주 내곡동유적[22], 청주 향정 · 외북동유적[23], 청주 용암유적[24], 청원 황탄리유적[25], 대전 둔산유적[26], 대전 신대동유적[27], 대전 궁동유적[28], 대전 노은동유적[29], 대전 용산동유적[30],

14) 김정기, 1974.「한국수혈주거지고-무문토기문화기의주거지-」『고고학』3.
15) 임윤미, 1990.「한국선사시대 노지연구」『숭실사학』6.
16) 김영우, 1964.「세죽리유적 발굴중간보고(2)」『고고민속』4.
17) 정찬영, 1974.「대평리유적발굴보고」『고고학자료집』4.
1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심귀리 주거지」『유적발굴보고』13.
19) 서국태, 1996.「팽이그릇문화의 편년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96-2, 사회과학출판사.
20) 김종혁, 1996.「표대부락터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96-2, 사회과학출판사.
21) 서국태, 1996. 주18)의 전게논문.
22) 차용걸, 1986.「청주내곡동유적」『중부고속도로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23) 차용걸, 1986.「청주 내곡동유적 발굴조사보고」『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2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청주 용암유적』
25)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황탄리유적』

금산 수당리유적[31], 익산 영등동유적[32], 진천 은양리유적[33]등 금강유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남한강 상류지역의 충주 조동리유적[34], 경북 금릉 송죽리유적[35], 남강댐 수몰지구내의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유적[36] · 상촌리유적[37]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유적에서 확인된 위석식노지는 대부분 주거지 내부에 1-2개의 노지를 할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돌을 돌린 형태이고, 춘천 신매대교유적[38], 강릉 방내리 11호 주거지[39]는 냇돌을 이용하여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돌을 돌린 형태이다.

이상에서 보면 교동 1호주거지와 중서부지역의 할석을 이용한 방형의 위석식 노지가 확인되는 주거지들은 가락동 유형의 주거지들이며, 강릉 방내리 11호 주거와 춘천 신매대교유적에서는 둥근 냇돌을 이용한 원형이나 타원형의 주거지들은 순수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들로 양 노지 유형 간에는 時空的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위석식노지는 서북지방에서는 미송리형토기 출토 유적에서 주로 분포하지만,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청주와 대전 등지에서는 주로 변형팽이형토기(가락동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팽이형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에서는 대체로 위석식 노지보다는 무시설식 노지가 분포하고 있다.

---

26) 이강승 · 박순발, 1995.『둔산』충남대학교 박물관.
27) 성정용, 1997.「대전신대동 · 비래동청동기시대유적」『호남고고학의제문제』, 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28)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9.「대전 궁동유적 발굴조사 약보고」
29)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대전 노은동유적 발굴조사보고』
30)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대전과학산업단지내 용산동 토취장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3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9.「금산 수당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32)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00.『익산 영등동 유적』
33) 中央文化財硏究院, 2001.『鎭川 恩陽里遺蹟』
33) 진천 은양리유적은 이중구연 단사선문을 특징으로 하는 가락동식 토기에 삼각점열문이 시문된 단도마연토기와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어 흔암리유형의 전통이 접목되는 시기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
34)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1.『충주 조동리 선사유적(Ⅰ)』
35) 조영현, 1993.「금릉 송죽리유적 발굴조사」『삼한사회와 고고학』제1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36) 선문대학교 · 경상남도, 2001.『진주 대평리 옥방5지구 선사유적』
37) 동아대학교 박물관 · 경상남도, 1999.「상촌리 유적 B」『남강문화유적발굴도록』
38) 최종모, 1998.「춘천 서면 신매대교 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개요」『전환 기의 고고학(2) -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한국상고사학회.
39) 백홍기 · 지현병 · 고동순, 1996.『강릉 방내리 주거지』, 강릉대학교박물관.

(2) 무시설식 노지

교동 6호 주거지에서는 3개의 노지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중앙부분에 북쪽으로 돌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는 원형으로 소토가 형성된 노지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같은 간격으로 무시설식 노지 1기씩 확인되었다.

2) 제습용 홈

제습용 홈은 벽 바로 밑에 마련된 것도 있고, 벽에서 안쪽으로 좀 떨어져서 기둥구멍과 기둥구멍을 연결한 것도 있다. 한편 홈이 파여진 위치라던가 바닥의 Level이 대체로 홈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점, 그리고 움의 벽이 흠실된 쪽에는 홈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붕이나 벽채를 통하여 스며드는 물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제습용시설로 여겨진다. 한편 교동 1호와 5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굴착한 어깨선 안쪽에 판자를 세우고 판자와 어깨선 사이에는 고운 점토로 뒷채움한 흔적[40]이 보이며, 이러한 제습용 홈은 조양동, 방내리, 포월리 주거지 등 영동지역의 능선상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3) 기둥구멍

기둥구멍은 거의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는 교동 4, 6호 주거지이다. 기둥구멍이 잘 남아 있는 이유는 단단한 풍화암반층의 바닥에 기둥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둥구멍은 대부분 주거지의 외곽선인 4벽의 바로 밑에서 확인되었고, 주거지의 중앙에서는 기둥자리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교동 2호 · 5호 주거지에서는 탄화된 기둥이 2개씩 확인되었다.

4) 저장공

저장공은 신석기시대부터 특성이 보이는데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대부분 저장공이 확인된다. 저장공은 대부분 주거지의 모서리나 벽쪽에 치우쳐서 1개 내지 3개가 발견되었다. 저장공 안이나 옆에서 토기가 출토되는 예로서 교동 1호에서는 남서벽 모서리의 저장공에서는 무문토기, 5호 주거지의 북동벽 모서리에 설치된 저장공에서는 각각 이중구연토기 1점과 돌을 이용하여

40) 이러한 판자벽 뒤에 고운 점토로 뒷 채움한 흔적은 조양동 7호 주거지와 방내리 3호 주거지 등에서 확인되며, 철기시대의 강릉 교항리 유적, 강릉 병산동 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뚜껑으로 덮은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교동 1호 , 3호 주거지처럼 작업대가 토기와 공반 출토되고, 교동 1호 주거지 경우 저장공 옆에서 탄화미가 출토되고 있어 저장공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작업공간 내지 조리시설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저장공은 대부분 둥근 모양이지만 말각방형인 것과 부정형인 것 등도 보인다. 이러한 저장구덩이 중 직경 50cm 내외, 깊이 16~48cm 깊이의 소형 구덩이는 토기를 묻어 두는 저장공로 여겨지나 교동 6호에서 보이는 직경 120cm 내외, 깊이 23~40cm의 대형구덩이의 용도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표1〉교동주거지집성표

번호	평면형태	방향	크기	면적	수혈깊이	바닥	화덕자리	기둥구멍	흠시설	저장공	비고
1호	장방형	동-서 (북→서50°)	9.6m×4.5m	48㎡ (약15평)	40cm	粘土다짐	위석식 노지 1	15개	○	3개	탄화미, 판자벽화재
2호	방형	동-서 (북→서50°)	4m×4.1m	16㎡ (약5평)	30cm	粘土다짐		2개 (탄화기둥)		2개	화재
3호	방형	남서-북동 (북→동40°)	6.8m×4.9m	33㎡ (약10평)	60 ~ 10cm	粘土다짐		14		3개	화재
4호	장방형	남서-북동 (북→동10°)	14.5m×6m	89㎡ (약27평)	28cm	粘土다짐				2개	
5호	방형	남-북 (북→동30°)	4.8m×3.2m (현존)	15㎡ (약4평)	35cm	粘土다짐 (燒土)		1개 (탄화기둥)		2개	화재
6호	장방형	동-서° (동→서10)	15.8m×5.4m (현존)	85.3㎡ (약30평)	15~ 28cm	粘土다짐	무시설식 3			2개	

2) 遺物

(1) 土器類

① 無文土器

교동 주거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수량은 많지 않으나 10점이 완형으로 복원되었으며, 토기의 종류나 형식을 짐작할 수 있는 구연부편도 상당수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완형토기는 대부분 주거지의 저장공 내부나 저장공 주변에서 출토된 점이 특징적이다.

무문토기의 태토는 고운 점토에 장석과 석영이 다량 포함되었으며 색조는 적갈색과 황갈색 등 갈색계통이다. 출토된 무문토기는 기형에 따라서 직립구연의 심발형토기와 몸통이 둥글고 목이 있

는 호형토기, 발형토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深鉢形土器

모두 8점이 완형으로 복원되었는데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홑구연과 이중구연으로 나누어지고, 홑구연은 외반된 것 (1호)와 직립한 것(1호,2호) 등으로 나뉘어지며 단순무문토기 3점(1호-2점, 2호)과 공열문이 장식된 것으로(1호)구분된다. 이중구연토기는 단사선이 시문된 것(교동 1호), 거치문이 시문된 것(5호 · 6호) 이중구연토기(3호) 등 4점이 출토되었다.

홑구연의 심발형토기는 외반구연 공열토기 1점(1호) 무문양 심발형토기 3점(1호-2점, 2호) 등이 있다. 무문양 심발형토기는 전체적으로 몸통이 긴 장동형으로 기형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2점은 몸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벌어져 올라오다가 구연부와 연결되는 한편, 1점(2호)은 몸통 중앙 밑에서부터 좁혀지면서 구연부와 연결되며 3, 6호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의 기형과 유사하다. 홑구연 심발형 토기 중 외반구연을 가진 교동 1호주거지의 공열토기는 장동형으로 길고 구연부는 외반하였다. 구연부 아래에는 교차하는 단사선문을 돌린 후 그 선이 이루는 사이사이의 예각에는 공열문을 투공하였는데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되게 뚫었다.

교동 유적에서 출토된 심발형의 이중구연토기는 주거지 별로 토기의 기형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데 교동1호, 5호, 6호와 3호 형태로 기형변화가 있음이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몸통이 둥글고 약간 내경하는 형태에서 점차로 몸통이 좁혀지면서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는 기형적인 변화와 기고 및 저부도 점차적으로 작아져 기형이 점차적으로 안정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이중구연과 공반되는 문양요소의 변화도 동반하는데 이중구연 단사선-이중구연 거치문-단순 이중구연의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나. 壺形土器

교동주거지에서 출토된 호형토기는 완형 2점과 도상 복원된 토기 1점 등 3점이다. 구연부의 형태는 1호 유물은 거의 직선으로 외반한 상태이고, 5호 유물은 직립하다가 구순에서 약간 외반한 상태이고, 1호 도면 복원 유물은 직립한 상태이다. 몸통은 중앙부분에서 최대경을 형성하고, 형태는 구형에 가깝다.

다. 鉢形土器

교동 1호주거지에서 1점, 2호주거지에서 1점, 5호주거지 1점 등이다. 1호와 5호주거지에서 출토

된 2점은 몸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바라지면서 올라가다가 구연부와 연결되며, 2호 주거지 출토품은 구연부부터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몸통과 바닥의 접합부에서 축약되어 바닥과 연결되며, 전체적으로는 몸통이 둥근 형태이다. 교동 1·5호 주거지의 넓은 바리는 신석기시대부터 출토되고 있는 동북지방의 평저 심발형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서포항 신석기시대 3기층[41]과 회령 오동유적[42], 나진 초도유적[43] 출토품과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2호주거지 출토 토기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함경남도 심포시 강상리유적[44] 출토 토기와 그 형태적 유사성이 보여진다.

② 紅陶(臺附小壺)

홍도(대부소호)는 교동 1호에서 완형으로 1점이 출토되었고, 1호·5호·6호에서 각각 대각이 1점씩 출토되었다. 1호주거지 출토 완형의 대부소호는 목은 길게 곧게 섰으며 입술끝에서 짧게 외반한다. 토기의 외면은 붉은 점토칠을 한 후 마연하였다. 이러한 덧칠현상은 1차적으로 토기를 제작한 다음 붉은 점토칠을 토기의 내·외면에 칠한 다음 재벌구이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5]. 기벽은 3~5㎜ 정도로 얇고 바탕흙은 정선된 진흙에 미세한 운모가루와 석영이 섞여 있다.

〈표 2〉 교동 주거지 출토 토기 집계표

주거지	無文土器									대부소호(紅陶)	
	A. 深鉢形					B. 壺形			C. 鉢形	豆形굽다리잔	목항아리
	홑구연		이중구연			直立口縁	外反口縁	內傾口縁			
	①	②	①	②	③						
	무문	공열	이중구연	단사선	거치문						
1호	2	1		1		1(1)			1	1 대각편(1)	
2호	1								1		
3호			1								
4호											
5호					1	1			1	대각편(1)	
6호					1					대각편(1)	
계	3	1	1	1	2	2(1)			3	1 대각편(3)	

41) 김용간·서국태, 1972.『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42) 도유호, 1960.「회령오동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7.
43) 도유호, 1956.「나진 초도 원시유적 발굴 보고서」『유적발굴보고』1.
44)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조선유적유물도감』,동광출판사,pp. 03-105.
45) 최몽룡외, 1997.『남한강유역의 선사문화』, 서울대학교박물관.

(2) 石器類

교동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기의 종류별 수량은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많지 않으나 무문토기 주거지에서 흔히 나오는 일반적 특성을 가진 석기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석기들은 삼각형 및 삼각만입촉, 반월형석도, 방사선이 시문된 방추차, 석부 등 두만강 유역의 동북지방계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반월형석도

주거지에서 나온 반월형석도의 각 형식별 분포는 2점과 어형 2점, 어형이 주류를 이루는 조양동 출토품과 주형이 주류를 이루는 방내리와 포월리 출토품의 형식적 차이는 두 유적에 년대 차가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석촉

교동에서는 삼각형만입촉 3점, 이단경촉 1점이 출토되었다.

다. 방추차

토제품과 석제품이 있다. 토제품 중에는 단면이 평편한것(원판형), 주판알모양(산주형), 단면 한쪽면이 볼록한것(만두형)이 출토되고 있는데 교동과 조양동유적에서는 만두형과 산주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교동유적 출토품 중 방사선문이 시문된 형태의 방추차는 두만강유역[46]의 동북지방 문화요소와 같은 형태이다.

라. 어망추

토제품과 석제품이 있으며, 석제품은 신석기시대의 어망추와 같이 납작하고 자름한 돌의 양면을 타격하여 홈을 만들어 실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토제품은 구형, 산주형, 원통형이 있다. 특이한 점은 교동유적에서는 토제 어망추가 한지점에서 16점이 출토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작은 그물이 썩어 어망추만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토제 어망추와 석제 어망추가 공동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6) 두만강유역인 함북 굴포리 서포항 신석기시대층, 함북 청진 농포리 신석기유적, 함북 회령 오동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출토 예가 보이고 있다.

〈표 3〉 교동 주거지 출토 석기 집계표

종류별 / 주거자별	석부	석착	半月形石刀			갈돌		紡錘車					漁網錘			石鏃				지석	돌대패
								토제			석제		토제		석제						
			魚形	舟形	櫛形	판	돌	원판형	만두형	산주형	원판형	만두형	원통형	구형	실결이형	三角形	三角形灣入	一般經鏃	二般經鏃		
1호			1	1	1				9			2		15	2		3		1	4	1
2호				1											1					3	
3호														1			1			19	
4호	1								1											4	1
5호						1					(2)									4	1
6호															1					3	
계	1		1	2	1	1			10		(2)	2		16	4		4		1	35	3

3) 編年 및 周邊地域과의 關係

교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으로 발굴조사 결과 장방형주거지 3기, 방형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풍화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고, 바닥은 진흙을 깔아 다지거나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주거지의 내부 시설로는 기둥구멍, 탄화기둥, 노지, 저장공 등이 조사되었고, 1호주거지의 남동벽 모서리 저장공 옆에서 바닥 보다 약간 아래에서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탄화미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영동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이른 시기부터 정착농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동 1호주거지의 노지는 방형으로 할석을 돌린 소위 위석식노지[47]로 위석식노지는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며, 청동기시대의 위석식노지는 앞의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한지역의 청천강유역과 대동강유역, 남한지방의 금강유역을 중심으로한 가락동유형의 유적에서 礎盤과 함께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석식노지를 갖춘 장방형의 주거지에서는 주로 이중구연 단사선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충청 내륙지역의 장방형주거지를 가락동유형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 분포범위를 임진강유역부터 한강유역, 대전을 비롯한 중서부지역으로 파악하고, 유물의 출토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연원을 압록강유역의 신암리 2문화층으로 보고 있다[48]. 또한 장방형의 형태에 위석식노지와 초반을 갖춘 주거지의 계통적 기원을 청천강~대동강유역의 '대평리 유형' 에 두는 견해[49]도 있다.

47) 임윤미, 1990.「한국선사시대 노지연구」『숭실사학』6.
48) 박순발, 1999.「흔암리유형 형성과정 재검토」『호서고고학』창간호, 호서고고학회, p.85.

교동유적에서 보여지는 토기의 양상은 전체적으로 심발형의 이중구연토기와 공반 출토된 적색마연토기(대부소호)와 鉢(넓은 바리) 등은 동북지방 신석기시대 후기적 토기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서 인식되며, 이중구연토기에 단사선과 거치문이 시문된 형태와, 홑구연 심발형토기, 공열토기, 직립구연의 호형토기 등 서북한지방 각형토기 단계의 이중구연토기요소가 보이고 있어 교동유적은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토기의 전통과 새로이 전래된 서북지방의 순수 각형토기 단계의 토기요소 및 두만강유역의 동북지방에서 보여지는 석기양상이 보여지고 있어 두 문화요소가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시점으로 여겨진다.

교동 출토 이중구연토기는 서북지방의 각형토기가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토기로 이중구연에 가해지는 단사선의 시문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교동 1호주거지 출토 각형토기는 평양 시중 금탄리나 평양 남경유적에서 출토된 각형토기와 비교해 볼 때 기형 면에서나 단사선을 시문한 점, 저부가 약간 넓어져 안정적인 점 등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단지 교동 1호주거지의 몸통의 약간 더 부풀어 올라 있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5호와 6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토기는 각형토기 단계에서 변형 각형토기 단계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며, 3호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는 변형 각형토기로 가락리유형 토기와는 약간의 기형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동 유적의 이중구연토기를 기형면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몸통이 부풀고 약간 내경하는 형태에서 점차로 몸통이 좁혀지면서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는 기형 및 크기의 변화가 보인다. 이것은 이중구연과 공반되는 문양요소의 변화와도 연관성이 보이는데, 이중구연 단사선-이중구연 거치문-단순 이중구연의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교동 유적에서 보여지는 각각의 이중구연토기간에 시기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0]

교동 1호주거지 출토 공열토기중 완형은 외반된 구연을 가진 장동형의 공열토기이며, 2점의 구연부편은 직립구연의 심발형토기로 여겨지며, 孔列은 모두 밖에서 안으로 뚫은 半貫通된 토기이다[51]. 교동유적의 공열토기의 형태와 문양면에서 같은 토기는 서북지방의 세죽리토기와 동북지방의 영흥유적 출토 공열토기로 직립구연 심발형토기의 구연부에 가로 돌아가면서 서로 교차하는 斜格線을 새기고 사선이 교차하여 이루는 銳角 사이에 구멍을 관통되게 하나씩 뚫어 놓은 형태로, 구연

4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청주 용암유적』p.580.

50) 각형토기가 출토된 교동 1호와 3호주거지의 연대는 탄소측정연대상 약 1백 년 가량의 시기차가 보인다.

51) 공열토기는 동북지방에서는 서포함 IV기층에 처음 보이는 문양인데 동유형의 토기는 두만강유역의 동북지방 무산 호곡동 I 기층 1호와, 무문토기시대의 회령 오동 유적, 압록강유역의 서북지방 강계 공귀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서북지방의 평북 세죽리 유적, 동해안 지역의 북청군 중리 유적, 함흥 영흥유적에서 출토된 공열토기는 관통된 상태이다.

의 차이는 있지만 공열이 시문된 방법은 같다. 한편 공귀리 유적에서는 외반된 구연에 공열이 투공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52].

교동 5호 출토 호형토기[53]는 목이 길고 직립구연의 형태로 이러한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는 서북지방의 압록강유역 강계 풍룡리의 석관묘에서 나온 토기가 있는데 높이는 20cm이고, 손잡이 한쌍이 고리 손잡이 형태로 붙였는데 구멍은 뚫리지 않았다.[54] 한편 1호 주거지 출토 호형토기는 구연부가 거의 직선으로 외반한 형태로 미송리형토기[55]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부소호는 완형 1점과 대부소호 대각 3점이 출토되었다. 1호주거지 출토 완형의 대부소호는 이전에 보고되었던 구연부가 짧고 바로 몸통으로 이어지며 길고 가는 대각 내부에 원통형 구멍이 깊숙하게 뚫린 형태와 짧은 대각에 길고 갸름한 동체부를 가진 형태의 대부소호와는 달리 목이 긴 상태로 곧게 섰으며 입술끝에서 짧게 외반한다. 배가 부른 동체부에 연결된 대각은 짧고 두툼한 편이며, 내부에는 얕은 구멍이 뚫려 있다.

나머지 3점의 대각 중 1호 출토품은 대각이 직선적이며, 나머지 2점은 두툼한 형태로 비스듬하게 내려오면서 저부와 연결된다. 전체적으로 대부소호 대각은 길어지면서 저부는 넓어져 안정되어져 간다.

석기는 석촉, 석도, 방추차, 어망추,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방추차는 한면이 볼록하고 방사선문이 새겨져 있는 것과 납작한 형태의 두 형태가 모두 보여 두만강유역과 서북지방 문화가 접촉 ·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월형석도는 어형, 장주형 등이 출토되었다. 압록강유역의 서북지방과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석촉은 삼각형만입촉, 이단경식, 반월형석도는 어형, 장주형 등이 출토되었다.

교동유적과 유구의 형태나 유물의 출토상이 비슷한 변형각형토기 유적인 가락동 유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편년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락동유형은 한강유역과 특히 대전 ·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유역권[56]에서 높은 밀집도를

---

52) 임병태, 1996.「한국 무문토기의 연구」『한국 청동기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pp.138~150.

53) 청동기시대 호형토기는 둔산 1호주거지와 삼거리 9호주거지에서는 호형의 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었고, 교동 1호 · 5호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삼거리 9호주거지와 진주 상촌리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는 직립구연의 호형토기, 삼거리 9호주거지에서는 파수부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54) 도유호, 1994.「청동기시대」『조선원시고고학』,백산자료원, pp.184-189.

55) 金貞培, 2000.「所謂 美松里型土器의 新例-高麗大學校 博物館 新收遺物에 대하여」『鶴山 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韓國古代史와 考古學』刊行委員會, 學研文化社.
고려대 신수유물 중 D-3236 토기는 손잡이가 붙은 약간 변형된 미송리형토기로 보여지며, 구연부가 길게 외반한 점과 동체부가 구형인 점 등 형태상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56) 역삼동 · 흔암리유형은 현재까지 강원 중부동해안유역, 한강유역(북 · 남한강 유역)과 경기 남부의 안성천유

보이고 있으며, 대전 둔산유적[57], 용산동[58], 노은동유적[59], 궁동유적, 상서동유적, 청주 내곡동유적[60], 청주 용암유적[61], 익산 영등동유적[62], 청주 봉명동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 내부에는 위석식 노지가 1~2개가 확인되고, 柱礎石式 기둥, 저장공 등이 보이며, 호남지방의 익산 영등동 유적에서는 벽구(溝)가 확인되고 있어 교동 유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토기는 변형 각형토기단계로 가락동[63]은 심발형의 이중구연 단사선문과 호형 이중구연토기가 확인되었다. 청주 용암유적[64]은 이중구연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문, 이중구연 단사선문 구순각목으로 구분되며 기종은 옹형 및 심발형이 주류를 이룬다. 익산 영등동유적[65]에서는 심발형의 이중구연 단사선문, 이중구연 구순각목 거치문 등의 가락리식의 변형각형토기만 출토되었다. 대전 둔산[66]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호형과 심발형의 2종류이며, 연천 삼거리유적[67]에서도 심발형과 호형의 2종류가 출토되었다.

유물면에서는 교동유적에서는 1호주거지에서 이중구연토기와 공열토기가 공반출토괴고 있는데, 가락동유형에서는 이중구연토기만 출토되고 있으나. 이중구연토기에 결합되는 요소인 단사선문, 거치문 등 문양요소가 비슷하다.

그러나 토기의 기형상으로 보면 교동단계의 이중구연토기는 서북지방의 순수 각형토기단계 토기들과 유사하거나 약간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락동유형의 변형각형토기는 교동단계의 각형토기와도 기형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락동 유형은 심발과 호형이 출토되고 있고, 심발형도 교동단계 보다는 기형상으로 퇴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시기차로 보인다. 한편 교동유적의 공열토기 또한 외반된 구연을 가진 장동형의 공열토기로, 전형적인 심발형의 공열토기 보다는 이른 시기의 토기로 여겨진다. 또한 대부소호 역시 가락동유형에서는 무문의 두형토기 대각이 확인되고 있어 교동유적에서 보여지는 적색마연토기 대부소호와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역, 충남북부의 곡교천 유역, 남부지방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금강유역에서는 현재 발견 예가 없다.

57) 이강승 · 박순발, 1995.『둔산』 충남대학교 박물관.

58) 충남대학교박물관, 1998.「대전과학산업단지내 용산동 토취장 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59)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대전 노은동유적 발굴조사보고』

60) 차용걸, 1986.「청주내곡동유적」,『중부고속도로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6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청주 용암유적』

62) 원광대학교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00.『익산영등동유적』

63) 김정학, 1963.「광주 가락리 주거지 발굴보고」『고문화』2.

6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청주 용암유적 - 현장설명회자료」

65)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00.『익산 영등동유적』

66) 이강승 · 박순발, 1995.『둔산』, 충남대학교 박물관.

67) 경기도박물관, 2002.『漣川 三巨里遺蹟』

교동유적에서 보여지는 이중구연토기와 공열토기의 조합은 현재까지의 자료가 미약하여 정확한 가정은 어려우나 아마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이른시기부터 이중구연토기와 공열토기가 각각의 특성을 보유한 상태로 같은 유적 내에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교동유적에 전파된 각형토기의 이동경로는 영동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인 양양 지경리[68] 유적에서 보여지는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 신석기시대 주거지[69]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형과 문양면에서 유사한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신석기시대부터 서북지방의 토기와 석기 등의 문화요소가 영동지역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탑리나 남경유적 출토 각형토기는 기형면이나 단사선이 시문된 것 등 교동 1호주거지의 토기와 유사하며, 각형토기가 전파되는 이동경로는 위의 신석기시대의 이동경로인 대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용흥강을 따라 영흥을 거쳐 원산으로 내려오는 경로로 여겨지며, 교동 토기나 가락동 유형의 이중구연토기는 전파루트상 약간의 공간적[70] · 시기적인 차이를 가지고 원산만을 통해서 각각 임진강 상류와 동해안의 루트를 타고 정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락동유형의 절대연대에 있어서는 기원전 10~8세기[71], 기원전 9~8세기경[72], 기원전 10세기 전반경으로 소급될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73], 최근 교동 유적과 유사한 금강유역의 가락동 유형의 절대연대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기원전 13세기에서 기원전 9세기로 설정하고 있다[74].

교동 유적의 절대연대자료[75]는 B.C 1600~1,300년으로 상정되어 금강유역의 자료들보다 높게

---

68)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주문진-인구간 7번국도 확장공사구간(지경리)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지경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10기, 철기시대 주거지 7기가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未刊이다.

69) 황기덕 · 도유호, 1961.「지탑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유적발굴보고』8.
지탑리유적 에서는 두개의 문화층 즉 파상점선문 토기층과 각형토기층이 사이층을 두고 확인되고 있어 북한에서는 청동기 시대 연대 문제에 처음으로 청동기시대의 상대연대를 주장하게 되었다.

70) 현재 강원도지역(영서 · 영동지역) 에서는 가락동 유형의 유적은 교동유적 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71) 이청규, 1988.「남한지방 무문토기 문화의 전개와 공열토기 문화의 위치」『한국상고사학보』제1호, 한국상고사학회.

72) 이강승 · 박순발, 1995.『둔산』p.293.

73) 박순발, 1999.「흔암리유형 형성과정 재검토」『호서고고학』창간호, p.85, 호서고고학회.

74) 이형원, 2002.「한국 청동기시대 전지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가락동 유형에 대한 편년에 대해서 I 기는 B.C 13세기~전반 10세기 전반(중심연대 11세기 초), II기는 B.C 12세기 후반~9세기 중반(중심연대 10세기 초), III기는 B.C 11세기 후반~8세기 전반(중심연대 9세기 초)로 폭 넓게 상정하고 있다.

75) 교동 주거지 출토 목탄시료에 대한 문화재연구소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1호주거지는 3390±60B.P(B.C 1770-1520), 2호주거지는 3100±50B.P(B.C1500-1200), 3호주거지는 3230±50B.P(B.C 1620-1400)로 측정되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가락동토기가 출토되는 각각의 주거지 사이에도 약간의 시기차를 가지고 있고, 가락동토기가 공반되는 주거지(1 · 3호)와 공반하지 않은 주거지(2호)와의 시기 차이가 있음이 보여진다.

나왔으나. 현재 영동지역을 포함한 강원도지역에서는 가락동유형의 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시기설정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가락동 유형의 유적과 유구의 형태나 유물의 속성이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슷한 시기에 전파루트상의 지역적인 차이를 두고 각각의 지역에 유적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2. 유천동 폐와요지

와요지는 동-서방향으로 구릉의 방향과 나란하게 마련되었으며, 회구부는 동편에, 연도부는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가마의 천정부는 붕괴되어 소실되었다. 전체길이는 7.8m 최대폭 1.7m, 최대높이 1.2m이다.

소성실은 천정부가 붕괴되어 양쪽 측벽에 일부분만 남아 있고, 벽면은 회청색의 점토가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다. 바닥은 회청색 진흙이 깔려 있으며, 기와가 출토되는 지점부터는 적갈색 진흙층이 약간 단을 져서 형성되어 있다. 전체길이 4.5m, 폭 1.5~1.7m, 최대높이 1.2m이다.

소성실과 연도부와의 경계에는 평기와가 남-북방향으로 놓여져 있고, 가로방향으로 수키와 5점이 나란히 놓여 있다. 연도부는 소성실과의 경계지점에서 약간 잘록해진 다음 북쪽으로 치우쳐 형성되어 있다. 연도부는 현재 동 · 서벽과 바닥의 일부분이 남아 있으며, 바닥은 불에 맞아 적갈색 소토화되었고, 기와조각들이 약간 깔려 있다. 연도부 최대길이 5.1m, 폭 2.1~3.1m, 깊이 10㎝이다.

와요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무문 평기와로 모두 근대에 제작된 것이다.

Ⅵ. 맺음말

강릉시 교동 2지구 택지개발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결과 교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6기와 유천동 폐와요지 1곳을 발굴 조사하였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장방형 주거지 3기, 방형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다. 교동 주거지는 풍화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바닥은 진흙을 깔아 다지거나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長軸방향은 동-서 방향(1호, 2호), 남서-북동 방향(3호, 4호), 남-북 방향(5호, 6호)로 나타나며, 면적은 15~48㎡(약 4~27평)으로 다양하다.

주거지의 내부 시설로는 위석식노지, 저장공, 탄화된 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1호 주거지의 경우, 진흙으로 뒷채움한 판자벽, 기둥, 저장구덩이, 작업대 등이 양호한 상태로 노출되어 청동기시대 초기의 가옥구조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출토유물은 10점의 完形을 포함한 토기류와 석기류, 탄화미 등이 출토되었는데,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탄화미는 탄소연대측정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南韓의 청동기시대의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토기는 순수겹아가리(二重口緣)토기와 겹아가리에 빗금무늬(短射線文)·톱니무늬(鋸齒文) 등이 장식된 토기와 목항아리, 넓은 바리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1호 주거지에서는 유일하게 구멍무늬토기(孔列土器) 1점과 목긴굽다리잔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출토양상은 전체 토기조합상, 서북지방의 각형토기(角形土器)단계의 겹아가리토기와 순수구멍무늬토기,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부터 보여지는 넓은 바리 등 청동기시대 전기무문토기 유적에서 볼 수 없는 토기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주거지별로 보면 1호 주거지는 겹아가리에 빗금무늬가 장식된 깊은바리, 깊은바리에 구멍무늬토기, 심발형토기, 발, 직립구연의 호형토기, 대부소호 등 기종이 다양하며 이는 5호 주거지의 겹아가리톱니무늬의 심발형토기, 직립구연의 호형토기, 발, 대부소호 저부편의 출토양상과 비슷하다. 나머지 주거지에서는 직립구연의 호형토기, 발, 겹아가리톱니무늬 겹아가리토기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석기로는 어형과 장주형의 반달돌칼, 삼각만입형·이단경식의 석촉, 토제·석제 어망추, 만두형과 산주형의 방추차, 작업대, 지석, 돌도끼, 돌대패 등이 출토되었다.

교동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방형 또는 장방형의 청동기시대 전형적인 주거형태로 장방형의 큰 주거지에 인접하여 방형의 작은 주거지가 한 세트로 조사되어 청동기시대 사회문화 및 촌락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의 양상을 살펴보면 순수 이중구연토기와 이중구연에 단사선문 또는 삼각거치문이 시문된 심발형 토기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들 토기 유형은 동북지방의 신석기시대 말기나 청동기시대의 아주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양상으로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시기의 문화양상과 전파경로를 밝혀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한편 5호 주거지의 동북모서리에서 노출된 판자벽과 기둥, 저장공과 토기 노출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사회문화와 건축사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주거지를 전사하여 현재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이전하였다.

參 考 文 獻

高麗大學校埋藏文化硏究所, 2001.『黃灘里遺蹟』

鮮文大學校 · 慶尙南道, 2001.『晉州 大平里 玉房5地區 先史遺蹟』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익산 영등동 유적』

忠南大學校博物館, 1995.『屯山』

_____, 1998.『大田老陰洞遺蹟發掘調査報告』

_____, 1998.「大田科學産業團地內 龍山洞 土取場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_____, 1998.「대전 궁동(弓洞)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_____, 2002.『龍山洞』

忠北大學校博物館, 2001.『충주 조동리 선사유적(Ⅰ)』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淸州 龍岩遺蹟』

車勇杰, 1986.「淸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 報告」『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淸州 龍岩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 慶尙南道, 1999a.「上村里遺蹟B」『漢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尹武炳, 1986.「淸州 香亭 · 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中部高速道路 文化遺 蹟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朴淳發, 1999.「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湖西考古學』創刊號, 湖西考古學會.

성정용, 1997.「大田 新岱洞 · 比來洞 靑銅器時代遺蹟」『호남고고학의 제문제』, 第 21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李白圭, 1974.「京畿道 無文土器 · 磨製石器」『考古學』第 3輯, 韓國考古學會.

李淸圭, 1988.「南韓地方 無文土器 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韓國上古史學報』第 1號, 韓國上古史學會.

曺永鉉, 1993.「金陵 松竹里遺蹟 發掘調査」『三韓社會와 考古學』第 17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韓國考古學會.

韓永熙, 1983.「角形土器考」『韓國考古學報』14 · 15, 韓國考古學會.

李亨源, 2002.「韓國 靑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이순진, 1965.「신암리유적 발굴 중간보고」『고고민속』65-3, 사회과학원출판사.

정찬영, 1974.「북창군 대평리 유적 발굴 보고」『고고학자료집』4, 사회과학출판사.

황기덕, 1975.「무산 범의 구석유적 발굴 보고」『고고민속론문집』75-6, 사회과학출판사.
김용남 · 김용간 · 황기덕, 1975.『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김정문 · 김영우, 1964.「세죽리유적 발굴중간보고서(1)」『고고민속』2호, 사회과학원출판사.
_____, 1964.「세죽리유적 발굴중간보고서(2)」『고고민속』4호, 사회과학원출판사.
안영중, 1996.「북청군 중리유적」『고고민속』1966-2, 사회과학원출판사.
김종혁, 1996.「표대부락터유적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96-2, 사회과학출판사.
서국태, 1996.「팽이그릇문화의 편년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96-2, 사회과학출판사.

부 록

Ⅰ. 강릉 교동유적 출토 탄화미 분석

강릉 교동유적 출토 탄화미 분석

安承模(원광대 인문학부)

1. 자료

교동 1호주거지는 위석식노지가 있는 장방형주거지로 탄화미는 남동벽 모서리 저장공 옆 바닥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1호주거지에서는 팽이형토기에 가까운 이중구연토기와 공열토기가 공반되어 영동지역에서 가장 이른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탄화미까지 출토되어 의외로 영동지역에서 벼농사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청동기시대 벼농사의 한반도 내 전래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교동 탄화미를 주목한 바 있는데 강릉대박물관 쪽에서 얼마전 탄화미 분석을 필자에게 의뢰하여 계측치를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여기에 보고한다. 강릉대박물관에서 필자에게 전해진 탄화미 자료는 골라진 탄화미 5천알 정도와, 탄화미가 숯과 흙이 섞여 있는 채로 남아있는 미분류된 토양이다.

2. 분석 및 결과

탄화미는 玄米로 보이는데 絶米도 약간 섞여 있으며 표면(果皮)이 마치 구멍난 것처럼 조금씩 떨어져 나간 것도 많다. 부러진 것 중에는 胚乳가 비어있고 果皮와 種皮만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불완전연소로 배유까지 탄화되지 않아 탄화된 부분만 남아 생긴 현상으로 추측된다. 저장공 주변에서 출토되었다면 껍질(穎)이 붙은 낟알, 즉 볍씨 채로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탄화미 시료 일부를 20배까지 확대 관찰하여 보았으나 뚜렷한 볍씨 흔적은 찾지 못하였다. 받침껍질(護穎)이 붙어 있는 것이 몇 알 있기는 하였으나 탈곡 과정에서 남은 것일 수도 있기에 그것만으로 볍씨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어렵다. 탄화된 벼껍질은 쌀에 비해 잘 부스러지고 물체질 과정에서 놓칠 수도 있어 미분류된 토양 일부를 직접 물체질하여 껍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벼껍질은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동의 벼자료가 볍씨보다 현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좀더 세부적인 관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의 벼재배 기술수준에서는 벼 외에 피 등의 잡초 종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잡초 종자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탄화미 5천여립중 5%인 250알 정도면 표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수량이기에 임의로 277립을 골라 dial gauge와 실물환등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표본량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개별 계측은

0.1mm 단위까지만 하였다. 계측결과는 〈표 1〉과 〈표 3〉에 나타나 있는데 탄화미의 길이는 3.3~5.0mm로 평균은 4.26±0.32mm이며, 폭은 1.9~3.1mm로 평균 2.59±0.20mm, 두께는 1.2~2.3mm로 평균 1.90±0.14mm이다. 장폭비는 1.38~2.13의 평균 1.65±0.12로 단립형의 자포니카 범주에 속한다. 탄화미에는 외관으로 보아 길이 3.6mm, 폭 2.3mm 미만의 小粒米가 소량 섞여 있는데 길이의 히스토그램이 연속적인 정규분포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소립미를 별도의 품종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히스토그램의 구간폭을 1mm로 하였을 때는 3.9mm, 4.3mm에서 약간의 들어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연속된 정규분포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고찰

탄화미의 길이는 3.3mm에서 5.2mm로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길이를 포함하여 폭, 두께, 장폭비 모두가 정규분포에 접근하여 한 모집단에서 수확하여 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길이의 분포가 넓고 약간 불규칙한 것은 당시 재배방법이 조방적이며 품종의 순계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혼합집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른 청동기시대 유적의 예를 보면 조, 수수, 기장과 더불어 각종 麥類와 豆類도 당시에 재배되고 있었는데 교동유적에서는 벼 외의 다른 작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은 것은 의외이다. 작물의 수확계절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저장방법 등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는 추후 연구과제이다.

〈표 2〉에는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미의 평균 계측치 자료를 모아봤다. 소립형에 가까운 여주 흔암리 탄화미를 제외하면 청동기시대 탄화미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크기를 보인다. 가장 큰 크기를 보이는 충주 조동리 탄화미는 米幅 평균이 2.89로 보고되었는데 같은 유적 출토 볍씨의 평균 폭이 2.52인 점을 감안하면 계측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동리유적은 위석식노지, 가락동식토기, 공열토기 등에서 교동 1호주거지와 문화적으로 가까운 양상을 보이므로 탄화미의 정확한 계측이 요구된다. 교동 탄화미는 길이에서 평양 남경이나 부여 송국리와 비슷하나 폭이 다른 유적의 탄화미보다 0.1mm 이상 크다. 앞의 실측치가 애매한 조동리를 제외하면 청동기시대 탄화미에서는 가장 큰 폭을 나타낸다(단 교동의 탄화미 겉면에는 가는 점토가 마치 코팅된 것처럼 눌러 붙어 물에 씻어도 떨어지지 않은 것이 꽤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한 온전한 탄화미를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더라도 0.1mm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장폭비로 볼 때 교동의 탄화미는 단립형의 자포니카에 가까우며 대취자, 남경, 송국리, 원북리보다도 장폭비가 적다(그림 7).

〈그림 7〉과 〈그림 8〉의 ⑩, ⑪, ⑫는 현생 품종이다. ⑩의 아키바레는 자포니카의 단립형 논벼이며, ⑪의 남풍은 장립형 논벼, ⑫의 한강찰벼는 자포니카의 대립형 밭벼이다. 청동기시대의 탄화미

는 모두 아키바레와 같이 단립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옥천 대천리의 신석기시대 탄화미 역시 단립형에 속한다. 그런데 볍씨에서는 일산, 김포의 신석기시대 토탄층에서도 그렇고 조동리에서도 인디카에 가까운 장립형과 열대형 자포니카에 가까운 대립형이 보고되고 있다. 볍씨의 경우 통계적 평균치가 아닌 개별 낟알의 계측치여서 그런 착각(?)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탄화미에서는 아직 장립형과 대립형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교동 1호주거지는 대취자 3호주거지, 남경 36호주거지, 흔암리 12호주거지, 조동리유적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하는 유적이다. 탄화미의 입형으로 보면 흔암리와는 거리가 있고 대취자, 남경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교동의 이중구연토기는 가까이는 대동강유역의 팽이형토기, 좀더 멀리는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고려할 때 교동의 탄화미도 이들 지역에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교동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가 이르게 나오고 토기양상도 남한지방 공열토기, 이중구연토기의 원초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한 청동기시대의 재배벼 품종 중 적어도 일부는 영동지역을 거쳐 도래되었을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요약

교동 1호집터에서 출토된 수천립의 탄화미중 277립을 계측한 결과 길이는 4.26±0.32mm, 폭은 2.59±0.20mm, 두께는 1.90±0.14mm이다. 장폭비는 1.65±0.12로 다른 청동기시대유적 출토 탄화미와 더불어 단립형의 자포니카 범주에 속한다.

〈표 1〉 교동 탄화미 계측치 Kyodong old rice Descriptive Statistics

	N	Min	Max	Mean	S.D.
LENGTH	277	3.3	5.0	4.265	.317
WIDTH	277	1.9	3.1	2.590	.197
THICK	277	1.2	2.3	1.899	.138
L/W	277	1.38	2.13	1.651	.121
LW	277	6.27	15.19	11.083	1.450
LWT	277	9.36	33.42	21.135	3.665

〈표 2〉 청동기시대 탄화미 계측치 비교

유적	수량	길이mm	폭mm	두께mm	장폭비	장폭적	연대bp
강릉 교동	277	3.3-5.0	1.9-3.1	1.2-2.3	1.38-2.13	6.27-15.19	
1호집터		(4.27±0.32)	(2.59±0.20)	(1.90±0.14)	(1.65±0.12)	(11.09±1.45)	3390±60
요동 大嘴子	42	4.1-5.0	2.2-2.6	1.5-2.2	1.56-2.00		
3호집터		(4.48)	(2.43)	(1.85)	(1.87)	(10.89)	3043±75
평양 남경	53	3.95-4.75	2.0-3.1		1.35-2.00		
36호집터		(4.20)	(2.48)		(1.70)	(10.42)	2889±70
	20	(4.5)	(2.5)		(1.8)	(11.25)	
여주 흔암리	35	3.1-4.5	1.6-2.8	1.3-2.0	1.25-2.14	5.89-11.18	
12호집터		(3.72±0.33)	(2.23±0.30)	(1.69±0.18)	(1.62±0.19)	(8.59±1.23)	2980±70
14호집터	3	(3.73±0.32)	(2.17±0.16)	(1.80±0.20)	(1.74±0.10)	(8.19±1.35)	2145±60
부여 송국리	100	2.8-4.9	1.7-2.8	1.3-1.9	1.70-1.94	9.29-11.01	2565±90
54-1호집터		(4.20)	(2.37)	(1.68)	(1.79)	(9.97)	2665±60
	122	(4.02±0.37)	(2.34±0.27)	(1.59±0.23)	(1.73±0.12)	(9.50±1.71)	
54-13호집터	10	(4.53)	(2.58)	(1.81)	(1.76)		
충주 조동리	27	3.7-5.5	2.2-4.4		1.23-2.04	8.8-21.2	2995±135
유적(복합)		(4.06±0.39)	(2.89±0.41)		(1.62±0.19)	(11.95)	2700±165
논산 원북리	3	4.4-4.7	2.4-2.5	1.8-2.1	1.80-1.90		(송국리형)
다-3호소성유구		(4.55)	(2.48)	(1.98)	(1.87)	(11.28)	
일본 구주	12	3.9-5.4	2.2-3.1		1.52-1.95		
나바타케유적		(4.73±0.43)	(2.76±0.27)		(1.72±0.13)	(13.05)	2680±80
	155	(4.11±0.35)	(2.45±0.23)	(1.93±0.22)	(1.69±0.17)	(10.1±1.5)	
일본 구주	30	3.2-4.7	1.8-3.0		1.36-2.13		
이타주케유적		(4.00±0.52)	(2.46±0.25)		(1.63±0.21)	(9.84)	죠몬말

〈표 3〉 교동1호집터 출토 탄화미 측정값

Case Summaries

	Length	Width	Thick	L/W
1	4.1	2.4	1.9	1.71
2	3.7	2.5	2.0	1.48
3	4.2	2.5	2.1	1.68
4	3.5	2.4	1.9	1.46
5	3.9	2.4	1.9	1.63
6	4.6	2.5	1.8	1.84
7	4.0	2.4	1.9	1.67
8	4.0	2.6	1.7	1.54
9	4.7	3.0	2.1	1.57
10	4.4	2.5	2.1	1.76
11	4.2	2.6	1.9	1.62
12	4.2	2.5	1.9	1.68
13	4.9	2.3	1.8	2.13
14	4.1	2.7	2.1	1.52
15	4.6	2.4	2.0	1.92
16	4.6	2.6	1.9	1.77
17	4.4	2.6	1.9	1.69
18	4.0	2.4	1.6	1.67
19	4.7	2.9	1.9	1.62
20	4.7	2.8	2.0	1.68
21	4.5	2.7	1.8	1.67
22	3.8	2.3	1.8	1.65
23	4.1	2.6	1.9	1.58
24	3.6	2.1	1.6	1.71
25	3.9	2.1	1.7	1.86
26	3.6	2.0	1.3	1.80
27	3.9	2.6	1.8	1.50
28	4.0	2.6	2.0	1.54
29	4.5	2.5	2.0	1.80
30	4.4	2.8	1.9	1.57

	Length	Width	Thick	L/W
31	4.6	2.7	2.0	1.70
32	4.5	2.9	2.2	1.55
33	4.6	2.9	2.0	1.59
34	4.4	2.9	2.0	1.52
35	4.0	2.6	1.8	1.54
36	4.4	2.5	2.0	1.76
37	4.8	2.7	1.9	1.78
38	3.9	2.5	1.8	1.56
39	4.1	2.7	2.0	1.52
40	4.5	2.6	1.7	1.73
41	4.1	2.6	1.7	1.58
42	4.3	2.5	1.9	1.72
43	4.4	2.8	1.9	1.57
44	3.6	2.5	2.0	1.44
45	3.7	2.3	1.7	1.61
46	4.6	2.7	1.9	1.70
47	4.2	2.6	1.8	1.62
48	3.8	2.3	1.9	1.65
49	4.5	2.7	1.9	1.67
50	4.0	2.6	2.0	1.54
51	4.0	2.4	2.0	1.67
52	3.7	2.5	1.7	1.48
53	4.6	2.7	2.0	1.70
54	4.4	2.5	1.8	1.76
55	4.7	3.0	2.0	1.57
56	4.5	2.6	1.9	1.73
57	4.6	2.8	2.0	1.64
58	4.0	2.8	1.9	1.43
59	3.8	2.3	1.8	1.65
60	4.3	2.6	1.9	1.65

	Length	Width	Thick	L/W
61	4.8	2.7	2.0	1.78
62	4.2	2.4	1.9	1.75
63	4.0	2.7	1.9	1.48
64	4.1	2.7	2.1	1.52
65	4.5	2.5	1.8	1.80
66	4.3	2.7	1.8	1.59
67	4.6	2.6	1.9	1.77
68	4.1	2.5	1.9	1.64
69	3.5	2.1	1.5	1.67
70	4.1	2.5	2.0	1.64
71	3.9	2.2	1.6	1.77
72	4.4	2.6	1.9	1.69
73	3.8	2.3	1.9	1.65
74	4.5	2.8	2.0	1.61
75	3.8	2.4	1.7	1.58
76	4.3	2.7	1.9	1.59
77	3.5	2.2	1.8	1.59
78	4.7	2.7	1.9	1.74
79	4.4	2.5	1.9	1.76
80	4.0	2.4	1.8	1.67
81	4.4	2.4	1.9	1.83
82	4.5	2.8	2.0	1.61
83	4.6	2.8	1.9	1.64
84	4.4	2.7	2.2	1.63
85	3.6	2.3	1.5	1.57
86	4.6	3.0	2.1	1.53
87	4.1	2.5	1.9	1.64
88	4.6	2.6	1.9	1.77
89	4.4	2.9	1.8	1.52
90	4.0	2.5	1.9	1.60
91	4.2	2.7	1.9	1.56
92	4.8	2.5	1.8	1.92

	Length	Width	Thick	L/W
93	4.1	2.6	1.8	1.58
94	4.2	2.4	1.7	1.75
95	4.4	2.6	1.9	1.69
96	4.7	2.8	2.0	1.68
97	4.7	2.8	2.0	1.68
98	4.3	2.9	2.0	1.48
99	4.1	2.7	2.0	1.52
100	4.3	2.8	1.8	1.54
101	4.3	2.6	1.7	1.65
102	4.2	2.7	2.0	1.56
103	4.7	2.8	1.9	1.68
104	4.2	2.7	1.9	1.56
105	4.1	2.8	2.2	1.46
106	4.0	2.7	1.9	1.48
107	4.0	2.3	1.7	1.74
108	4.2	2.4	2.0	1.75
109	4.6	2.6	1.8	1.77
110	4.7	3.1	2.0	1.52
111	4.2	2.2	1.9	1.91
112	3.9	2.4	1.7	1.63
113	4.4	2.7	1.9	1.63
114	4.1	2.6	1.8	1.58
115	4.1	2.8	2.0	1.46
116	4.6	2.6	2.1	1.77
117	4.0	2.7	1.8	1.48
118	4.9	2.7	1.8	1.81
119	4.1	2.4	1.8	1.71
120	4.6	2.9	1.8	1.59
121	4.7	2.7	2.0	1.74
122	4.4	2.7	2.1	1.63
123	3.8	2.7	1.9	1.41
124	4.3	2.5	1.8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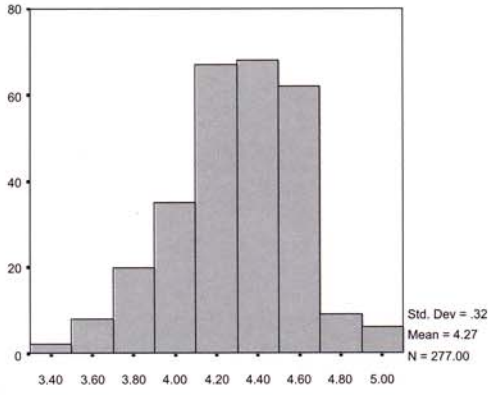
	Length	Width	Thick	L/W
125	4.5	2.7	1.9	1.67
126	4.5	2.8	2.1	1.61
127	4.7	2.8	1.8	1.68
128	4.2	2.6	1.9	1.62
129	4.5	2.7	2.0	1.67
130	4.5	2.7	1.9	1.67
131	4.2	2.7	1.9	1.56
132	4.7	2.7	1.9	1.74
133	4.2	2.6	1.9	1.62
134	4.9	2.3	1.9	2.13
135	4.4	2.6	1.9	1.69
136	4.3	2.6	1.9	1.65
137	4.0	2.8	1.9	1.43
138	4.2	2.9	2.0	1.45
139	4.2	2.8	2.0	1.50
140	4.1	2.5	1.9	1.64
141	4.5	2.8	1.7	1.61
142	4.2	2.7	1.9	1.56
143	4.5	2.3	1.9	1.96
144	4.1	2.7	2.0	1.52
145	4.4	2.9	2.0	1.52
146	4.1	2.5	2.0	1.64
147	4.4	2.6	2.0	1.69
148	4.8	2.8	2.0	1.71
149	4.4	2.6	2.1	1.69
150	4.3	2.5	1.8	1.72
151	3.8	2.2	1.8	1.73
152	4.1	2.5	1.9	1.64
153	4.4	2.3	1.6	1.91
154	4.1	2.6	1.9	1.58
155	4.4	2.7	1.8	1.63
156	3.8	2.5	1.7	1.52

	Length	Width	Thick	L/W
157	4.2	2.6	1.8	1.62
158	4.2	2.6	1.7	1.62
159	4.8	3.0	1.9	1.60
160	4.2	2.4	1.8	1.75
161	4.1	2.7	1.9	1.52
162	4.5	2.7	1.9	1.67
163	4.2	2.6	2.1	1.62
164	4.3	2.7	1.9	1.59
165	3.9	2.7	2.0	1.44
166	4.2	2.4	1.8	1.75
167	4.1	2.5	1.8	1.64
168	4.1	2.5	1.7	1.64
169	4.3	2.5	1.9	1.72
170	4.4	2.8	2.0	1.57
171	5.0	2.7	1.9	1.85
172	4.8	2.7	1.9	1.78
173	4.6	2.8	1.9	1.64
174	4.2	2.5	1.9	1.68
175	3.9	2.5	1.9	1.56
176	4.5	2.9	2.0	1.55
177	4.9	2.9	2.1	1.69
178	4.1	2.3	1.9	1.78
179	4.2	2.6	1.9	1.62
180	4.4	2.6	1.9	1.69
181	4.6	2.8	1.9	1.64
182	4.3	2.9	1.9	1.48
183	4.6	2.7	2.0	1.70
184	3.9	2.3	1.7	1.70
185	3.3	1.9	1.6	1.74
186	3.8	2.4	1.8	1.58
187	4.1	2.7	2.0	1.52
188	3.9	2.6	1.7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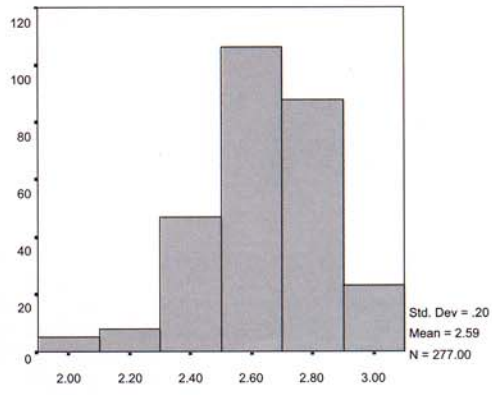
	Length	Width	Thick	L/W
189	4.7	3.0	2.1	1.57
190	4.8	3.0	2.1	1.60
191	4.8	2.9	2.0	1.66
192	4.4	2.4	2.0	1.83
193	4.8	2.5	2.2	1.92
194	4.4	2.7	1.8	1.63
195	4.4	2.7	2.1	1.63
196	4.4	2.3	2.1	1.91
197	4.3	2.7	1.9	1.59
198	4.4	2.6	1.9	1.69
199	4.3	2.6	1.9	1.65
200	4.5	2.3	1.9	1.96
201	4.4	2.7	1.9	1.63
202	4.3	2.6	1.9	1.65
203	4.5	2.5	1.9	1.80
204	4.4	2.5	1.8	1.76
205	4.2	2.4	1.9	1.75
206	4.3	2.5	2.0	1.72
207	4.4	2.6	2.2	1.69
208	4.3	2.4	1.9	1.79
209	3.6	2.5	1.9	1.44
210	4.0	2.4	1.9	1.67
211	4.2	2.6	2.0	1.62
212	4.3	2.7	1.9	1.59
213	4.3	2.7	1.9	1.59
214	4.0	2.2	1.9	1.82
215	4.3	2.4	1.8	1.79
216	4.3	2.7	1.8	1.59
217	3.8	2.5	1.8	1.52
218	4.3	2.8	2.1	1.54
219	3.7	2.4	2.0	1.54
220	4.4	2.4	2.0	1.83

	Length	Width	Thick	L/W
221	4.0	2.2	1.7	1.82
222	4.4	2.4	1.8	1.83
223	4.2	2.5	1.8	1.68
224	4.3	2.7	2.0	1.59
225	3.7	2.3	1.8	1.61
226	4.2	2.6	1.9	1.62
227	4.2	2.5	1.8	1.68
228	4.4	2.6	1.9	1.69
229	4.6	2.7	2.0	1.70
230	4.3	2.7	1.8	1.59
231	4.4	2.5	1.9	1.76
232	4.3	2.3	2.0	1.87
233	4.2	2.5	1.9	1.68
234	4.6	2.5	2.0	1.84
235	4.3	2.6	2.0	1.65
236	4.4	2.2	1.7	2.00
237	4.2	2.8	2.2	1.50
238	4.6	2.8	2.0	1.64
239	3.7	2.5	1.8	1.48
240	4.4	2.3	1.9	1.91
241	4.9	3.1	2.2	1.58
242	4.4	2.9	1.7	1.52
243	4.7	2.8	1.9	1.68
244	4.1	2.4	1.9	1.71
245	4.7	2.6	1.9	1.81
246	4.1	2.6	1.9	1.58
247	4.0	2.5	1.9	1.60
248	4.2	2.6	1.9	1.62
249	4.3	2.7	1.8	1.59
250	4.2	2.6	1.2	1.62
251	4.0	2.5	2.0	1.60
252	4.1	2.7	1.9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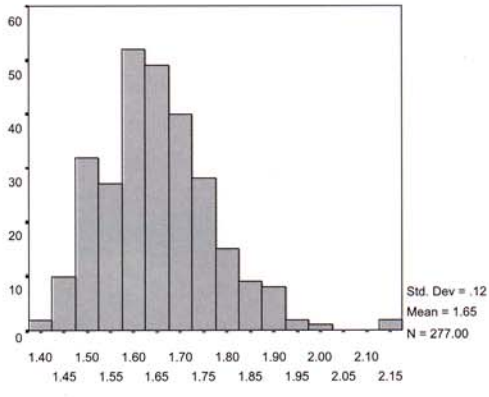
		Length	Width	Thick	L/W
253		4.6	2.8	2.1	1.64
254		4.5	2.7	1.8	1.67
255		4.0	2.5	2.0	1.60
256		4.2	2.7	1.9	1.56
257		4.2	2.6	2.0	1.62
258		4.0	2.5	1.9	1.60
259		3.7	2.5	2.1	1.48
260		4.4	2.5	2.0	1.76
261		3.4	2.2	1.8	1.55
262		4.6	2.4	1.9	1.92
263		4.0	2.4	1.8	1.67
264		4.1	2.7	2.1	1.52
265		4.5	2.7	2.3	1.67
266		4.7	2.6	2.0	1.81
267		3.8	2.5	1.7	1.52
268		4.0	2.9	1.8	1.38
269		3.8	2.5	1.7	1.52
270		3.9	2.5	1.9	1.56
271		4.5	2.6	2.0	1.73
272		4.7	2.8	1.9	1.68
273		3.8	2.6	1.8	1.46
274		4.2	2.6	1.9	1.62
275		4.1	2.5	2.0	1.64
276		4.2	2.8	2.0	1.50
277		4.3	2.6	1.9	1.65
Total	N	277	277	277	277
	Mean	4.265	2.590	1.899	1.651
	S.D.	.317	.197	.138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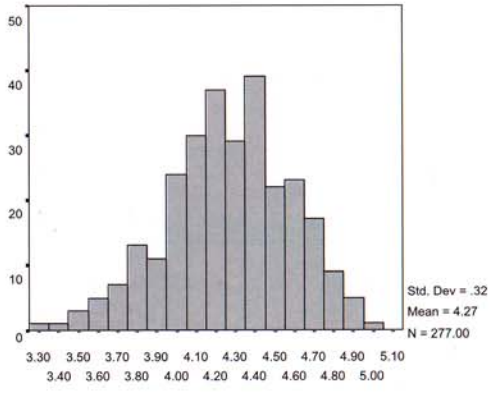
(그림 1)교동 탄화미의 粒長 頻度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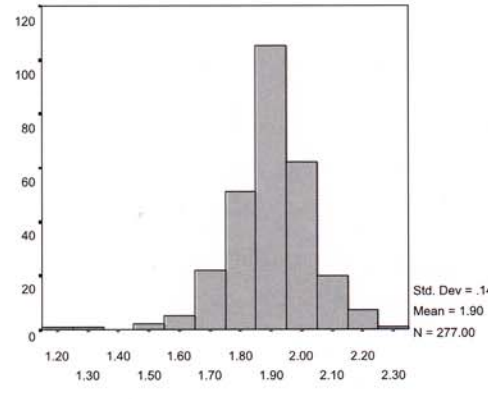
(그림 2)교동 탄화미의 粒幅 頻度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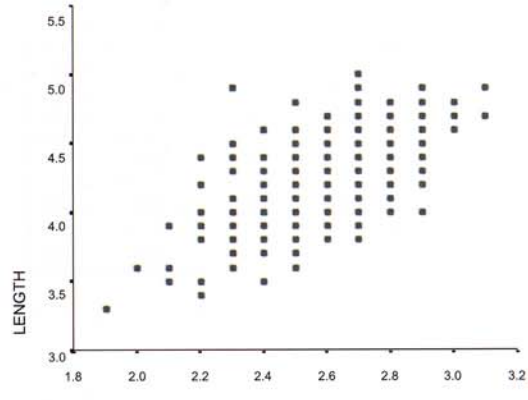
(그림 3)교동 탄화미의 帳幅比 頻度分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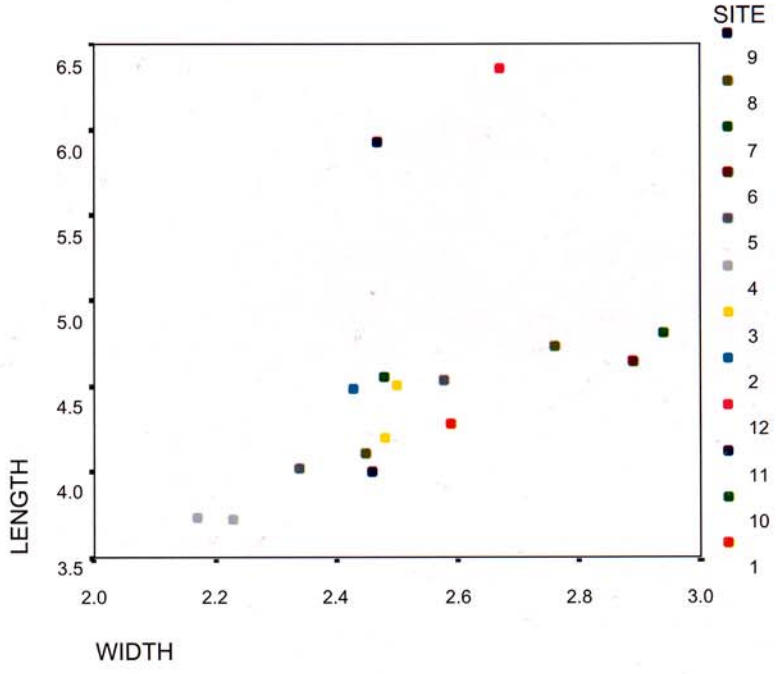
(그림 4) 교동 탄화미의 粒長 頻度分布圖(구간폭 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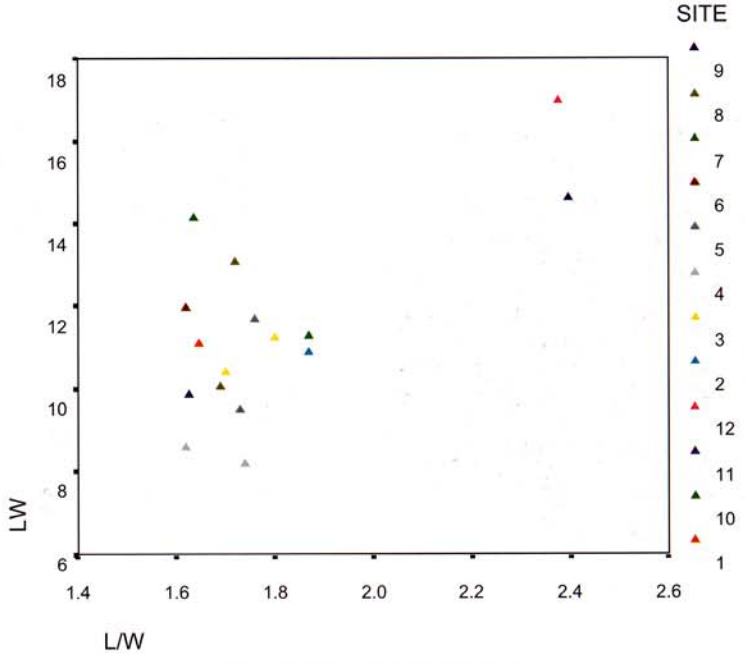
(그림 5) 교동 탄화미의 粒厚 頻度分布圖



(그림 6)교동 탄화미의 粒長과 粒幅 分布



(그림 7) 청동기시대 탄화미의 粒長 粒幅 평균치의 분포



(그림 8) 청동기시대 탄화미 粒幅積 粒幅比 분포

① 교동 1호집터, ② 대취자 3호집터, ③ 남경 36호집터, ④ 흔암리 12 · 14호집터, ⑤ 송국리 54-1 · 13호집터, ⑥ 조동리유적, ⑦ 원북리 다-3호, ⑧ 나바타케유적, ⑨ 이타주케유적, ⑩ 현생미-아키바레(자포니카 수도), ⑪ 현생미 - 남풍(장립종), ⑫ 현생미-한강찰(자포니카육도)









교동 1호주거지 출토 탄화미

부 록

II.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57번지

TEL (02) 735-5281, FAX (02) 735-6889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출토지	시료 종류 (시료번호)	^{14}C-Year (BP Year)	Calibrated Year (AD/BC Year)	비고
강릉시 교동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목탄 (KCP354)	3390±60	BC 1700 - 1520	
강릉시 교동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목탄 (KCP355)	3100±50	BC 1500 - 1200	
강릉시 교동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	목탄 (KCP356)	3230±50	BC 1620 - 1400	

1. 방사성탄소의 반감기는 5568년을 사용하였음.

2. 동위원소분별효과(isotope fractionation)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delta^{13}C$값은 -25‰을 사용하였음.

3. BP year의편차는 1σ을 사용하며 보정연대(Calibrated Age)는 2σ를 사용하여 AD/BC year로 전환한 연대임.

4. 고정밀보정곡선(M.Stuiver & P.J. Reimer, 1993)을 사용하여 BP year를 AD/BC year로 전환하였음.

사 진



①



②

〈사진 1〉 ①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먼 모습
②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가까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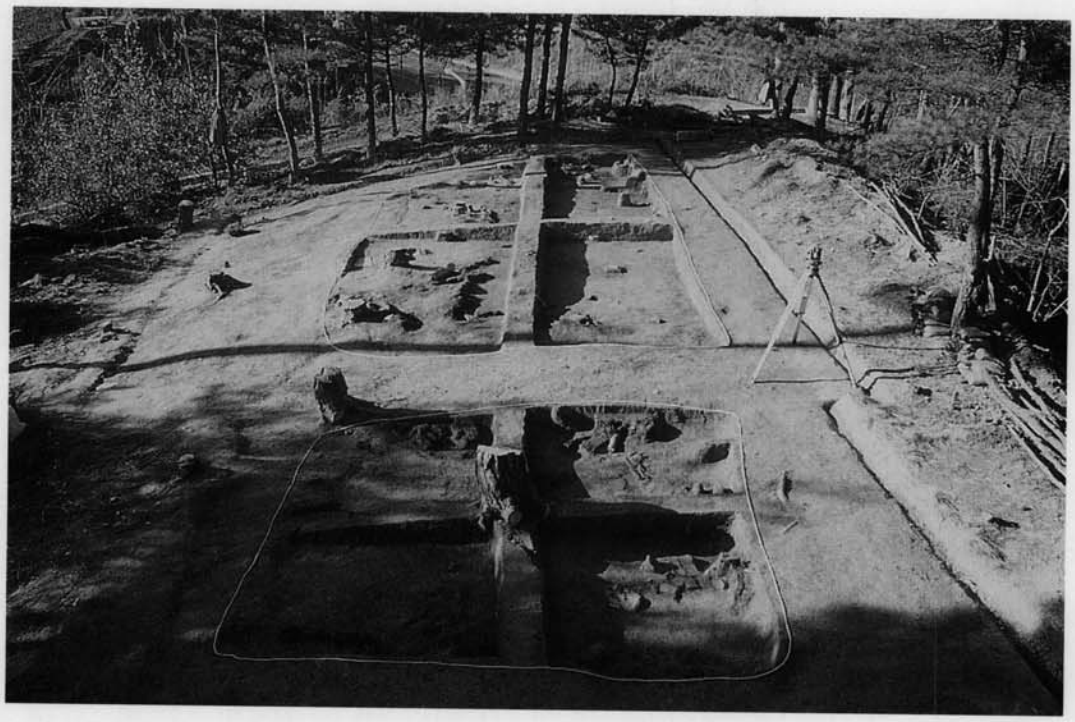


①



②

〈사진 2〉 ①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탐사조사갱 넣은 모습
②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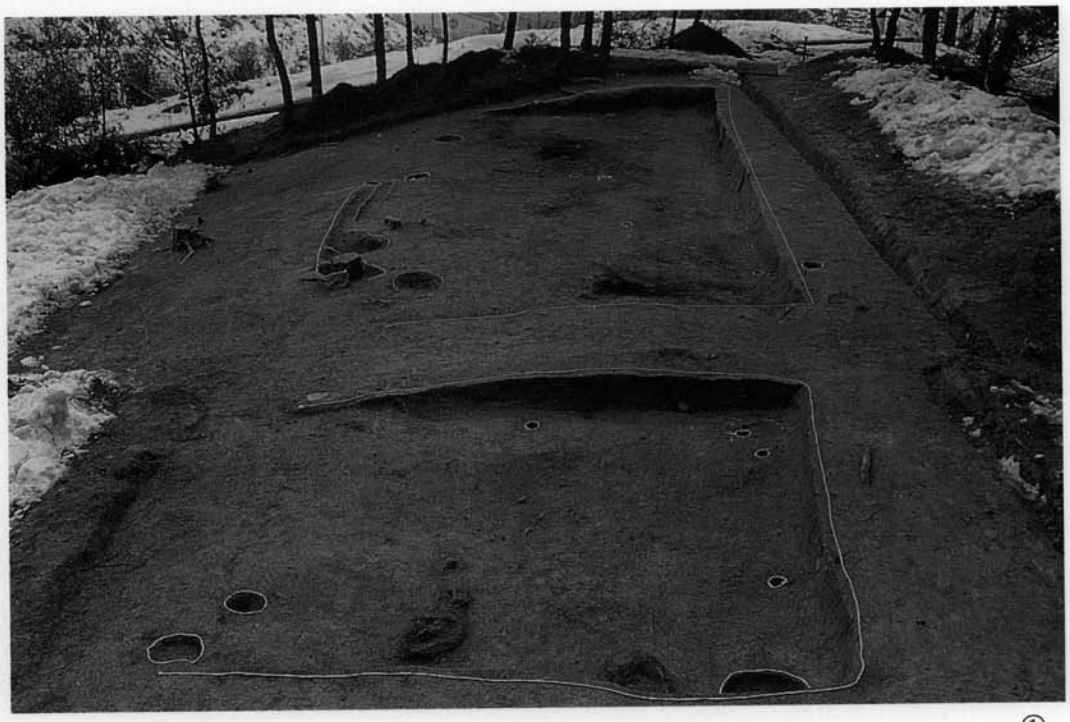


①



②

〈사진 3〉 ①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②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4〉 ① 교동 1호 · 2호 주거지 유물수거 후 조사 모습
② 교동 1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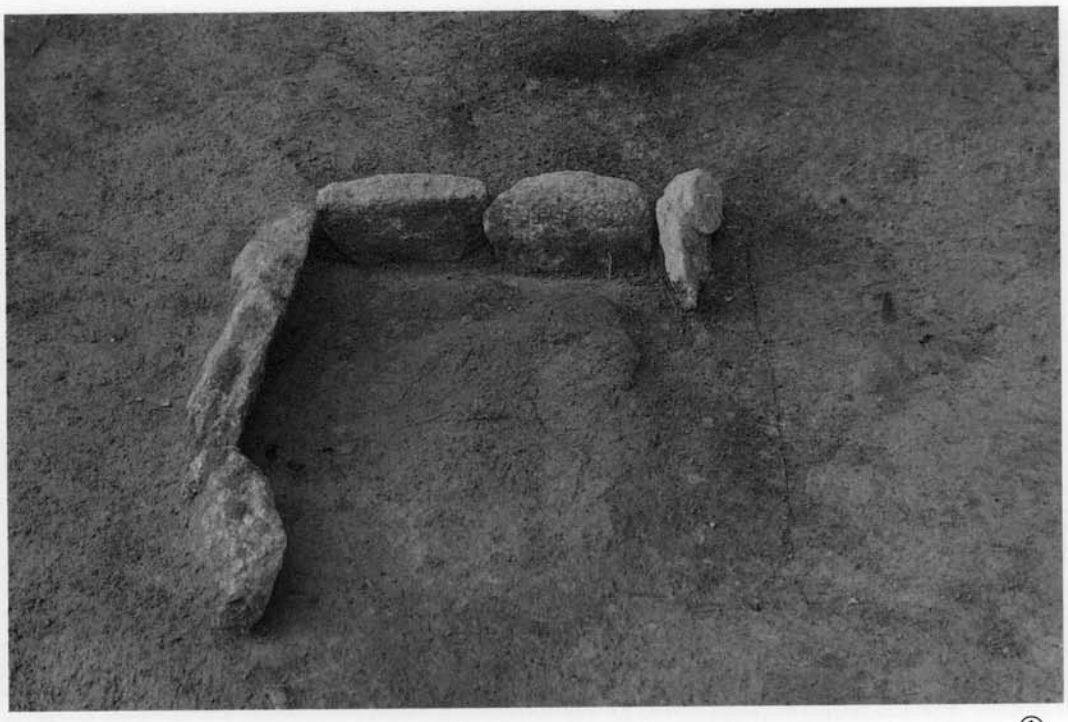


①



②

〈사진 5〉 ① 교동 1호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교동 1호 주거지 유물수거 후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6〉 교동 1호 주거지 노지 모습



①



②

〈사진 7〉 ① 교동 1호 주거지 탄화기둥 모습
② 교동 1호 주거지 탄화미 모습



①



②

〈사진 8〉 교동 1호 주거지 북벽 지역 모습



①



②

〈사진 9〉 교동 1호 주거지 북벽 지역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10〉 교동 1호 주거지 북벽지역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11〉 ① 교동 1호 주거지 북벽지역 유물 나온 모습
② 교동 1호 주거지 남벽지역 모습



①



②

〈사진 12〉 교동 1호 주거지 남동벽 모서리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13〉 ① 교동 1호 주거지 남동벽 모서리 유물 나온 모습
② 교동 1호 주거지 작업대 및 제습용 홈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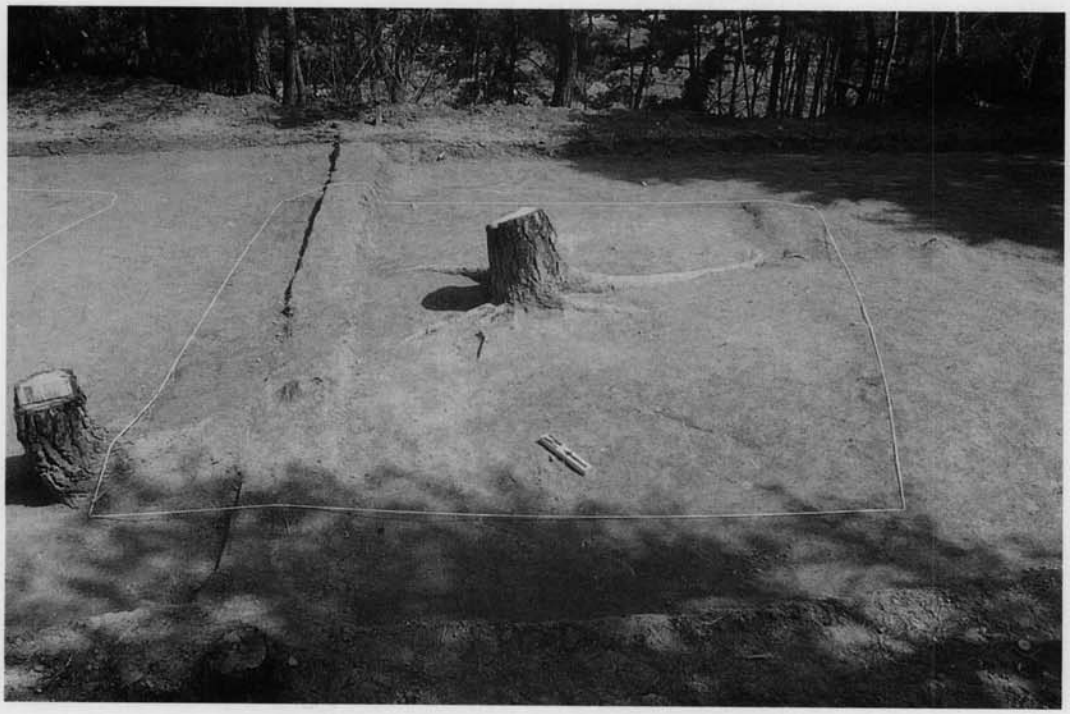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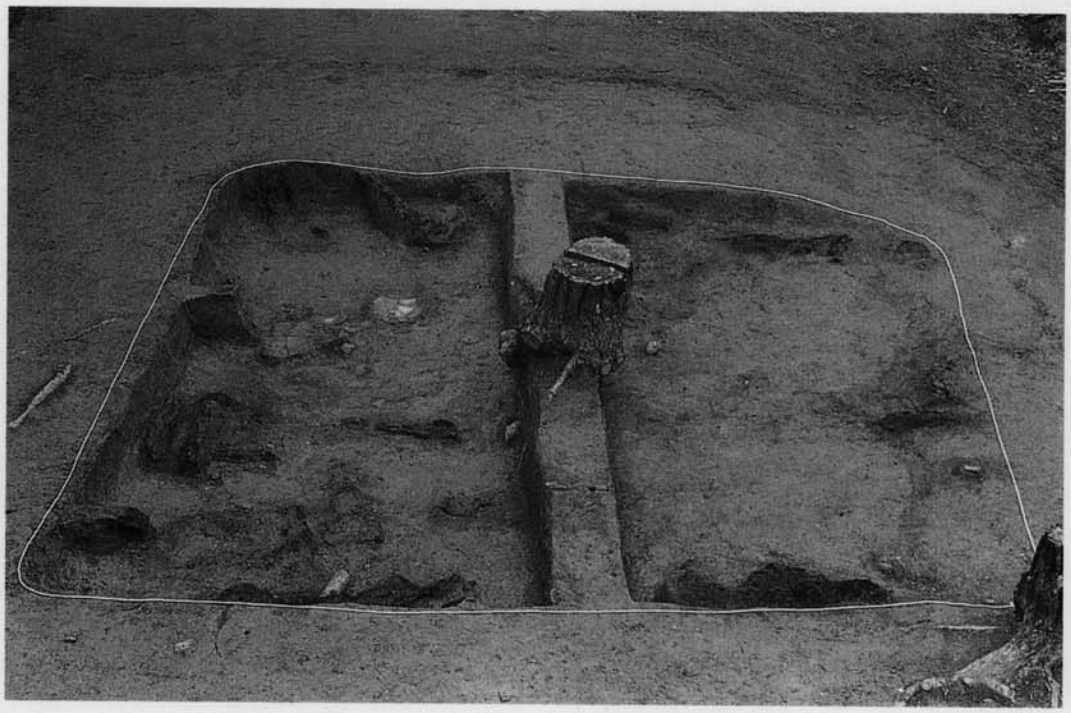


②

〈사진 14〉 1호 주거지 중앙지역 유물 나온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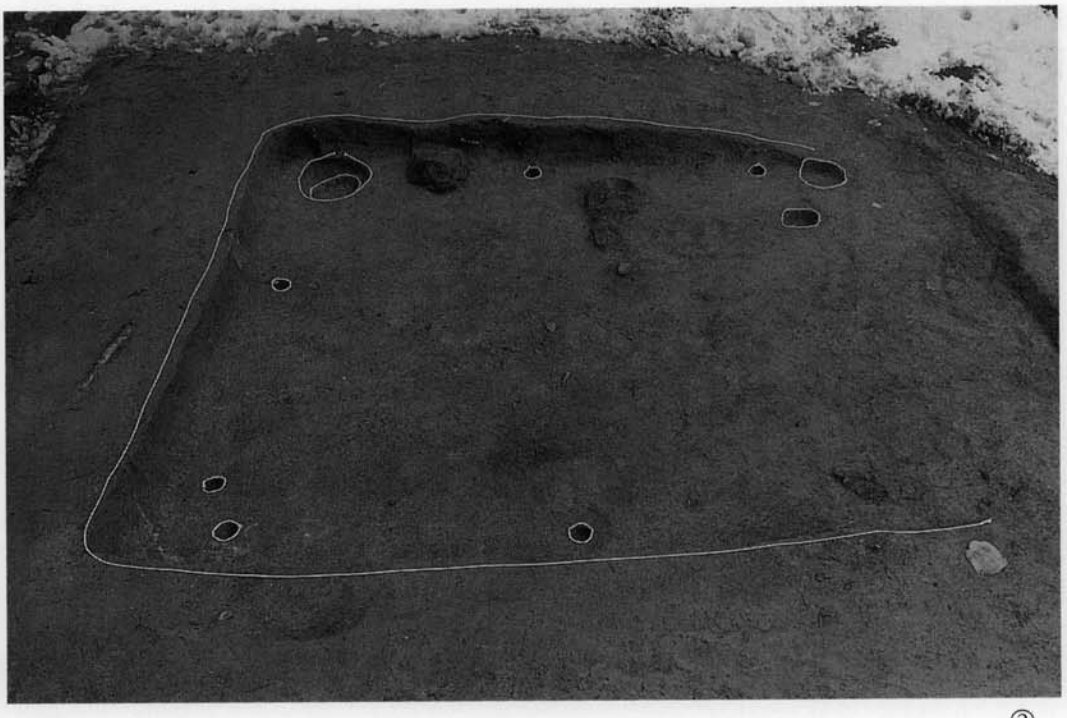


②

〈사진 15〉 ① 교동 1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② 교동 2호 주거지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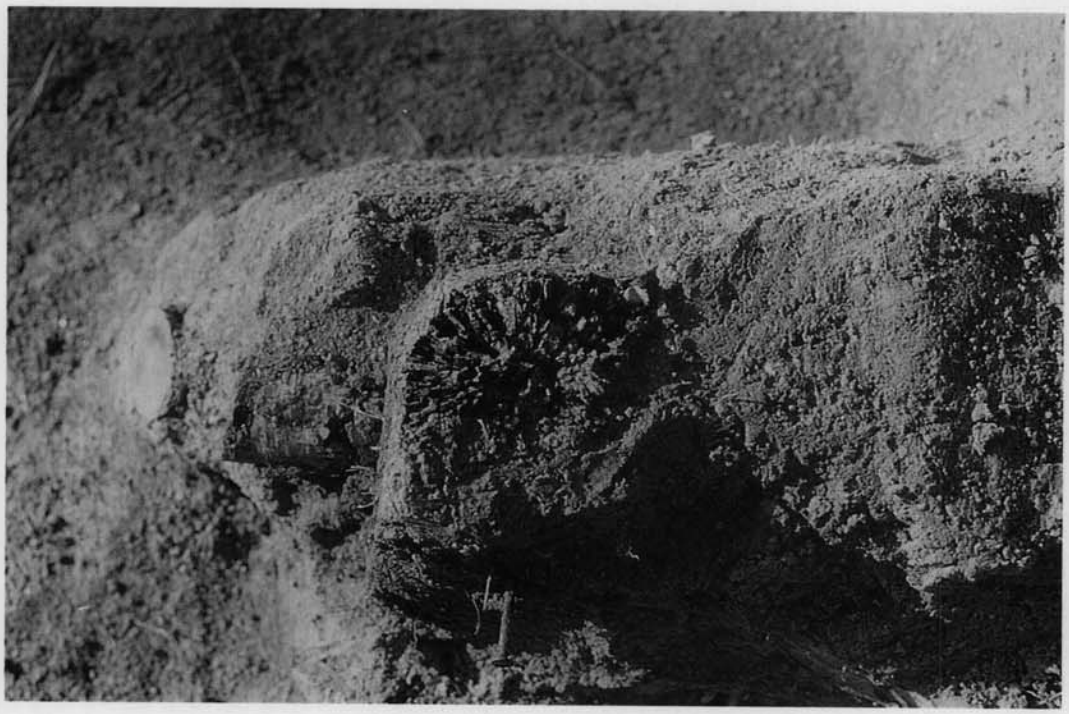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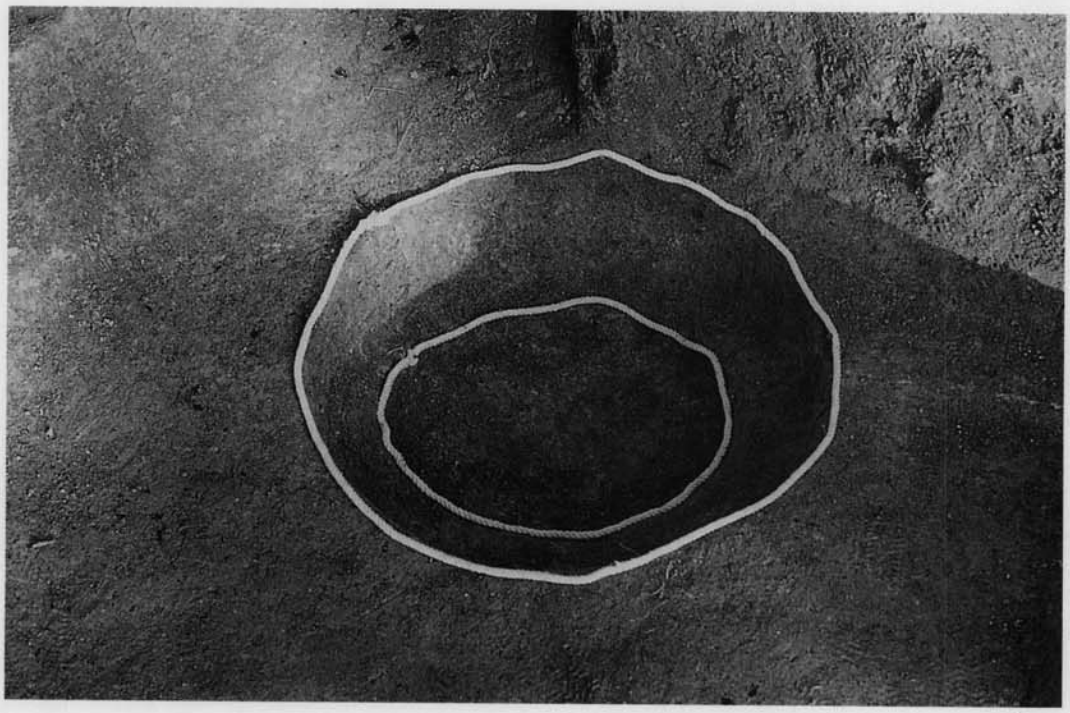


②

〈사진 16〉 ① 교동 2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교동 2호 주거지 유물수거 후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17〉 ① 교동 2호 탄화기둥 모습
② 교동 2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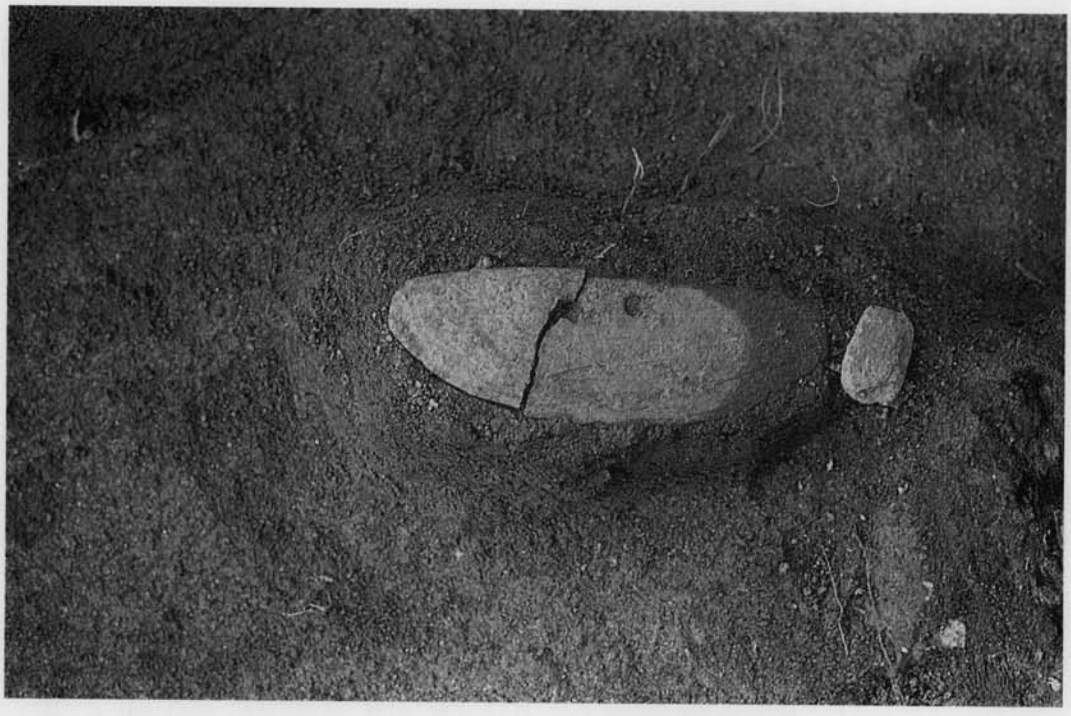


②

〈사진 18〉 교동 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19〉 교동 2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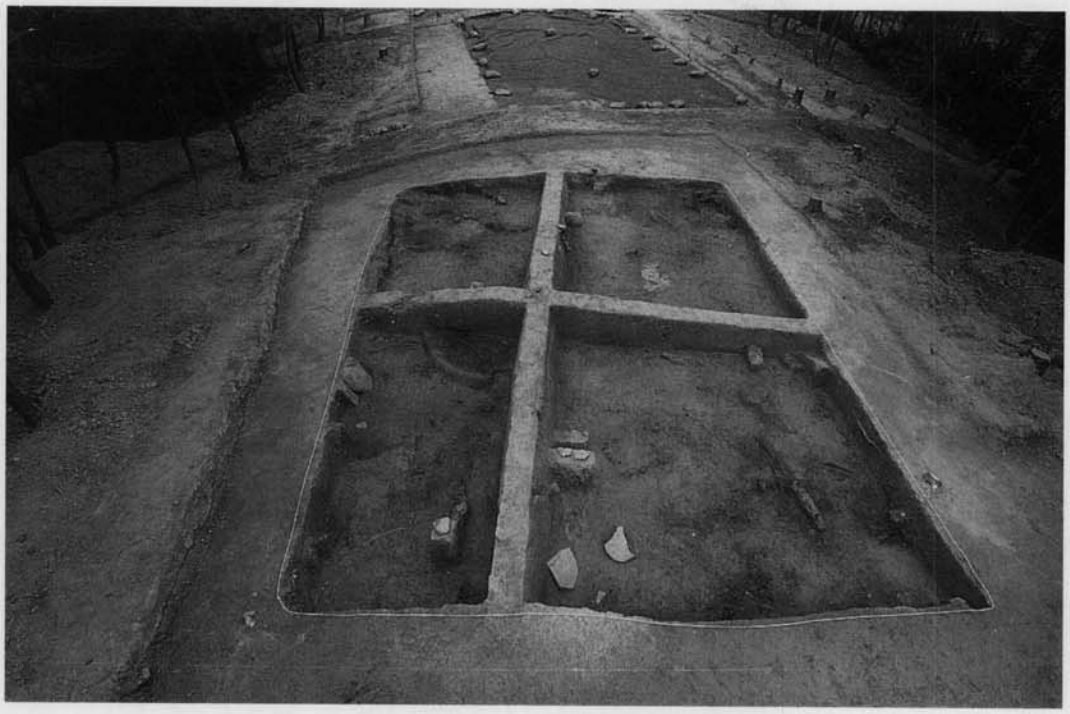


①



②

〈사진 20〉 ① 교동 3호 · 4호주거지 윤곽선 모습
②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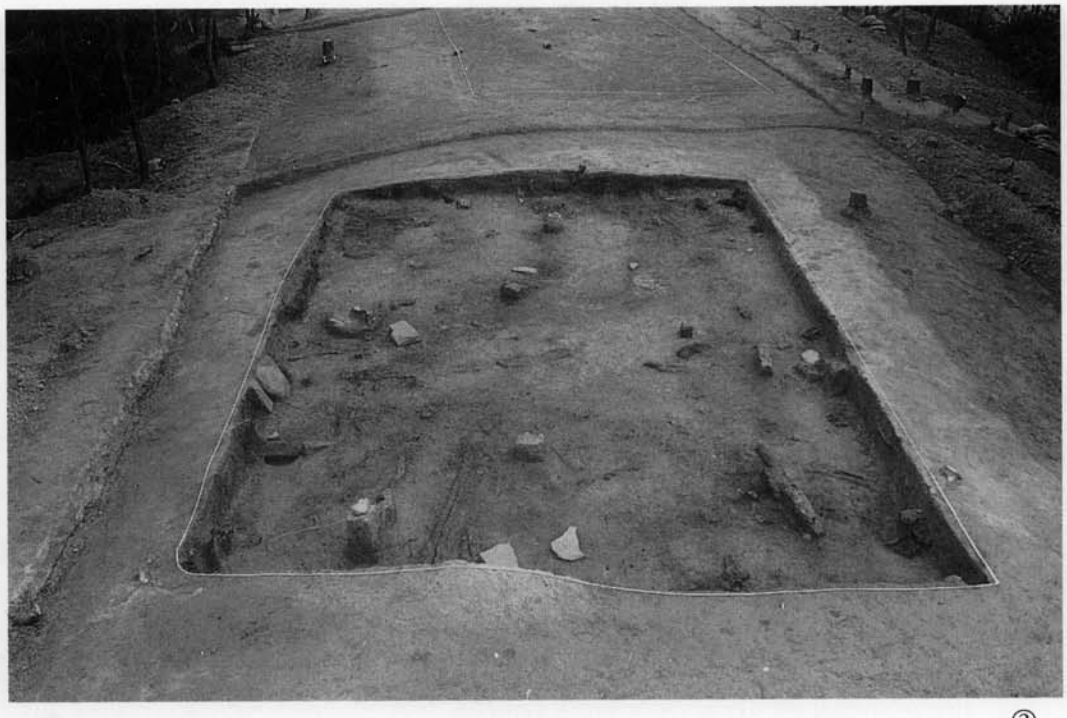


②

〈사진 21〉 ①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② 교동 3호 주거지 내부 토층 모습(서-동)



①



②

〈사진 22〉 ①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동-서)
② 교동 3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서-동)



①



②

〈사진 23〉 ①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수거 후 조사 모습
② 교동 3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및 기둥구멍 모습



①



②

〈사진 24〉 ① 교동 3호 주거지 탄화기둥 모습
② 교동 3호 주거지 내 목탄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25〉 ① 교동 3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②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이중구연토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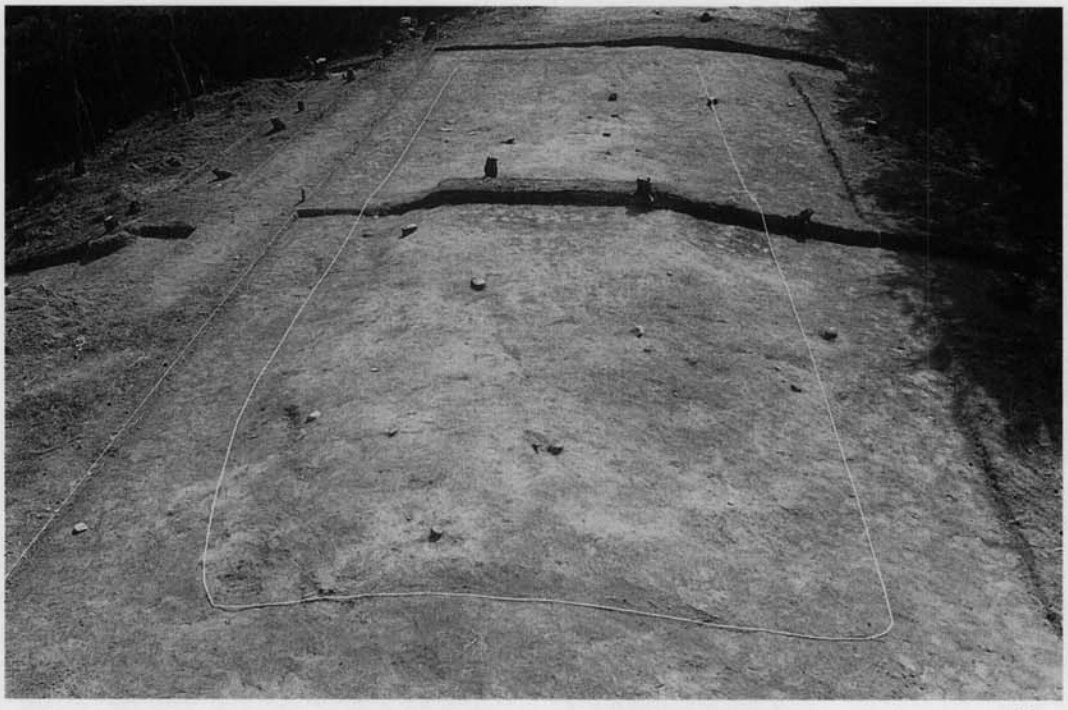


②

〈사진 26〉 ①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이중구연토기 구연부)
②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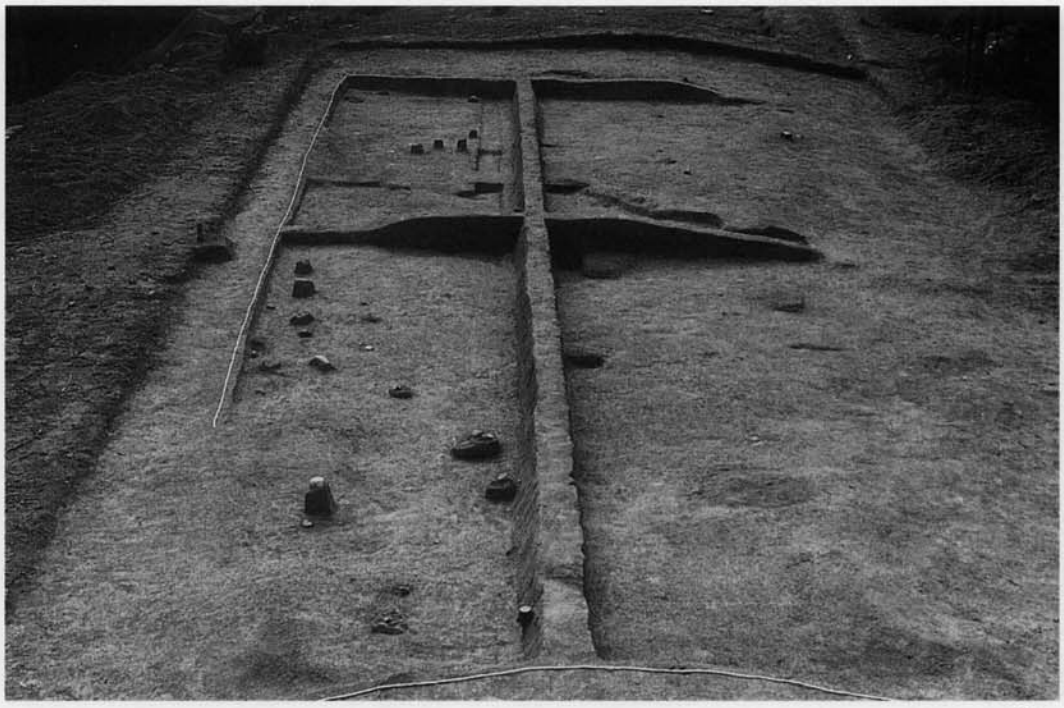


①



②

〈사진 27〉 ① 교동 3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② 교동 4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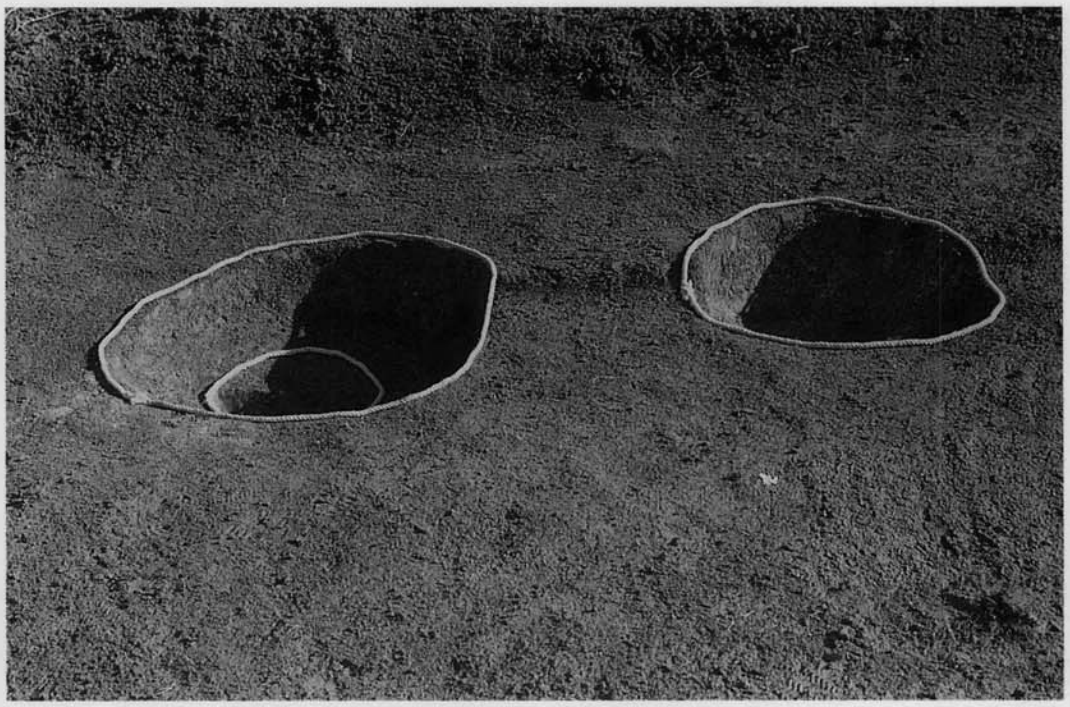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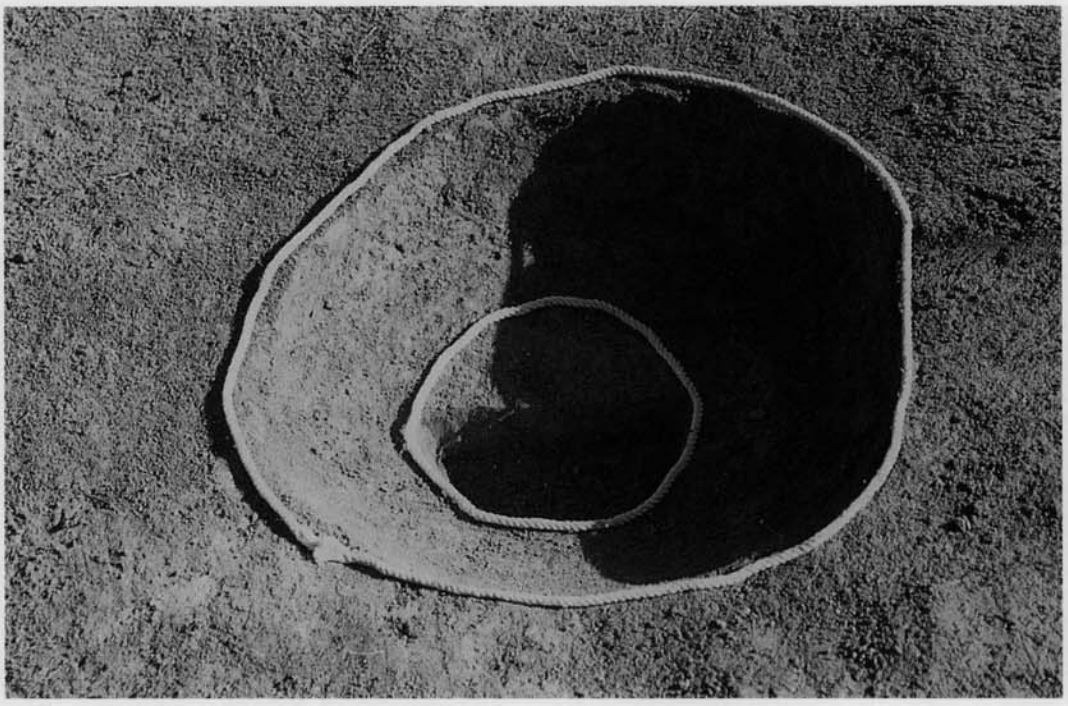


②

〈사진 28〉 ① 교동 4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② 교동 4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29〉 교동 4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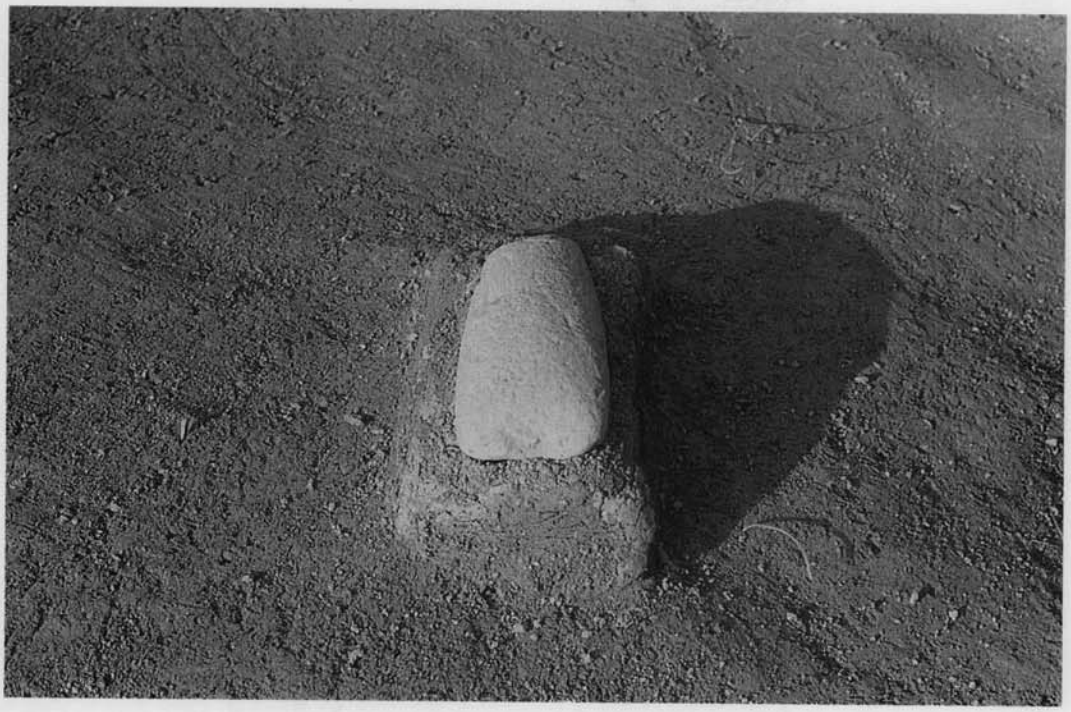


①



②

〈사진 30〉 교동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1〉 교동 4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2〉 ① 교동 5호 주거지 윤곽선 모습
② 교동 5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33〉 ① 교동 5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및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4〉 ①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및 유물 나온 모습
②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속 토기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5〉 ①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속 토기 세부 모습
② 교동 5호 주거지 동벽 모서리 저장구덩이 속 토기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6〉 교동 5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37〉 ① 교동 6호 주거지 조사지역 구릉 모습
② 교동 6호 주거지 조사 모습



①



②

〈사진 38〉 ① 교동 6호 주거지 조사 후 모습
② 교동 6호 주거지 내부 토층 모습(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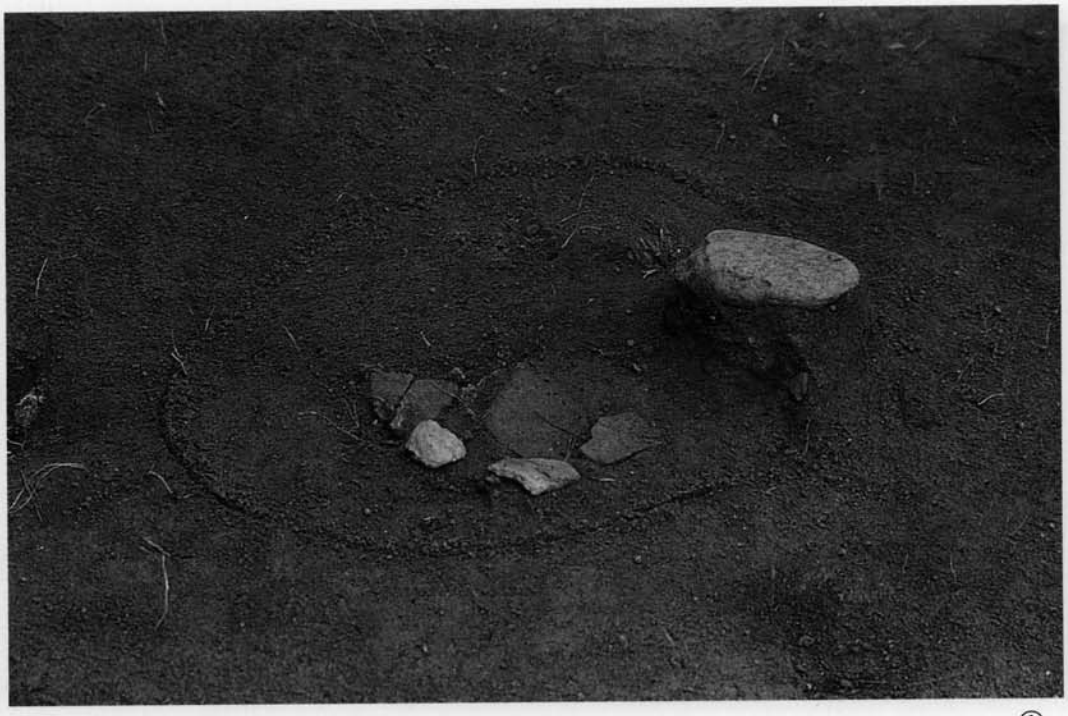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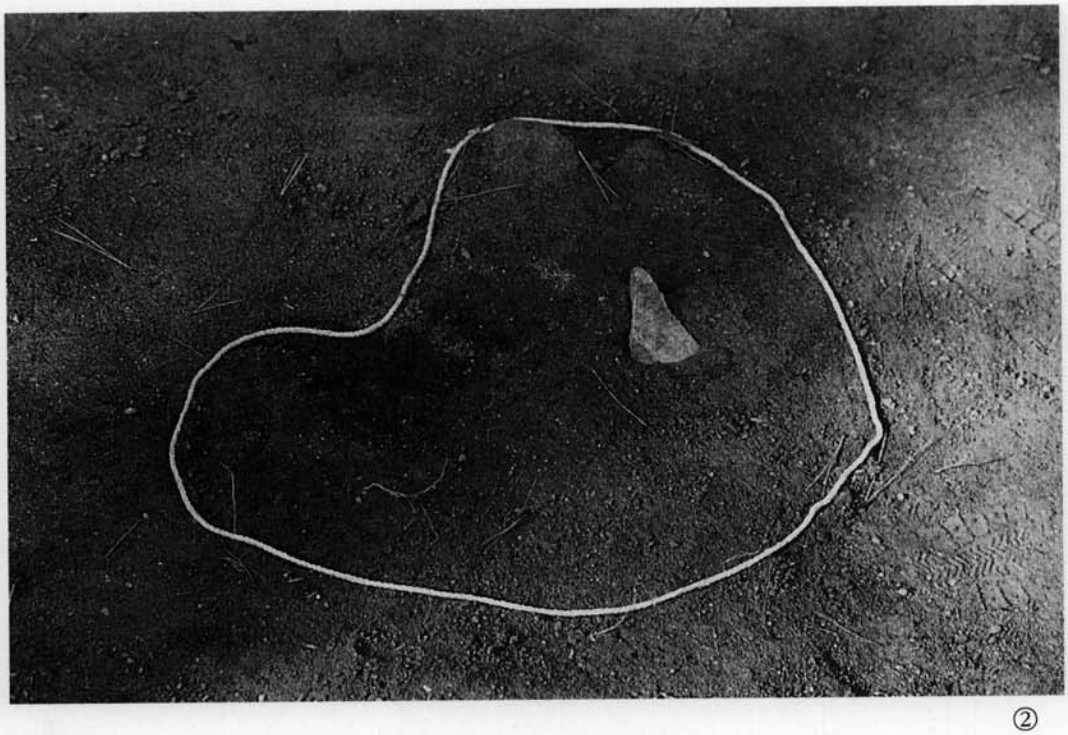


②

〈사진 39〉 ①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모습
②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1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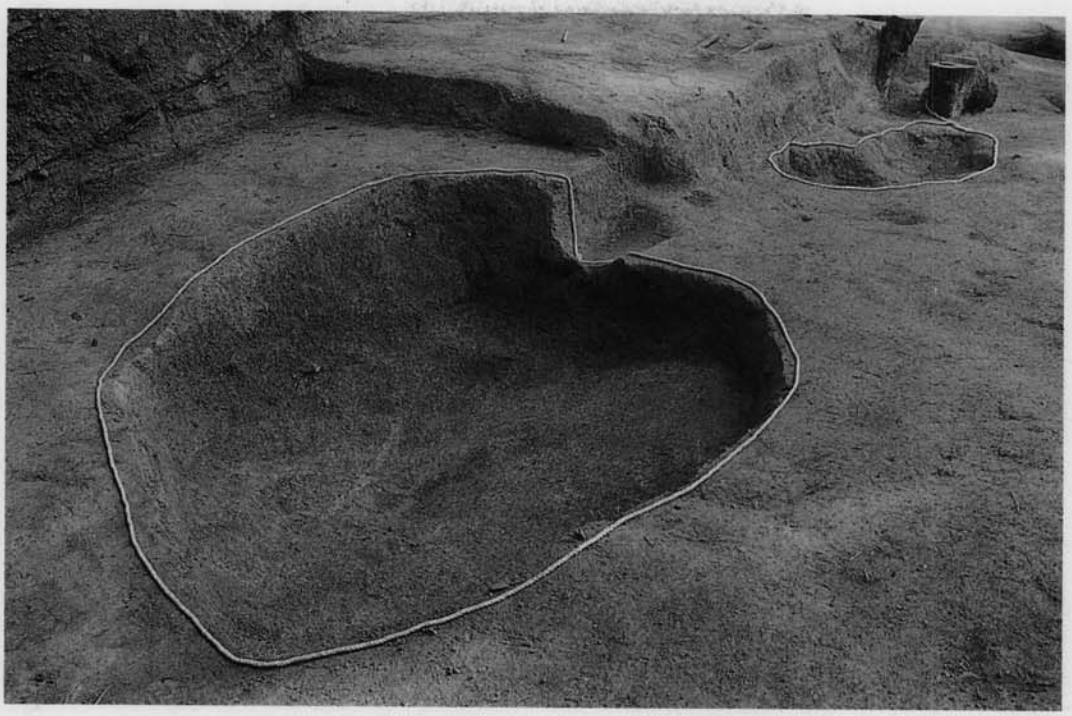


①



②

〈사진 40〉 ①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2 모습
② 교동 6호 주거지 노지 3 모습



①



②

〈사진 41〉 ① 교동 6호 주거지 저장구덩이 모습
②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42〉 ①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② 교동 6호 주거지 이중구연토기 구연부 모습



①



②

〈사진 43〉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44〉 교동 6호 주거지 유물 나온 모습



①



②

〈사진 45〉 ① 유천동 폐와요지 조사지역 모습
② 유천동 폐와요지 윤곽선 모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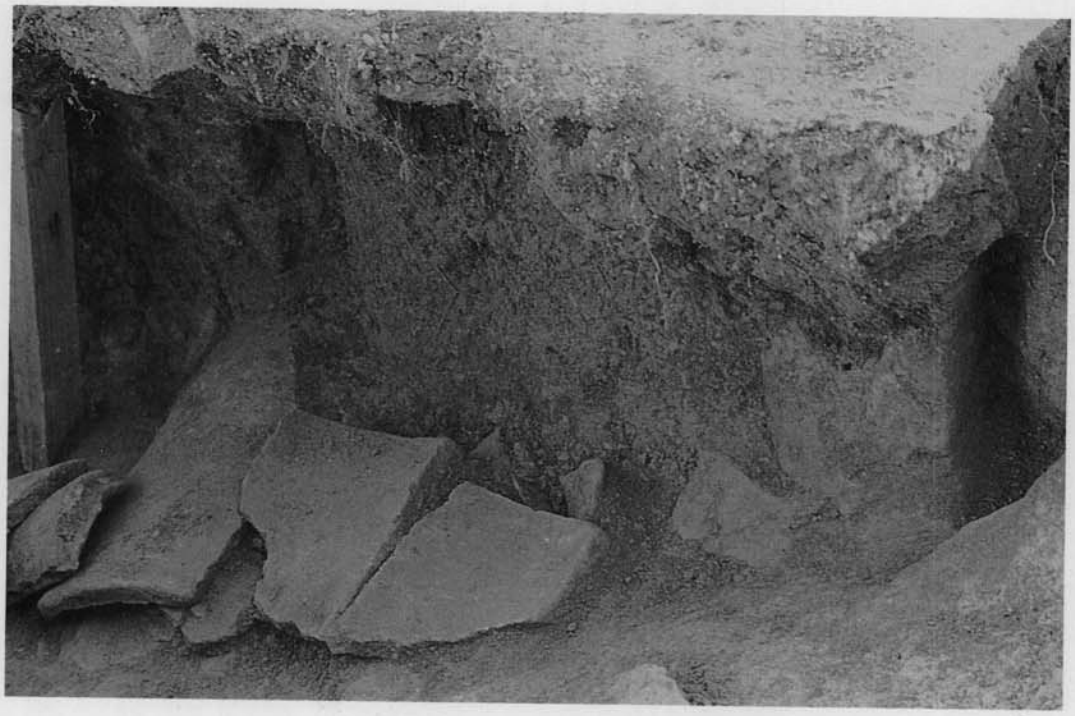


②

〈사진 46〉 유천동 폐와요지 조사 후 모습



①



②

〈사진 47〉 유천동 폐와요지 벽면 모습



①



②

〈사진 48〉 ① 유천동 폐와요지 연도부지역 기와 나온 모습
② 교동 청동기시대 유적 지도위원회의 모습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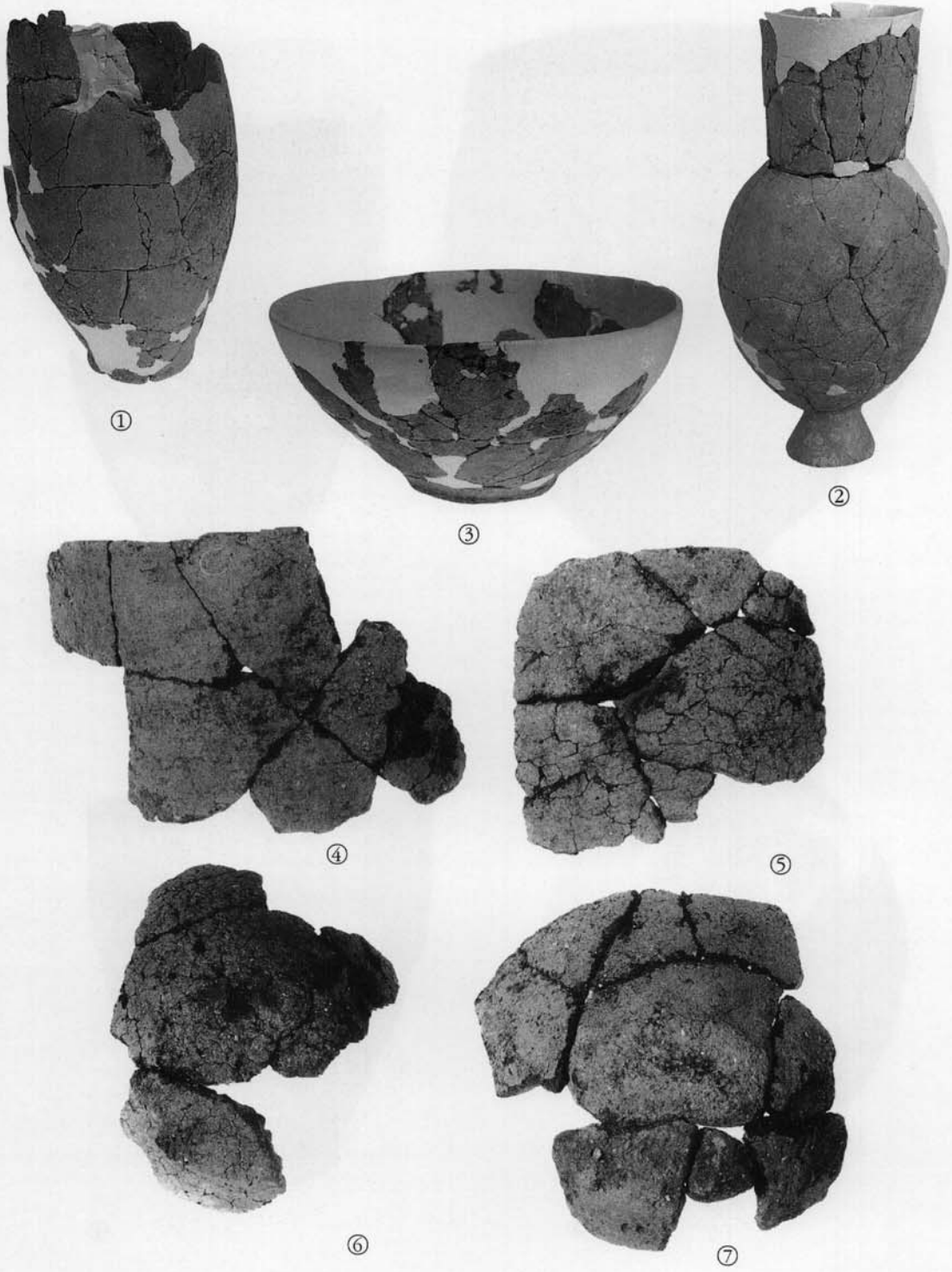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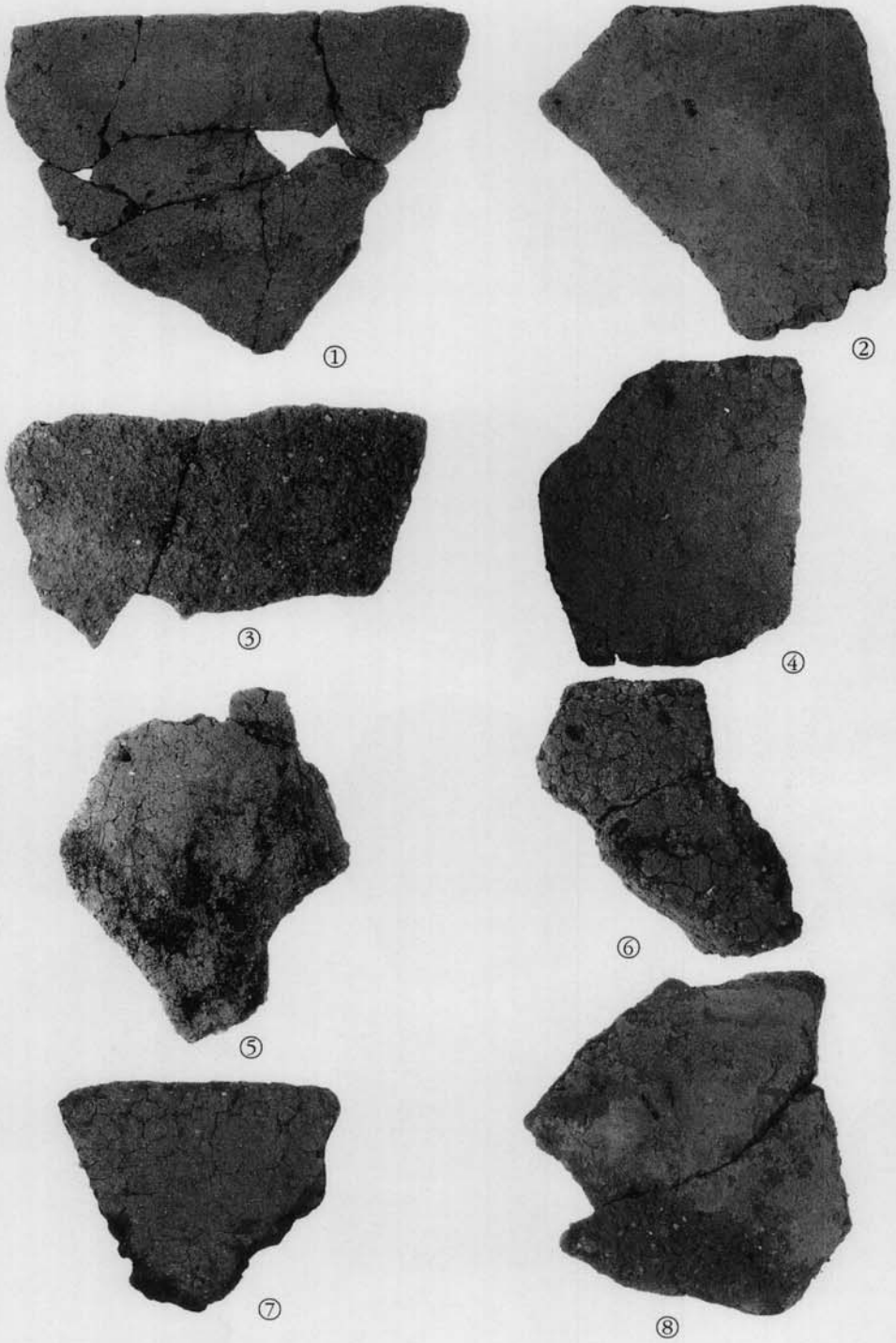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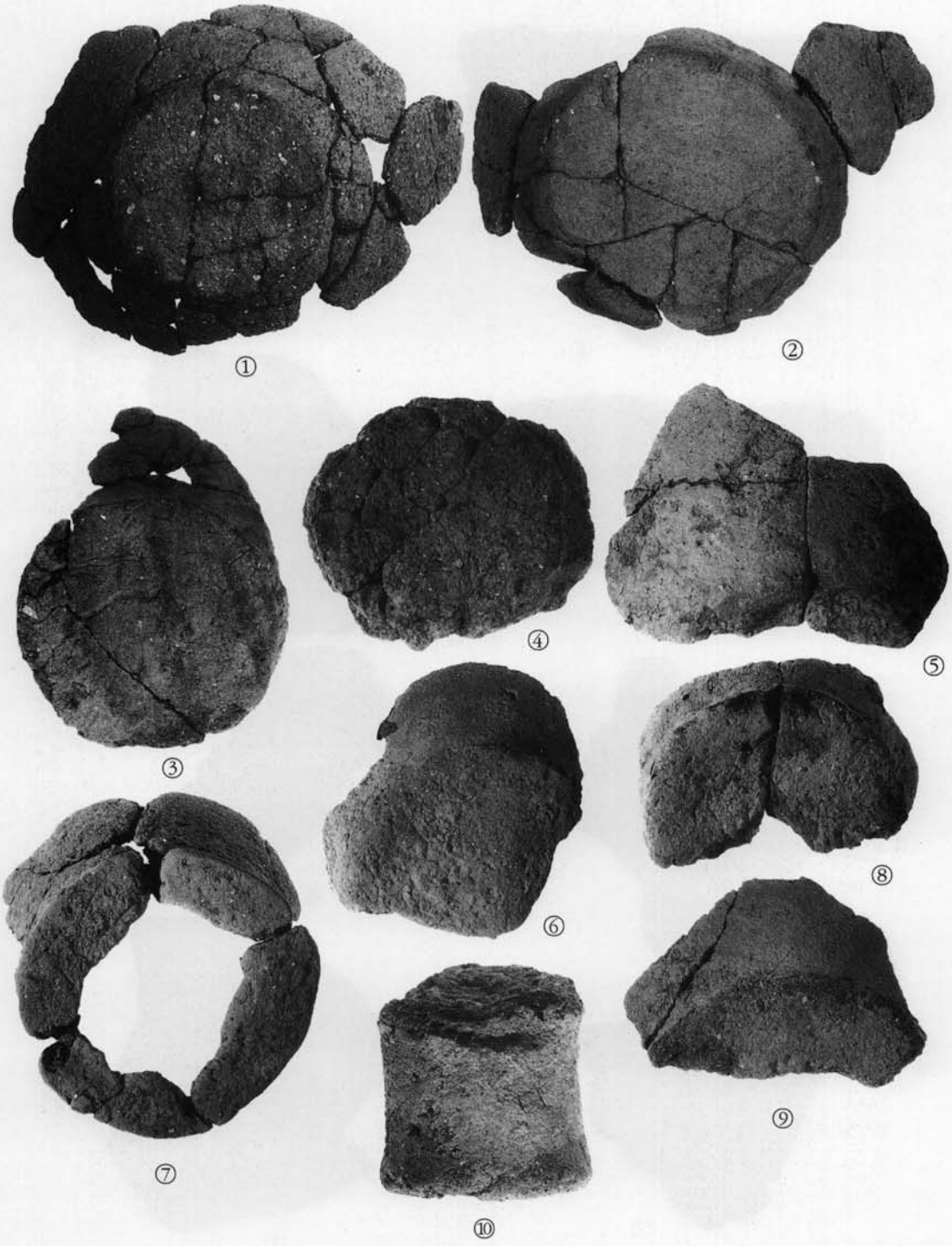
〈사진 49〉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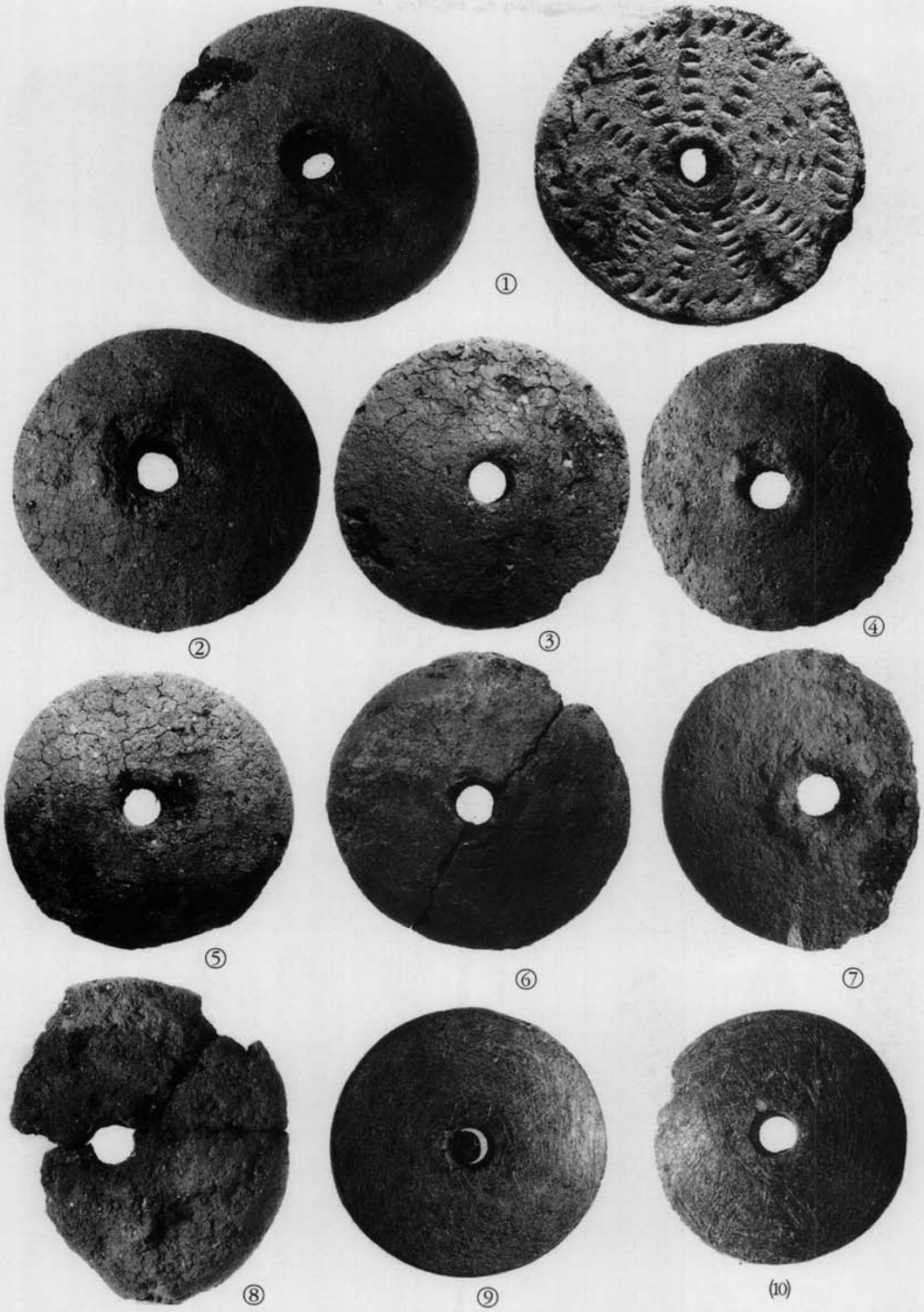
〈사진 50〉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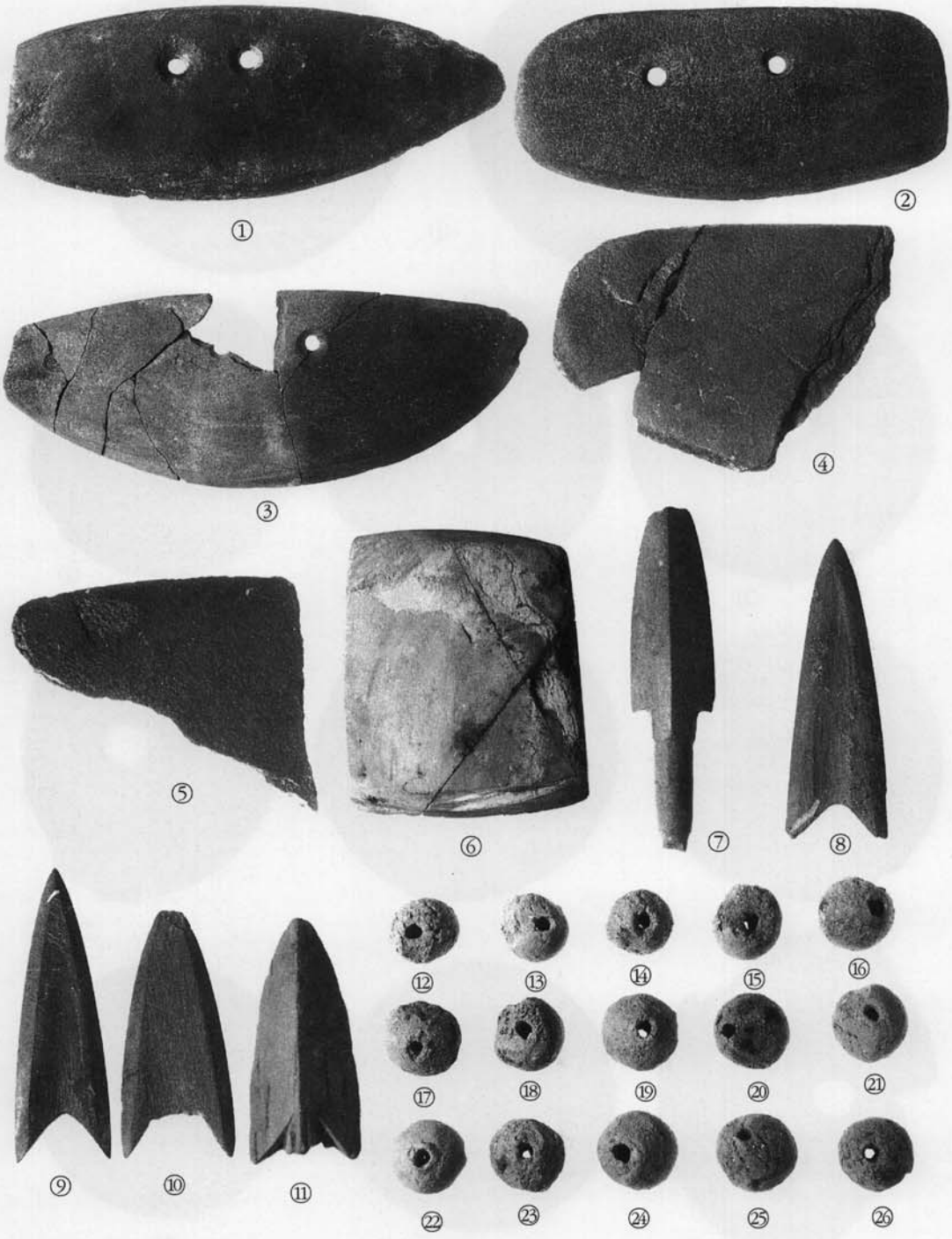
〈사진 51〉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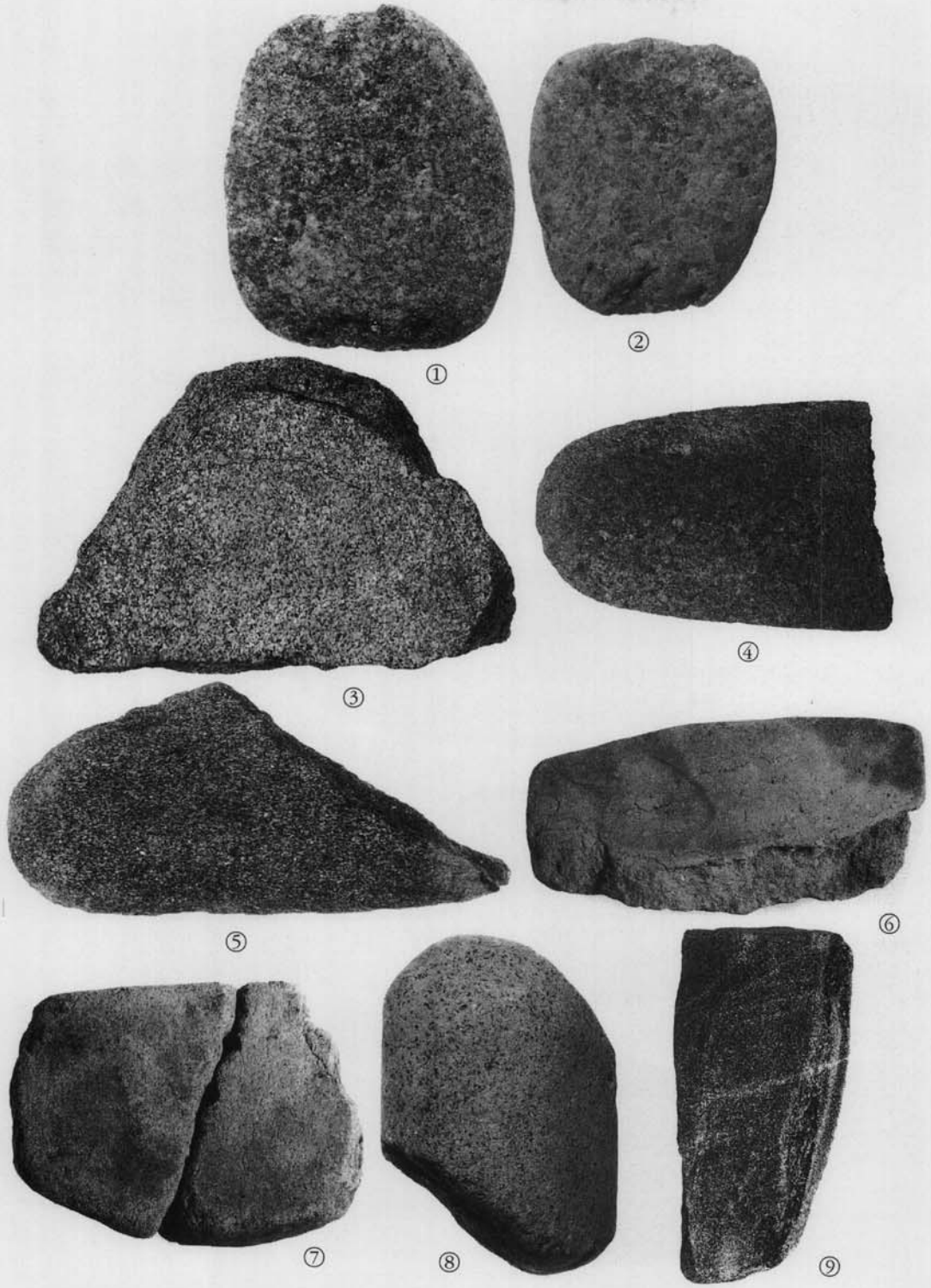
〈사진 52〉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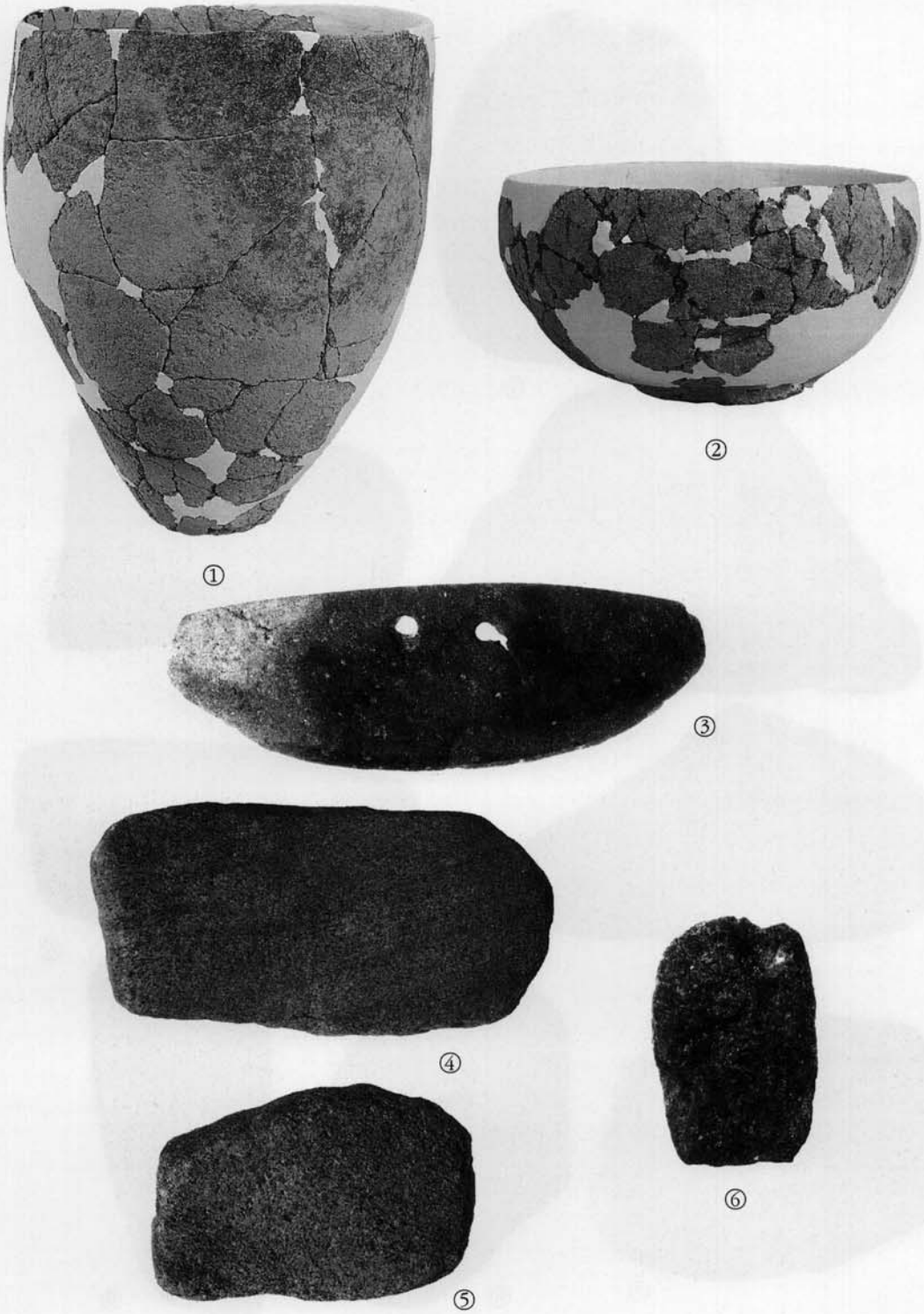
〈사진 53〉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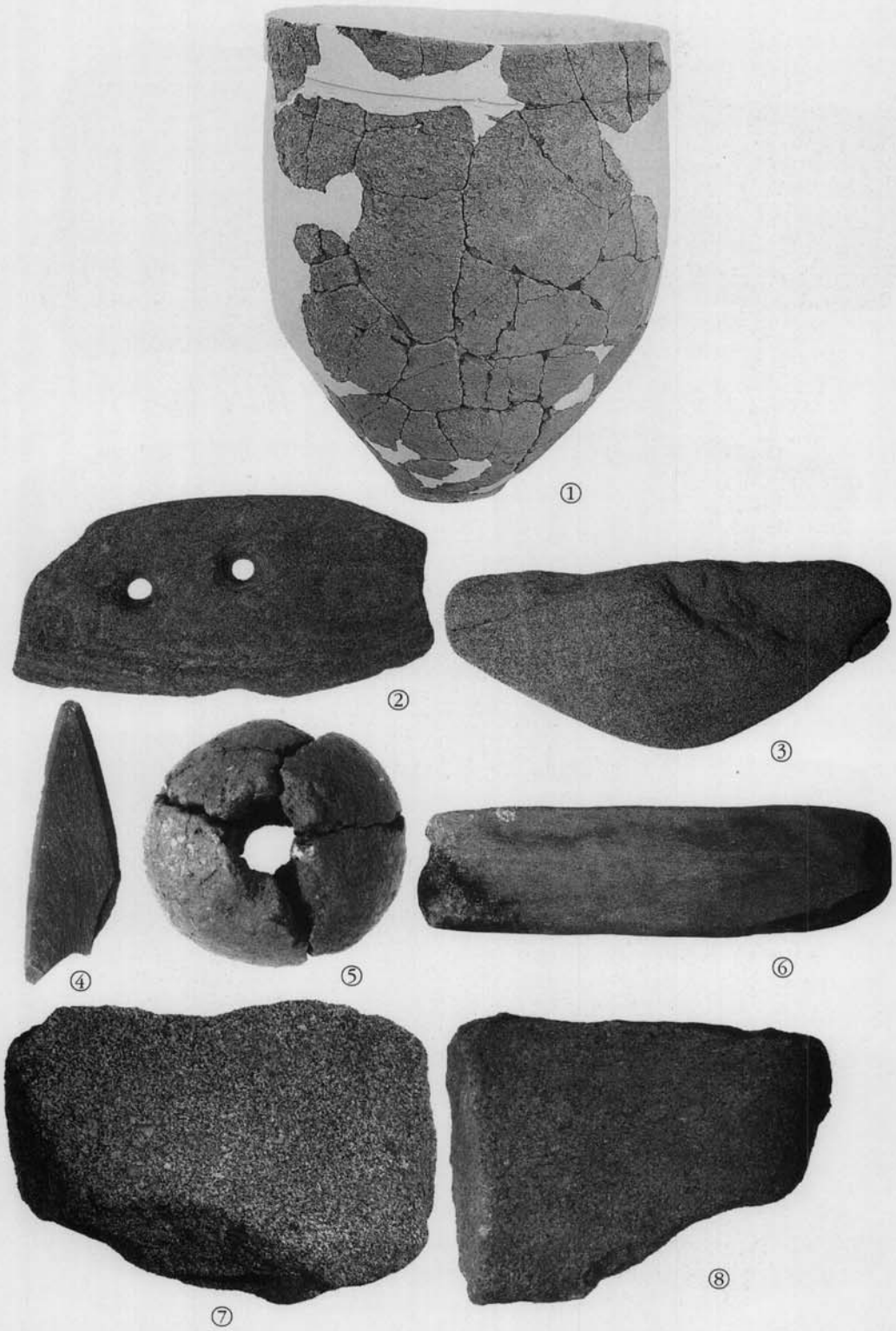
〈사진 54〉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5〉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6〉 교동 2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57〉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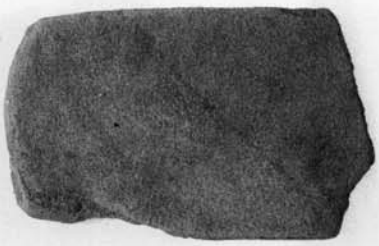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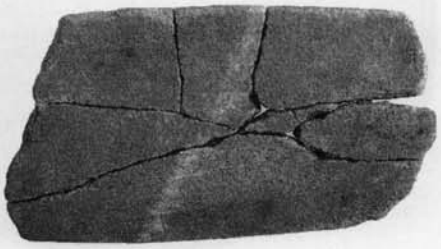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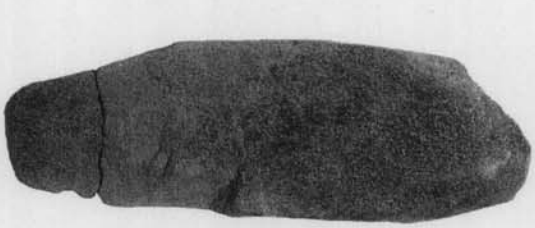


⑦



⑧

〈사진 58〉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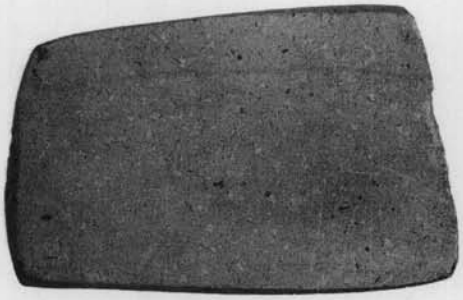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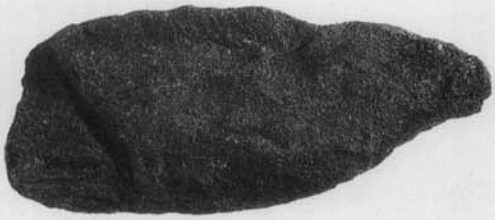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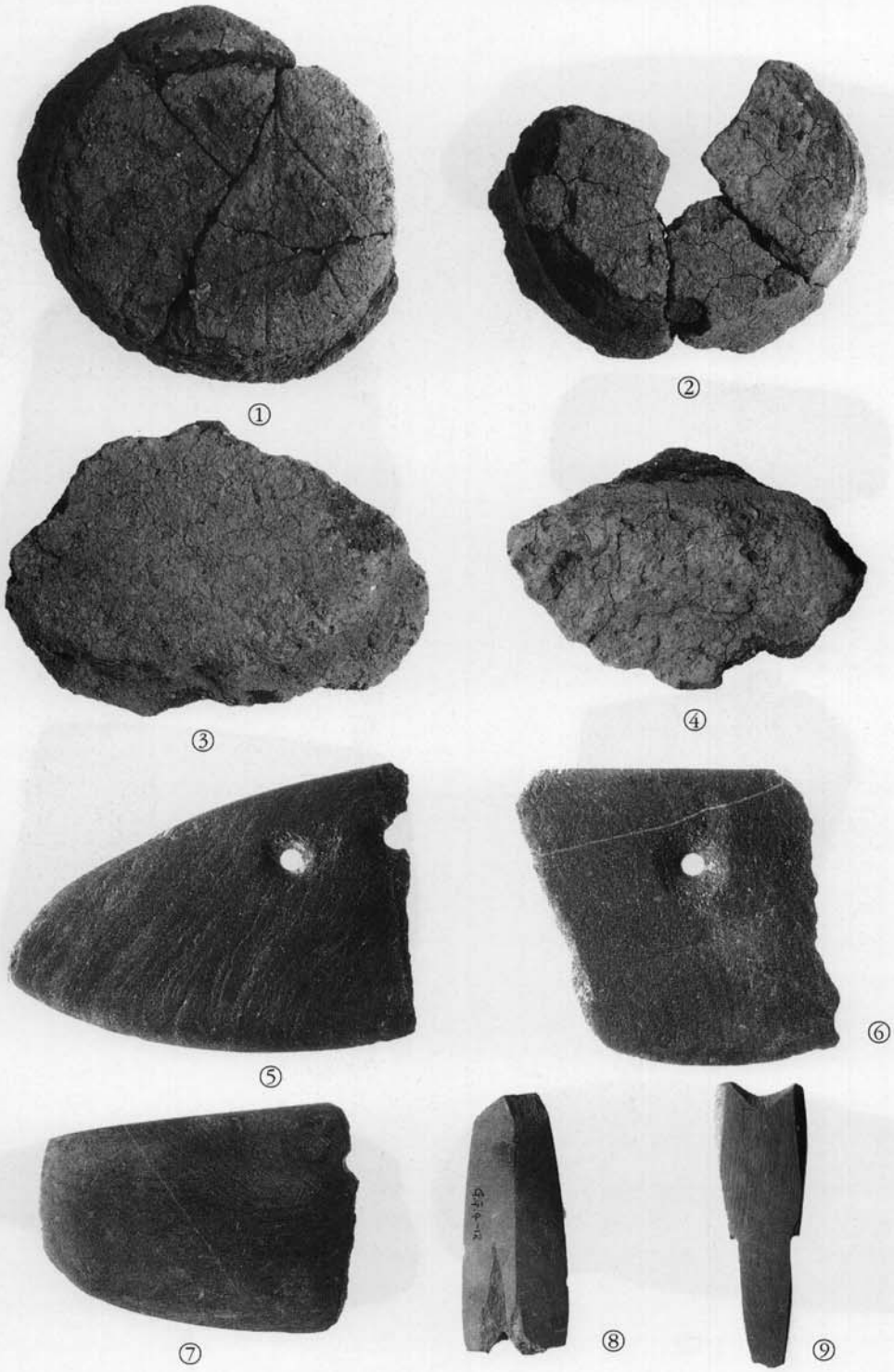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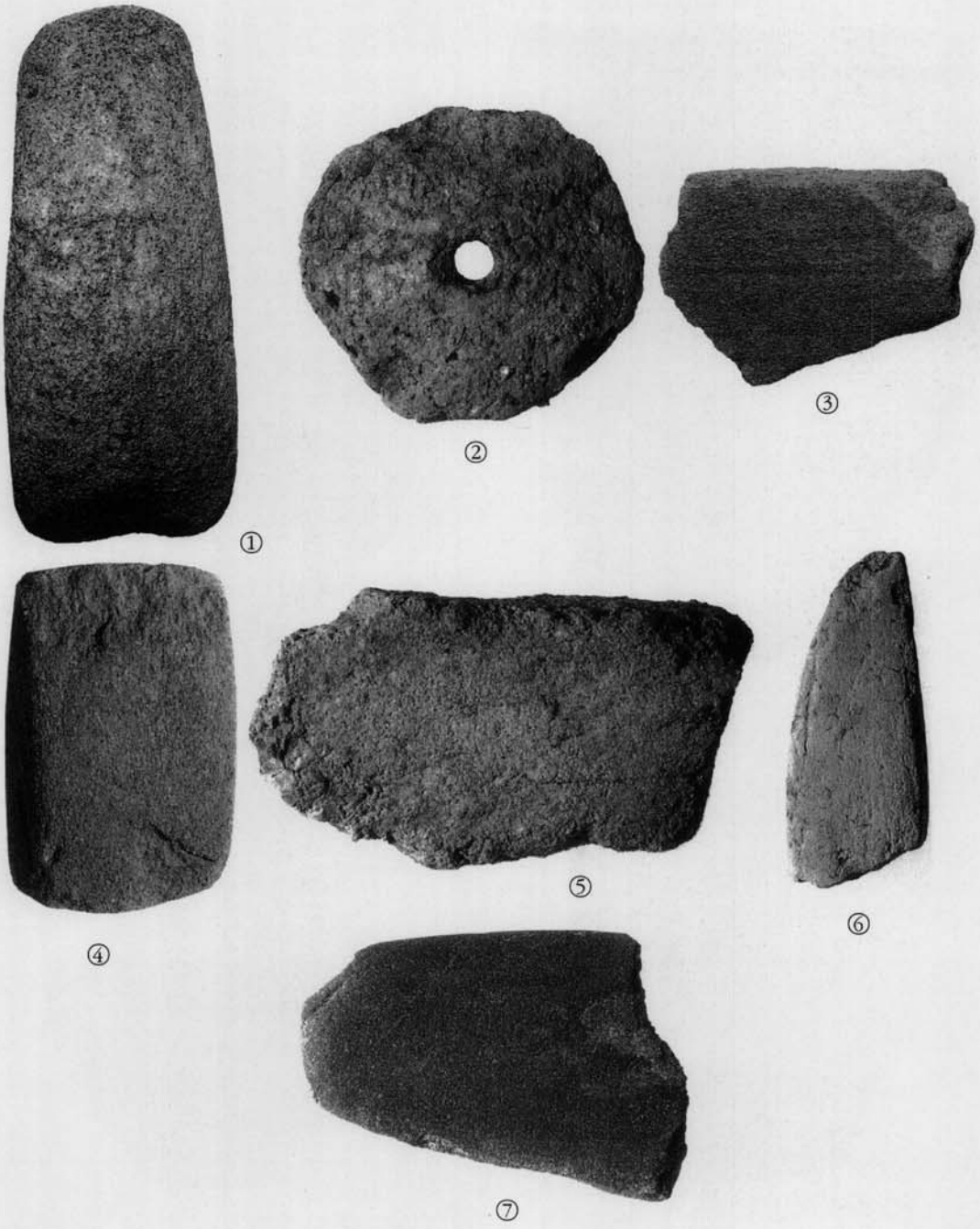


⑧

〈사진 59〉 교동 3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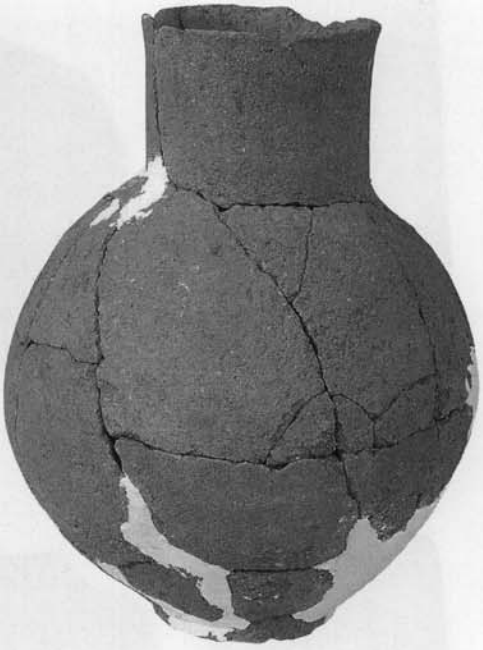
〈사진 60〉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61〉 교동 4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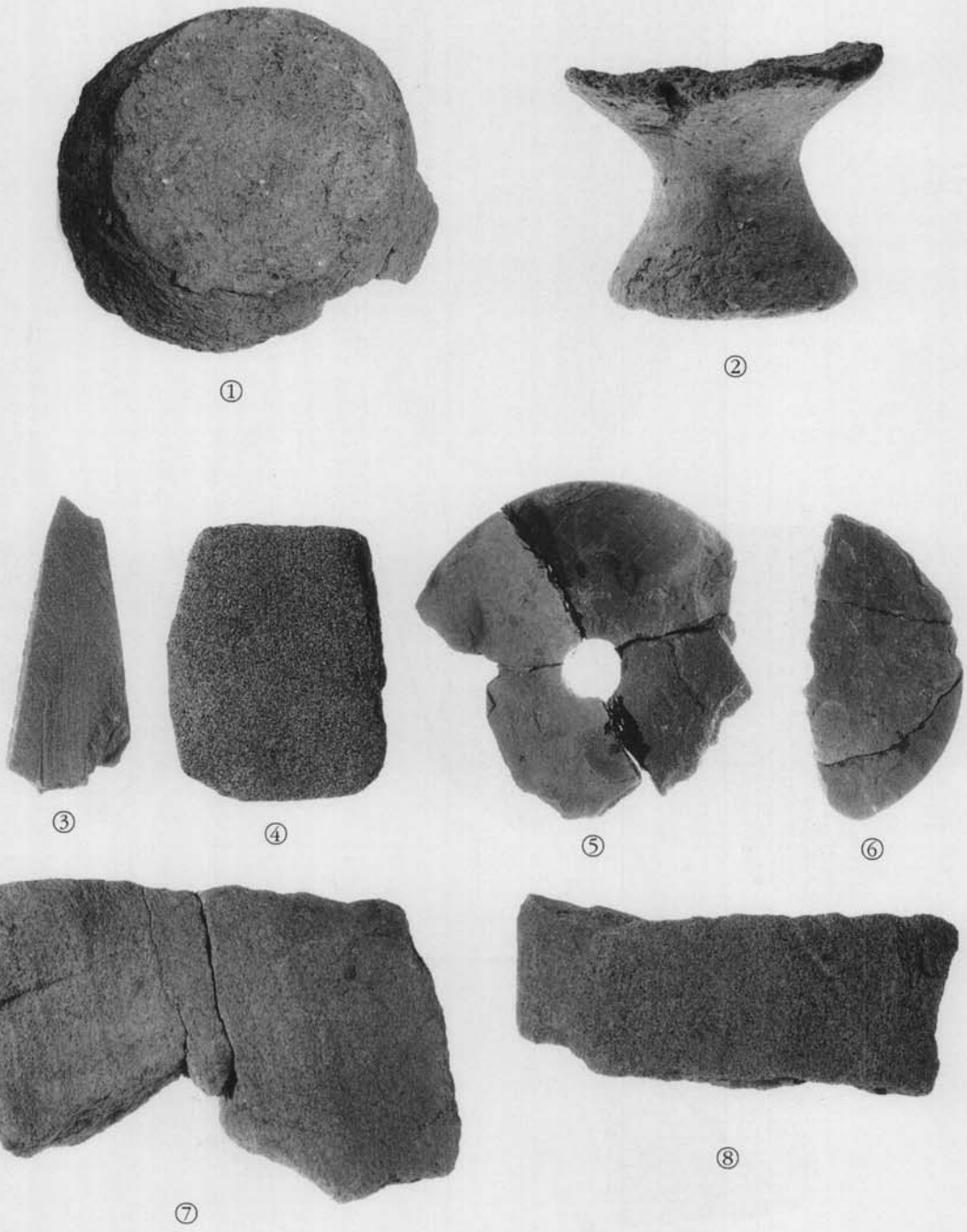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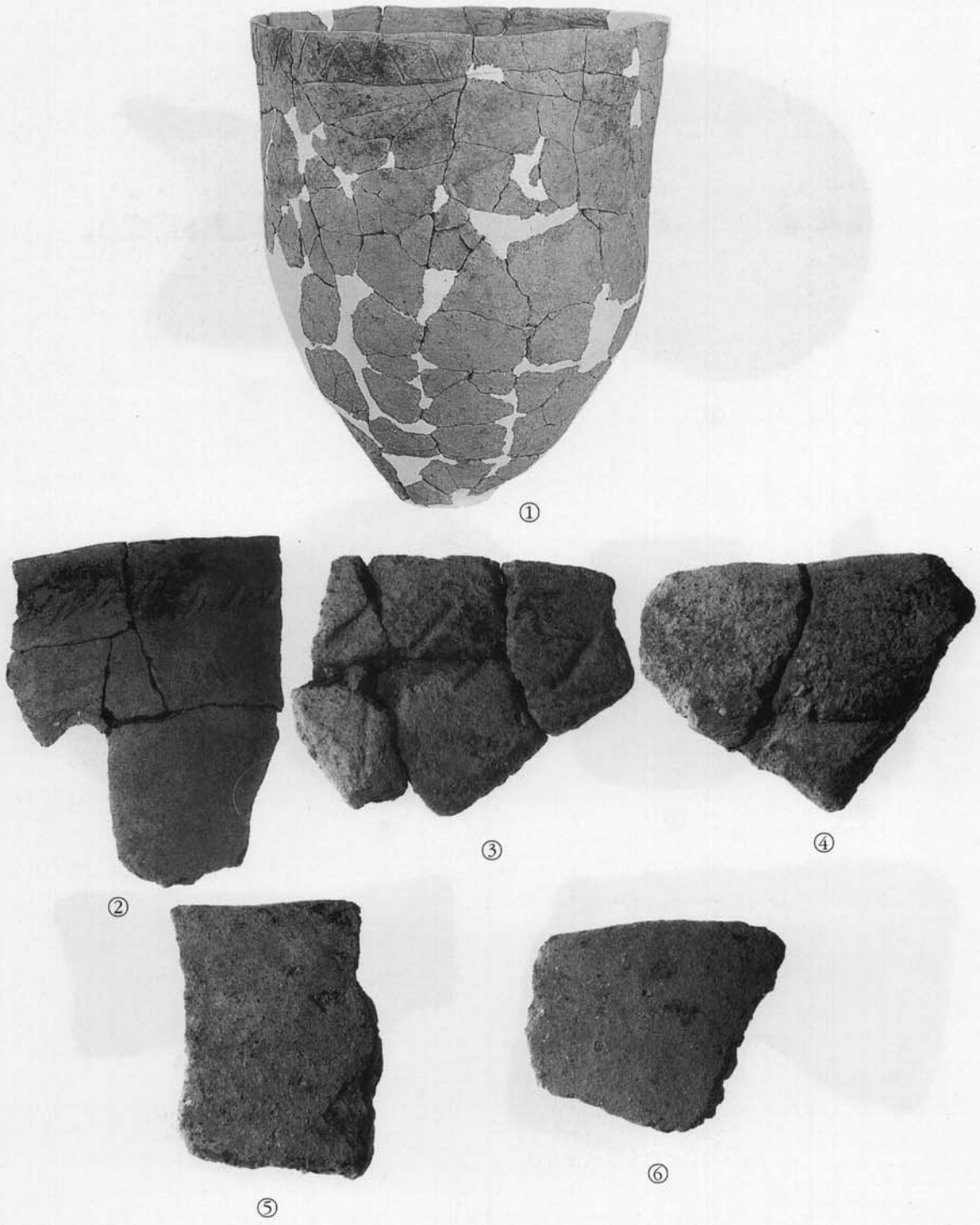


④

〈사진 62〉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63〉 교동 5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64〉 교동 6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진 65〉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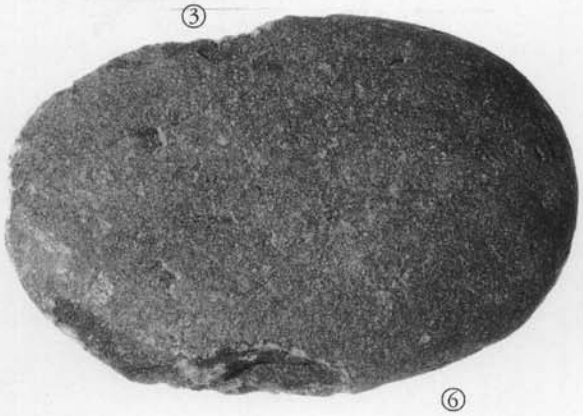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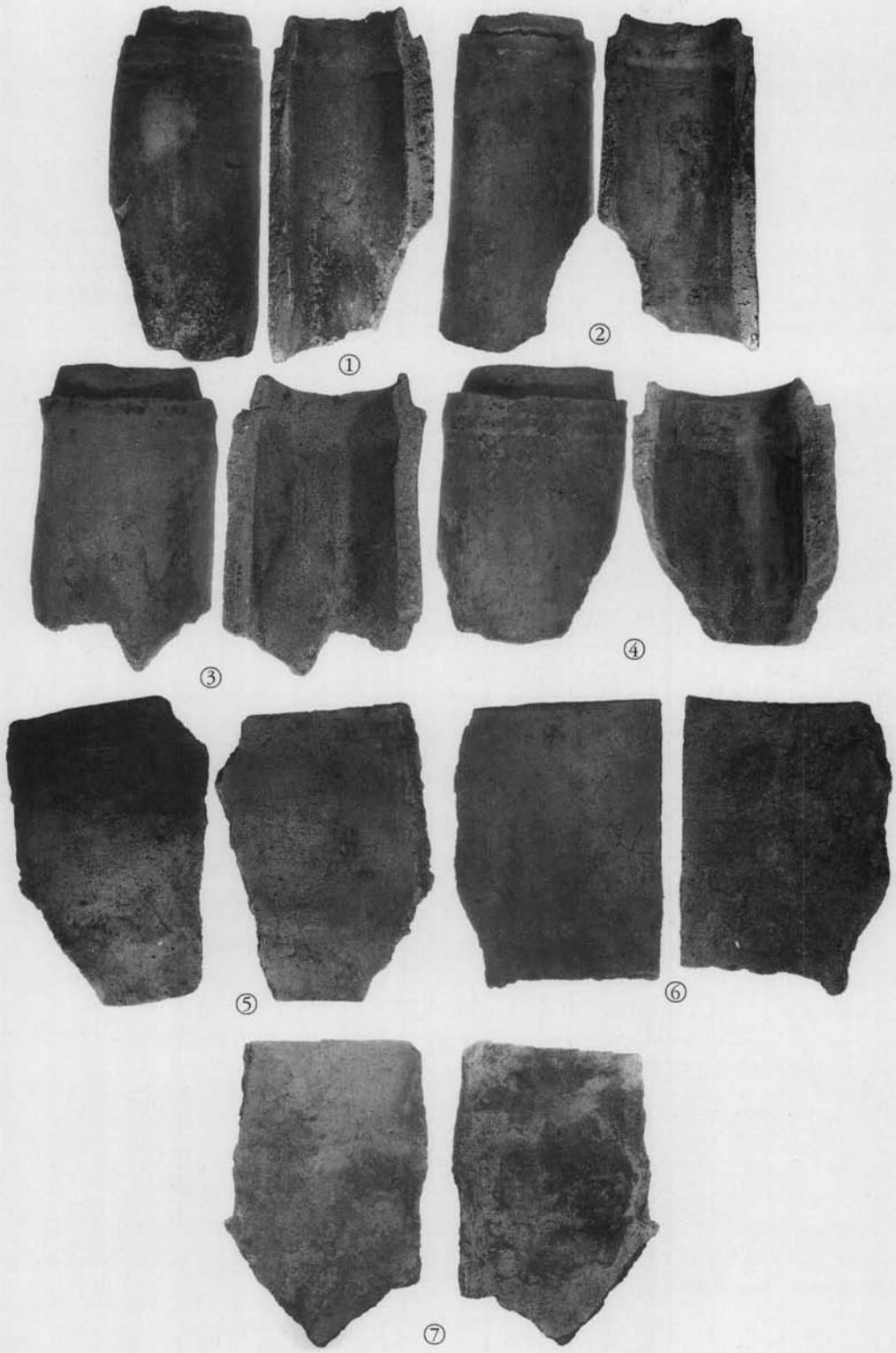


⑥



⑦

〈사진 66〉 교동 1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67〉 유천동 폐와무지 출토유물

江陵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37冊

江陵 校洞 調査報告書 抄錄

<table>
<tr><td>報告書名</td><td colspan="3">江陵 校洞 住居址</td><td>發刊日</td><td>2002년 8月</td></tr>
<tr><td rowspan="3">發刊機關</td><td>名 稱</td><td colspan="4">江陵大學校 博物館</td></tr>
<tr><td>住 所</td><td colspan="4">(210-702) 江原道 江陵市 池邊洞 123番地</td></tr>
<tr><td>TEL</td><td colspan="2">(033) 640-2596</td><td>FAX</td><td>033) 640-2593</td></tr>
<tr><td>執筆·編輯者</td><td colspan="5">백홍기 · 지현병 · 박영구</td></tr>
<tr><td>調 査 緣 由</td><td colspan="5">강릉 교동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앞선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td></tr>
<tr><td>發掘調査者</td><td colspan="5">백홍기 · 지현병 · 고동순 · 박영구 · 이창현 · 최영희</td></tr>
<tr><td>遺蹟所在地番</td><td colspan="5">강원도 강릉시 교2동 · 유천동 일대</td></tr>
<tr><td>調 査 面 積</td><td colspan="5">32.000㎡(약10,000 평)</td></tr>
<tr><td>遺 構 種 別</td><td>時代 및 年代</td><td>類型 및 基數</td><td colspan="2">重要遺物</td><td>特 記 事 項</td></tr>
<tr><td>주 거 지</td><td>청동기시대</td><td>장방형 3기
방형 3기</td><td colspan="2">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호형토기,
대부소호,반월형석
도,석촉, 방추차</td><td>청동기시대 最古의
炭火米 출토</td></tr>
<tr><td>폐와요지</td><td>근대</td><td>와요지 1기</td><td colspan="2">무문평기와류</td><td></td></tr>
</table>